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플라톤 『국가』

김 인 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8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플라톤 『국가』

김 인 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이태수

심재룡

김남두

김영정

허남진

윤선구(주간)

발간사

2002년 8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아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전임연구팀이 수행하고 있는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1차 년도 연구 결실을 지난해에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전14호로 묶어낸 데 이어, 이제 제2차 년도 연구결과 총서를 별책 제3권으로 엮어 내며, 아울러 제2권 몇몇 호의 보정판을 함께 펴낸다.

박사 전임연구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연구팀은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 주요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근간 개념들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설해 나가는 한편, 철학 지식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작업의 일차적 성과물로서 이 연구 총서를 펴냄과 아울러,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 서양어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철학 고전의 텍스트들을 한국어 표준 판본이 확보되는 대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상식인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작업은 오늘날의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장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 연구가가 나누어 맡아, 우선 각자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어서 저작의 골격을 이루

는 중심 개념들과 연관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위계도를 만든 후,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획 사업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우선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는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한국 사회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4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센터장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연구책임자

백 종 현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8호

플라톤 『국가』

김 인 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머리말

플라톤의 『국가』가 갖는 고전으로서 가치는 재삼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알다시피 플라톤의 저술들은 모두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워 익힌 철학하는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일정부분은 철학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은 강의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으며, 그 의의는 완결된 지식 체계를 전개하고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진리와 지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하고 부추기는데 있었음 익히 알려진 바다. 플라톤의 대화형식의 글들은 이런 동기를 담고 있으며, 그런 만큼 플라톤의 텍스트는 다른 철학 텍스트들 이상으로 직접 읽어서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의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점은 토픽 맵 방식에 따라 구축된 필자의 자료를 통해 플라톤을 접하게 될 사람들에게 먼저 밝혀 두고 싶다. 아울러 플라톤 텍스트의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국가』를 토픽 맵에 적합한 자료로 정리하고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점도 밝혀둔다. 가능한 한 텍스트 내용 전체를 충실히 지식지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저술의 성격과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는 일과 토픽맵 방식에 맞는 지식지도를 작성하는 일의 격차가 다른 철학 저술에 비해 심했던 것 같다. 그런 연유로 해서 분석이나 정리, 인용 부분에 미비한 구석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에 쫓긴 나머지 8권~10권까지의 내용을 본 자료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개선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처음 시도되는 토픽맵의 구축과 활용에 참여하게 된 것에 궁지를

느끼며 이런 작업이 인문학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암학당에서 김 인 곤

목 차

제1부 『국가』의 저자 및 작품 해제	1
I. 플라톤의 생애	1
II. 『국가』 해제	3
제2부 지식 지도	9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9
○ 철학 문헌 : 『국가』	9
○ 철학자 : 플라톤	10
○ 철학 용어 : 정의(3부 I장)	11
○ 철학 용어 : 국가(3부 II장)	12
○ 철학 용어 : 교육(3부 III장)	13
○ 철학 용어 : 지식 (3부 IV장)	14
II. 『국가』의 지식지도	15
1. 정의(正義)	15
2. 국가(polis)	17
3. 교육(paideia)	20
4. 지식(epistēmē)	21

제3부 『국가』의 주요 주제어 분석	23
1. 정의(dikaiosynē)	23
1.1. 전통적 정의관	23
1.1.1. 정직과 채무의 이행	23
1.1.2. 합당한 보상(報償)	24
1.1.2.1. 참된 의미의 보상(報償)	24
1.1.3. 강자의 이익	25
1.1.3.1. 엄밀한 의미(akribē logon)의 강자	26
1.1.3.2. 현실 속의 강자	27
1.1.3.2.1. 남에게 좋은 것	28
1.1.3.2.2. 큰 부정의의 이로움	29
1.1.4. 약자들의 협약	30
1.1.4.1 좋은 것의 세 가지 부류	30
1.1.4.2. 정의의 기원(= 법의 기원)	31
1.1.4.3. 결과로서 좋은 것	33
1.1.4.3.1. 인간의 탐욕(pleonexia)	34
1.2. 전통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	35
1.2.1. 말과 행위 규범으로서의 정의(正義)	35
1.2.2. 기술(technē)로서의 정의(正義)	35
1.2.2.1. 기술의 부정적 측면	36
1.2.2.1.1. 기술의 제한성	36
1.2.2.1.2. 기술의 양면성	38

1.2.2.1.3. 기술의 중립성	38
1.2.2.2. 기술의 긍정적 측면	39
1.2.2.2.1. 기술의 완결성	39
1.2.2.2.2. 약자의 이익	40
1.2.2.2.3. 돈벌이 기술과의 구별	41
1.2.3. 훌륭함(areté)으로서의 정의(正義)	42
1.2.4. 정의와 부정의의 비교	43
1.2.4.1. 정의로운 삶을 위한 변론	43
1.2.4.1.1. 지혜(sophia)의 측면	43
1.2.4.1.2. 힘(dynamis)의 측면	44
1.2.4.1.3. 행복(eudaimonia)의 측면	46
1.2.4.2. 부정의한 삶에 대한 찬양	48
1.2.4.2.1. 정의로운 삶과의 비교	48
1.2.4.2.1.1. 부정의 한 삶의 행복	49
1.2.4.2.1.1.1. 대중들이 정의를 찬양하는 동기	50
1.2.4.2.1.1.2. 부정의가 더 이득이 되는 여건들	50
1.2.4.2.1.1.3. 부정의를 부추기는 변론들	51
1.3 플라톤의 정의관	52
1.3.1. 정의를 찾는 방법	52
1.3.2. 국가의 정의(正義)	53
1.3.3. 개인의 정의	54
1.3.3.1. 혼의 세 부분	55
1.3.3.1.1. 세 부분의 구별을 위한 논증	55

1.3.3.1.1.1. 욕구의 존재	56
1.3.3.1.1.2. 이성과 욕구의 구별	58
1.3.3.1.1.3. 기개와 욕구의 구별	58
1.3.3.1.1.4. 기개와 이성의 구별	59
1.3.3.1.2. 세 부분의 역할	59
1.3.3.1.3. 세 부분의 덕(aretē)	60
1.3.3.2. 혼의 세 부분과 국가의 세 부류의 일치	60
1.3.4. 정의에 대한 최종 결론	61
1.3.4.1. 정의와 건강의 유비	62
 2. 국가(polis)	63
2.1. 국가의 수립	63
2.1.1. 최소국가	63
2.1.2. 건강한 국가	64
2.1.2.1. 1인 1업의 원리	64
2.1.3. 돼지들의 국가	65
2.1.4. 이상 국가	66
2.1.4.1. 이상 국가의 주요 부류	66
2.1.4.1.1. 수호자 부류	67
2.1.4.1.1.1. 수호자의 자격	67
2.1.4.1.1.2. 수호자의 생활	68
2.1.4.1.1.2.1. 단체생활	68
2.1.4.1.1.2.2. 사유 재산 금지	69

2.1.4.1.1.2.3. 처자들의 공유	70
2.1.4.1.1.2.3.1. 결혼	71
2.1.4.1.1.2.3.1.1. 근친 결혼 금지	72
2.1.4.1.1.2.3.2. 출산	73
2.1.4.1.1.2.3.3. 양육	73
2.1.4.1.1.2.4. 재산 및 처자 공유 제도의 효용성	74
2.1.4.1.1.2.4.1. 처자 공유의 효과	74
2.1.4.1.1.2.4.2. 재산 공유의 효과	75
2.1.4.1.1.3. 공동 참여 제도(남여 평등)	76
2.1.4.1.1.3.1. 공동 참여 제도의 장애 요인	77
2.1.4.1.1.3.1.1. 사회적 편견	77
2.1.4.1.1.3.1.2. 성향의 차이에 대한 논란	78
2.1.4.1.1.3.2. 전쟁의 공동 수행	78
2.1.4.1.1.3.2.1. 아이들의 전쟁 참관 교육	78
2.1.4.1.1.3.2.2. 전쟁과 관련된 규정들	79
2.1.4.1.1.3.2.2.1. 상별 규정	79
2.1.4.1.1.3.2.2.2. 폐배한 적에 관한 규정	80
2.1.4.1.1.3.2.2.3. 전쟁과 내분의 구별	80
2.1.4.1.1.4. 수호자의 임무	81
2.1.4.1.1.4.1. 정치 체제의 보존	81
2.1.4.1.1.4.1.1. 국가의 통합	81
2.1.4.1.1.4.1.1.1. 부의 통제	82
2.1.4.1.1.4.1.1.2. 국가의 크기 제한	82

2.1.4.1.1.4.1.1.3. 1인 1업의 원칙 고수	83
2.1.4.1.1.4.1.2. 교육의 지도 감독	83
2.1.4.1.1.4.1.2.1. 체육과 시가에 대한 감독	84
2.1.4.1.1.4.1.3. 국토 방위	85
2.1.4.1.1.5. 수호자의 삶은 행복한가?	85
2.1.4.1.2. 통치자 부류	86
2.1.4.1.2.1. 통치자의 자격	86
2.1.4.1.2.1.1. 철학적 자질	86
2.1.4.1.2.1.2. 굳은 애국심	86
2.1.4.1.2.2. 통치자의 임무	87
2.1.4.2. 이상 국가의 주요 덕목	88
2.1.4.2.1. 지혜(sophia)	88
2.1.4.2.2. 용기(andreia)	88
2.1.4.2.3. 절제(sōphrosynē)	89
2.1.4.2.4. 정의(dikaiosynē)	90
2.1.4.3. 이상국 가의 실현 가능성	90
2.1.4.3.1. 철학과 정치 권력의 통합	91
2.1.4.3.1.1. 철인 통치자의 자격	92
2.1.4.3.1.1.1. 지혜와 경험의 겹비	92
2.1.4.3.1.1.1.1. 철학적 자질(=통치자의 자질)	93
2.1.4.3.1.2. 철학자가 통치해야하는 이유	94
2.1.4.3.1.3. 철인 통치자의 삶	95
2.1.4.3.2. 철학이 비난받는 현실	95

2.1.4.3.2.1. 철학이 쓸모없게 되는 이유	96
2.1.4.3.2.1.1. 대중에 영합하는 선동 정치	96
2.1.4.3.2.1.2. 참된 정치술의 부재	97
2.1.4.3.2.2. 철학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98
2.1.4.3.2.2.1. 대중의 영향력	98
2.1.4.3.2.2.2. 대중에 영합하는 소피스테스들	99
2.1.4.3.2.2.3. 우수한 자질의 타락	100
2.1.4.3.3. 철학이 당하는 수치	101
2.1.4.3.4. 철학자의 현실 도피	101
 3. 교육(paideia)	102
3.1. 교육 과정	103
3.1.1. 청소년기 교육	103
3.1.1.1. 품성 교육	103
3.1.1.1.1. 시가(mousikē) 교육	104
3.1.1.1.1.1. 시가 교육의 교과	106
3.1.1.1.1.1.1. 설화(mythos)	106
3.1.1.1.1.1.1.1. 이야기 내용	107
3.1.1.1.1.1.1.1.1. 신	107
3.1.1.1.1.1.1.1.1.1. 신의 선함(훌륭함)	107
3.1.1.1.1.1.1.1.1.2. 신의 단순함	108
3.1.1.1.1.1.1.1.1.3. 신의 진실함	109
3.1.1.1.1.1.1.1.2. 영웅과 저승	109

3.1.1.1.1.1.1.3. 인간	110
3.1.1.1.1.1.2. 이야기 방식(lexis)	111
3.1.1.1.1.1.2.1. 모방에 의한 묘사	111
3.1.1.1.1.1.2.2. 모방의 제한적 사용	111
3.1.1.1.1.1.2. 노래(ōdē)	112
3.1.1.1.1.1.2.1. 선법(harmonia)	112
3.1.1.1.1.1.2.1.1. 벼려야할 선법	112
3.1.1.1.1.1.2.1.2. 취해야할 선법	113
3.1.1.1.1.1.2.2. 리듬(rhythmos)	114
3.1.1.1.2. 체육(gymnastikē) 교육	114
3.1.1.1.2.1. 시가와 체육의 병행	115
3.1.1.2. 지식 교육	116
3.1.1.2.1. 지식 교육의 의의	116
3.1.1.2.1.1. 혼의 전환(periagōgē)	116
3.1.1.2.1.1.1. 동굴의 비유	117
3.1.1.2.1.1.1.1. 동굴 속 세계	117
3.1.1.2.1.1.1.2. 동굴 밖의 세계	118
3.1.1.2.1.1.1.3. 동굴 속으로의 귀환	119
3.1.1.2.1.1.1.4. 선분의 비유, 해의 비유에 적용	120
3.1.1.2.1.1.2. 손가락의 비유	121
3.1.1.2.2. 예비 학과들	122
3.1.1.2.2.1. 수학	123
3.1.1.2.2.2. 기하학(geōmetria)	124

3.1.1.2.2.3. 입체 기하학	125
3.1.1.2.2.4. 천문학(astronomia)	125
3.1.1.2.2.5. 선법 연구(harmonia)	127
3.1.1.3. 현장 교육	127
3.1.1.3.1. 전쟁 참관	127
3.1.2. 성년기 교육	128
3.1.2.1. 변증술 수련을 위한 종합적 예비 교육	128
3.1.2.2. 변증술 교육	128
3.1.2.2.1. 변증술(dialektikē)	129
3.1.2.3. 실무 교육	131
3.1.2.4. 통치자를 위한 교육	131
3.1.2.4.1. 최상의 배움(to megiston mathēma)	131
4. 지식(epistēmē)	132
4.1. 능력(dynamis)으로서의 지식	132
4.1.1. 지식과 의견(doxa)의 구별	133
4.1.1.1. 의견(doxa)	134
4.1.1.1.1.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상태	134
4.2. 지식의 대상	135
4.2.1. 있는 것(to on)	136
4.2.2. 이데아(idea)	137
4.2.2.1. 이데아의 성격	137
4.2.2.1.1. 단일성(to hen)	137

4.2.2.1.1. 제삼의 침상 논증	138
4.2.2.1.2. 동일성	138
4.2.2.1.3. 가설적 성격	139
4.2.2.2. 이데아와 사물들의 관계	139
4.2.3. 가지적인 것(to noēton)	140
4.2.3.1. 좋음의 이데아	141
4.2.3.1.1. 해의 비유	141
4.2.3.1.2. 선분의 비유	142
4.2.3.1.2.1. 가시적 영역	142
4.2.3.1.2.2. 가지적 영역	143
4.2.3.1.2.2.1.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	144
4.2.3.1.2.2.2. 이데아들의 영역	145
4.2.3.1.2.3. 영역 구별에 따른豁의 상태	145
참고문헌	147

일·러·두·기

1. 이 책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의 그리스어 판본과 한국어 판본은 아래와 같다.

<그리스어 판본>

Platon, *Politeia in Platonis opera* Vol. 4 (ed. by) John Burnet, Oxford Univ. Press, 1900(1st.)-1989

<한국어 판본>

플라톤, 『(플라톤의)국가(政體)』, 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2.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플라톤 텍스트 인용시 따르기로 되어 있는 ‘스테파누스 쪽 수’(Stephanus pages)(137b, b, c, 와 같은 기호표시)를 따랐다. 한국어 판본도 스테파누스 쪽 수가 붙어 있으므로 따로 페이지를 붙이지 않았다.
3. 인용은 한국어 판본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그리스어 dikaiosynē, dikaiion, dikaios 경우만은, 한국어 판본에서는 대부분 ‘올바름’, ‘올바른 것’, ‘올바른’으로(드물게는 ‘정의’, ‘정의로운’으로 번역하거나 팔호로 병기하기도 함)번역하고 있으나, 해설서에서는 토픽 맵의 주제어 ‘정의(正義)’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정의’, ‘정의로운 것’, ‘정의로운’으로 바꾸었다.

제1부 『국가』의 저자 및 작품 해제

I. 플라톤의 생애

플라톤은 기원전 428/7년에 태어나서 348/7년에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아테네의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막내아들이었다. 형제 자매는 위로 형 둘(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과 누이 하나(포토네)가 있었다. 아버지 아리스톤은 일찍 죽었기 때문인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어머니 페리티오네는 아테네 명문 귀족 출신이며, 그녀의 집안 사람들 중 남자 형제 카르미데스와 사촌 형제 크리티아스는 30인 과두 정권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다. 전쟁 직전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통치 아래 황금기를 구가하던 터였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이십대 부터였던 것 같다. 소크라테스와의 교분이 플라톤의 삶과 그의 지적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그의 여러 저작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는데, 이 죽음이 플라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 준다. 당시 28세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플라톤에게 이 사건은 철학에 전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당시의 정치 상황은 이미 청년 플라톤으로 하여금 현실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직후(기원전 404년) 30인 과두 정권이 보여준 잔인하고 전제적인 공포 정치에 플라톤은 크게 실망한다. 그래도 과두 정권의 90일 천하를 뒤집고 들어선 민주파 정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지켜본다.

그러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 결국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청년 플라톤은 정계 진출의 기대를 접는다.

소크라테스 사후 40세까지 플라톤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없다. 40세 되던 해에 그는 2년간 남부 이탈리아와 시켈리아(시칠리아)를 여행한다. 남부 이탈리아의 타라스(타렌툼)에서 몇몇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을 만나 교분을 나눈다. 정치가이자 장군이며 천문학자인 아르키테스는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시켈리아의 시라쿠사이를 방문, 거기서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의 쳐남인 21살의 디온을 만난다. 자신의 철학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플라톤 역시 철인 통치의 이념을 구현해 줄 재목으로 기대했던 이 젊은이로 인해 이후 두 번이나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 아테네로 돌아온 42세 무렵 아테네 근처에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우고 학문 활동과 강의에 주력한다.

아카데미아 창건 이후부터 2차와 3차 시켈리아 여행에 나서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플라톤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60세이던 기원전 367년 플라톤은 시켈리아로 와 달라는 디온의 요청을 받는다.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고, 뒤를 이은 나이 어린 참주 디오니시오스 2세를 가르쳐 철인 정치를 구현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방문은 실패로 끝난다. 디온은 모반 혐의로 추방당하고 플라톤은 귀국길이 막힌다.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로 돌아오지만 2년을 허비한다. 4년 뒤, 디오니시오스 2세의 초청에 응하여 내키지 않는 방문을 하지만 역시 성과 없이 끝난다. 이후 13년을 아카데미아에서 저술과 학문 활동을 계속하다가 347년 80세로 생을 마감한다. 그가 죽은 후 아카데미아의 운영은 조카 스페우시포스가 이어 받는다.

II. 『국가』 해제

『국가』는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과 나머지 아홉 권은 저술 시기가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1권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정의 개념들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가 논의되고 논박되는 방식이 초기 대화편들의 경우와 똑 같다. 그래서 이 1권을 초기의 후반부에 속하는 작품으로 분류하고, 등장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소피스트의 이름을 따서 『트라시마코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트라시마코스가 제시하는 정의(正義)는 플라톤의 그것과 대비되는 가장 강력한 경쟁 개념이다. 2 ~ 10권의 내용은 여기에 대항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들로 채워진다. 이 2 ~ 10권은 중기 후반에 속하는 작품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권과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 저술 시기는 기원전 380년에서 370년 사이로 추정된다. 플라톤이 60세의 나이에 두 번째로 시라쿠사를 방문했을 때(367년)는 이미 이 대화편에서 언급하는 철인 치자 사상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권이라는 책의 권수 구분은 내용과 꼭 합치하지는 않는다. 권수는 필사본인 두루마리의 길이와 관계가 있다. 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전날 있었던 일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전날 있었던 일이란 소크라테스가 일행과 함께 아테네의 외항(外港) 피레우스로 가서 축제 행사를 구경하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를 만나 그의 집에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일이다. 소크라테스 일행이 폴레마르코스의 권유를 받고 머물면서 대화를 나눈 장소는 시라쿠사 사람인 부유한 캐팔로스 옹의 집이며, 대화 속의 등장 인물은 소크라테스와 케

팔로스,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마르코스, 소피스테스인 트라시마코스, 플라톤의 두 형들인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 그리고 클레이토폰(트라시마코스의 추종자로 1권에서 잠간 등장한다)이다. 소크라테스의 방문을 반갑게 맞는 케팔로스 옹과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대화는 시작된다.

대화편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는 아래 세부 목차로 대신하도록 한다.

『국가』세부 목차

1부.(I권-II권_366d) 전통적의 정의관

1. (327 ~ 331d) 케팔로스의 정의(正義)

(327 ~ 331b) 정직과 채무의 이행

(331c ~ d) [비판] 정직함이 해가되는 사례

2. (331e ~ 335e) 폴레마르코스의 정의(正義)

(331e ~ 336a)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갚음

(332c ~ 334e) [비판] 기술로서의 정의의 문제점

(335a) 참된 의미의 합당한 갚음

(335b ~ e) [비판] 훌륭함(aretē)으로서의 정의(正義)
는 해를 끼칠 수 없다

3. (336b ~ 354c) 트라시마코스의 정의(正義)

(336b ~ 347e) (1)강자의 이익

(339c ~ 339e) [비판] 강자의 실수 가능성

(340d ~ 341a) (2)엄밀한 의미의 강자

(342b ~ 342e) [비판] 엄밀한 의미의 통치술은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

(343a ~ 344c) (3)현실 속의 강자

(345e ~ 347d) [비판] 통치술과 돈벌이 기술의 구별, 꾀
통치자의 이득

(347e ~ 354c) 정의로운 삶을 위한 변론

4. (357a ~ 367e) 글라우콘의 정의.

(357a ~ 358d) 좋은 것의 세 가지 부류

(358e ~ 360d) 약자들의 협약(정의의 기원 = 법의 정신)

(360e ~ 367e) 부정의한 삶에 대한 찬양

(362d ~ 367e) 아테이만토스의 보충 연설

2부.(II권367e-IV권). 플라톤의 정의관

5. (367e ~ 434d) 국가의 정의

(367e ~ 369a) 정의(正義)를 찾는 방법

(369b ~ 374e) 국가의 수립: 최소 국가, 건전한 국가, 돼지
들의 국가

(375a ~ 434d) 이상 국가의 수립

(375a ~ 376e) 수호자의 기질

(376e ~ 412b) 수호자들을 위한 교육

(376e ~ 403c) 시가 교육

(403d ~ 412b) 체육 교육

(412b ~ 415d) 통치자들의 선발과 자격

(415e ~ 421c) 수호자들의 생활 방식

(421d ~ 427c) 수호자들의 임무

(427c ~ 434d) 이상 국가의 주요 덕목

6. (434d ~ 455b) 개인의 정의

(434d ~ 441c) 혼의 세 부분

(441c ~ 445b) 개인의 주요 덕목

2부 보충. (IV권445b ~ V권471c) 공동 관여 제도(koinōnia)

(445b ~ 457b) 남·여 역할의 평등

(457b ~ 466d) 처자의 공유

(466d ~ 471e) 전쟁의 공동 수행

3부.(V권471c-VII권) 이상국가의 실현 가능성 모색

7. (471c ~ 487a) 철학과 정치 권력의 통합

(474b ~ 480a) 철학자에 대한 정의(定義), 지식과 의견의 구

(VI권484a ~ 487a) 철학자의 자질 = 통치자의 자질

8. (487b ~ 497a) 철학이 비난받는 현실

(487b ~ 488e) 철학이 쓸모없게 되는 이유

(488e ~ 495b) 철학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495c ~ 497a) 철학이 당하는 수치와 철학자의 현실 도피

9. (497a ~ 502c) 철학을 대하는 방식의 개선, 철인 통치자의 출 현 희망

10.(502c ~ 541b) 철인 통치자의 선발과 교육

(502c ~ 508e) 철학자의 자질과 최상의 배움(좋음의 이데아)

(507a ~ 509c) 좋음의 이데아와 해의 비유

(509d ~ 511e) 선분의 비유

(VII권514a ~ 521b) 동굴의 비유

(521c ~ 531c) 혼의 전환을 위한 예비 학과들

(524d ~ 526b) 수학

(526c ~ 527c) 기하학

(527d ~ 528e) 입체 기하학

(528e ~ 530c) 천문학

(530c ~ 531c) 선법 연구

(531c ~ 535a) 변증술

(535a ~ 541b) 각 학과들의 교육 시기

4부.(VIII권-IX권) 정치체제와 혼의 쇠퇴 과정. 정의로운 삶과 부정의한 삶의 비교

11.(543a ~ 550c) 이상국가의 쇠퇴. 명예 정체(timokratia, timarchia)와 명예 정체적 인간

(550c ~ 555b) 과두 정체(oligarchia)와 과두 정체적 인간

(555b ~ 562b) 민주 정체(dēmokratia)와 민주 정체적 인간

(562a ~ IX권576b) 참주 정체(tyrannis)와 참주 정체적 인간

12. (576b ~ 588a) 부정의한 삶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이 행복하다.

(588b ~ 592b) 부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득이 된다

5부.(X권595a-608b) 예술과 시 비판(철학과 시의 대립)

13.(X권595a ~ 603b) 예술에서의 재현(모방)과 진리의 관계

(603c ~ 605c) 시에서의 모방: 이성이 아닌 감정(pathos)의 모방

(605c ~ 608b) 시의 모방이 혼에 미치는 영향

6부. (X권608c ~ 621d) 혼의 불멸과 정의(正義)에 대한 보상

14.(608c ~ 612a) 혼의 불멸성 논증

15.(612a ~ 613e) 현생에서 정의에 대한 보상

(613e ~ 621d) 저승에서 정의에 대한 보상

제2부 지식지도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철학 문헌 : 『국가』

원전의 전체 내용 요약 : 1-2

원전의 세부 내용 목차 : 1-3

원전의 중요성 해설 :

원전의 중요한 철학 용어 : 정의, 국가, 교육, 지식

한국어 표준 번역본 제목 : 『국가(政體)』

한국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 박종현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 서울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 서광사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 년도 : 1997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

영어 표준 번역본 제목 : *The Republic*

영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 Paul Shorey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 London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 Harvard University Press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년도 : 1980(1st printed 1935)

영어 디지털 텍스트 :

원어 표준 판본 제목 : *Politeia*

원어 표준 판본 편집자 : John Burnet

원어 표준 판본 출판 도시 : London

원어 표준 판본 출판사 : Oxford University Press

원어 표준 판본 출판 년도 : 1983

원어 표준 판본 초판 출판 년도 : 1903

원어 디지털 텍스트 :

○ 철학자 : 플라톤

생애 해설 : 1-1

한국어 이름 : 플라톤

영어 이름 : Plato

원어 이름 : Platon

인물 사진 :

출생 국가 : 그리스

출생 도시 : 아테네

출생 년도 : 기원전 427년

사망 년도 : 기원전 347년

한국어 웹사이트 :

영어 웹사이트 :

원어 웹사이트 :

주요 저작1 한국어 제목 : 『법률』

주요 저작2 한국어 제목 : 『정치가』

주요 저작3 한국어 제목 : 『티마이오스』

활동 시기 : 그리스 고전 철학

활동 분야 : 형이상학, 인식론, 정치 철학

대표 사상 :

대표 이론 : 이성주의, 이원론

스승 : 소크라테스

제자 : 아리스토텔레스

지지자 :

반대자 :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준 철학자 :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철학자 : 파르메니데스, 피타고拉斯, 소크라테스,

○ 철학 용어 : 정의(3부 I장)

한국어 용어 : 정의

한자어 표기 : 正義

한국어 용어 출처 : 『국가』331c

한국어 용어 정의 :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본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한국어 반대 용어 : 불의(不義)

한국어 유사 용어 : 올바름

한국어 관련 용어 :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

영어 용어 : justice

영어 용어 출처 : *The Republic* 331c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dikaiosynē

원어 용어 출처 : *Politeia* 331c

원어 용어 정의 : *Politeia* 443c

사용한 철학 분야 : 정치철학, 윤리학

사용한 철학사 : 그리스 고전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플라톤

사용한 철학 문헌 : 『국가』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철학 용어 : 국가(3부 II장)

한국어 용어 : 국가

한자어 표기 : 國家

한국어 용어 출처 : 『국가』330a

한국어 용어 정의 :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나라

한국어 관련 용어 : 정치 체제, 정체

영어 용어 : city, state

영어 용어 출처 : *The Republic* 331c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polis

원어 용어 출처 : *Politeia* 331c

원어 용어 정의 :

사용한 철학 분야 : 정치 철학

사용한 철학사 : 그리스 고전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플라톤

사용한 철학 문헌 : 『국가』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철학 용어 : 교육(3부 III장)

한국어 용어 : 교육

한자어 표기 : 教育

한국어 용어 출처 : 『국가』376e

한국어 용어 정의 : 법과 관습의 보존을 위해 좋은 품성을 갖
게 하고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한국어 관련 용어 : 양육

영어 용어 : education

영어 용어 출처 : *The Republic* 376e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paideia

원어 용어 출처 : *Politeia* 376e

원어 용어 정의 :

사용한 철학 분야 : 교육 철학

사용한 철학자 : 그리스 고전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플라톤

사용한 철학 문헌 : 『국가』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철학 용어 : 지식(3부 IV장)

한국어 용어 : 지식

한자어 표기 : 知識

한국어 용어 출처 : 『국가』340e

한국어 용어 정의 : 존재, 이데아, 진리에 대한 앎

한국어 반대 용어 : 무지

한국어 유사 용어 : 인식, 앎

한국어 관련 용어 : 지성, 의견, 이데아, 존재, 진리

영어 용어 : knowledge

영어 용어 출처 : *The Republic* 340e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epistēmē

원어 용어 출처 : *Politeia* 340e

원어 용어 정의 :

사용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 인식론

사용한 철학자: 그리스 고전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플라톤주의

사용한 철학자 : 플라톤

사용한 철학 문헌: 『국가』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II. 『국가』의 지식지도

1. 정의(正義)

1.1. 전통적 정의관

1.1.1. 정직과 채무의 이행

1.1.2. 합당한 보상

1.1.2.1. 참된 의미의 보상

1.1.3. 강자의 이익

1.1.3.1. 엄밀한 의미의 강자

1.1.3.2. 현실 속의 강자.

1.1.3.2.1. 남에게 좋은 것

1.1.3.2.2. 큰 부정의의 이로움

1.1.4. 약자들의 협약

1.1.4.1. 좋은 것의 세 가지 부류

1.1.4.2. 정의의 기원(=법의 기원)

1.1.4.3. 결과로서 좋은 것

1.1.4.3.1. 인간의 탐욕

1.2. 전통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

1.2.1. 말과 행위 규범으로서의 정의(正義)

1.2.2. 기술(technē)로서의 정의(正義)

1.2.2.1. 기술의 부정적 측면

1.2.2.1.1. 기술의 제한성

1.2.2.1.2. 기술의 양면성

1.2.2.1.3. 기술의 중립성

1.2.2.2. 기술의 긍정적 측면

1.2.2.2.1. 기술의 완결성

1.2.2.2.2. 약자의 이익

1.2.2.2.3. 돈벌이 기술과의 구별

1.2.3. 훌륭함(areté)로서의 정의(正義)

1.2.4. 정의와 부정의의 비교

1.2.4.1. 정의로운 삶을 위한 변론

1.2.4.1.1. 지혜(sophia)의 측면

1.2.4.1.2. 힘(dynamis)의 측면

1.2.4.1.2.1. 불화를 가져오는 부정의

1.2.4.1.3. 행복(eudaimonia)의 측면

1.2.4.1.3.1. 혼의 훌륭한 상태

1.2.4.2. 부정의한 삶에 대한 찬양

1.2.4.2.1. 정의로운 삶과의 비교

1.2.4.2.1.1. 부정의 한 삶의 행복

1.2.4.2.1.1.1. 대중이 정의를 찬양하는 동기

1.2.4.2.1.1.2. 부정의가 더 득이 되는 여건들

1.2.4.2.1.1.3. 부정의를 부추기는 변론들

1.3. 플라톤의 정의관

1.3.1. 정의를 찾는 방법

1.3.2 .국가의 정의

1.3.3. 개인의 정의

1.3.3.1. 혼의 세 부분

1.3.3.1.1. 세 부분의 구별을 위한 논증

1.3.3.1.1.1. 상반된 행위 배제의 원리

1.3.3.1.1.1.1. 원리의 적용 사례

1.3.3.1.1.2. 욕구의 존재

1.3.3.1.1.3. 이성과 욕구의 구별

1.3.3.1.1.4. 기개와 욕구의 구별

1.3.3.1.1.5. 기개와 이성의 구별

1.3.3.1.2. 세 부분의 역할

1.3.3.1.3. 세 부분의 덕

1.3.3.2. 혼의 세 부분과 국가의 세 부류의 일치

1.3.4. 정의에 대한 최종 결론

1.3.4.1. 정의와 건강의 유비

2. 국가(polis)

2.1. 국가의 수립

2.1.1. 최소 국가

2.1.2. 건강한 국가

2.1.2.1. 1인 1업의 원리

2.1.3. 돼지들의 국가

2.1.4. 이상 국가

2.1.4.1. 이상국가의 주요 부류

2.1.4.1.1. 수호자 부류

2.1.4.1.1.1. 수호자의 자격

2.1.4.1.1.2. 수호자의 생활

2.1.4.1.1.2.1. 단체생활

2.1.4.1.1.2.2. 사유재산 금지

2.1.4.1.1.2.2.1. 사유재산을 금하는 이유

- 2.1.4.1.1.2.3. 처자들의 공유
 - 2.1.4.1.1.2.3.1. 결혼
 - 2.1.4.1.1.2.3.1.1. 근친결혼 금지
 - 2.1.4.1.1.2.3.2. 출산
 - 2.1.4.1.1.2.3.3. 양육
- 2.1.4.1.1.2.4. 재산 및 처자 공유 제도의 효용성
 - 2.1.4.1.1.2.4.1. 처자공유의 효과
 - 2.1.4.1.1.2.4.2. 재산공유의 효과
- 2.1.4.1.1.3. 공동참여제도
 - 2.1.4.1.1.3.1. 공동참여제도의 장애요인
 - 2.1.4.1.1.3.1.1. 사회적 편견
 - 2.1.4.1.1.3.1.2. 성향의 차이에 대한 논란
 - 2.1.4.1.1.3.2. 전쟁의 공동수행
 - 2.1.4.1.1.3.2.1. 아이들의 전쟁 참관 교육
 - 2.1.4.1.1.3.2.2. 전쟁과 관련된 규정들
 - 2.1.4.1.1.3.2.2.1. 상별 규정
 - 2.1.4.1.1.3.2.2.2. 패배한 적에 관한 규정
 - 2.1.4.1.1.3.2.2.3. 전쟁과 내분의 구별
 - 2.1.4.1.1.4. 수호자의 임무
 - 2.1.4.1.1.4.1. 정치체제의 보존
 - 2.1.4.1.1.4.1.1. 국가의 통합
 - 2.1.4.1.1.4.1.1.1. 부의 통제
 - 2.1.4.1.1.4.1.1.2. 국가의 크기 제한
 - 2.1.4.1.1.4.1.1.3. 1인 1업의 원칙 고수
 - 2.1.4.1.1.4.1.2. 교육의 지도감독
 - 2.1.3.1.1.4.1.2.1. 체육과 시가에 대한 감독
 - 2.1.3.1.1.4.2. 국토방위

- 2.1.4.1.1.5. 수호자의 삶은 행복한가?
- 2.1.4.1.2. 통치자 부류
 - 2.1.4.1.2.1. 통치자의 자격
 - 2.1.4.1.2.1.1. 철학적 자질
 - 2.1.4.1.2.1.2. 굳은 애국심
 - 2.1.4.1.2.2. 통치자의 임무
- 2.1.4.2. 이상국가의 주요 덕목
 - 2.1.4.2.1. 지혜(sophia)
 - 2.1.4.2.2. 용기(andreia)
 - 2.1.4.2.3. 절제(sophrosynē)
 - 2.1.4.2.4. 정의(dikaiosynē)
- 2.1.4.3. 이상국가의 실현 가능성
 - 2.1.4.3.1. 철학과 정치권력의 통합
 - 2.1.4.3.1.1. 철인 통치자의 자질
 - 2.1.4.3.1.1.1. 지혜와 경험의 겸비
 - 2.1.4.3.1.1.2. 철학적 자질
 - 2.1.4.3.1.2. 철학자가 통치해야 하는 이유
 - 2.1.4.3.1.3. 철인 통치자의 삶
 - 2.1.4.3.2. 철학이 비난받는 현실
 - 2.1.4.3.2.1. 철학이 쓸모없게 되는 이유
 - 2.1.4.3.2.1.1. 대중에 영합하는 선동 정치
 - 2.1.4.3.2.1.2. 참된 정치술의 부재
 - 2.1.4.3.2.2. 철학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 2.1.4.3.2.2.1. 대중의 영향력
 - 2.1.4.3.2.2.1.1. 대중에 영합하는 소피스테스들
 - 2.1.4.3.2.2.2. 우수한 자질의 타락
 - 2.1.4.3.2.3. 철학이 당하는 수치

2.1.4.3.2.4. 철학자의 현실도피

3. 교육(paideia)

3.1. 교육과정

3.1.1. 청소년기 교육

3.1.1.1. 품성 교육

3.1.1.1.1. 시가(mousikē) 교육

3.1.1.1.1.1. 시가교육의 교과

3.1.1.1.1.1.1. 설화(mythos)

3.2.1.1.1.1.1.1.1. 이야기 내용

3.2.1.1.1.1.1.1.1. 신

3.2.1.1.1.1.1.1.1.1. 신의 선함(훌륭함)

3.2.1.1.1.1.1.1.1.2. 신의 단순함

3.2.1.1.1.1.1.1.1.2.1. 신의 진실함

3.2.1.1.1.1.1.1.1.2. 영웅과 저승

3.2.1.1.1.1.1.1.3. 인간

3.1.1.1.1.1.2. 이야기 방식(lexis)

3.2.1.2.1.1.2.1. 모방(mimēsis)에 의한 묘사

3.2.1.2.1.1.2.2. 모방의 제한적 사용

3.1.1.1.1.1.3. 노래(ōdē)

3.1.1.1.1.1.3.1 .선법(harmonia)

3.1.1.1.1.1.3.1.1. 벼려야 할 선법

3.1.1.1.1.1.3.1.2. 취해야 할 선법

3.1.1.1.1.1.3.2. 리듬(rhythmos)

3.1.1.1.2 .체육(gymnastikē) 교육

3.1.1.1.2.1. 시가와 체육의 병행

3.1.1.2. 지식교육

- 3.1.1.2.1. 지식교육의 의의
 - 3.1.1.2.1.1. 혼의 전환
 - 3.1.1.2.1.1.1. 동굴의 비유
 - 3.1.1.2.1.1.1.1. 동굴 속 세계
 - 3.1.1.2.1.1.1.2. 동굴 밖 세계
 - 3.1.1.2.1.1.1.3. 동굴 속으로 귀환
 - 3.1.1.2.1.1.1.4. 선분의 비유, 해의 비유에 적용
 - 3.1.1.2.1.1.2. 손가락의 비유
 - 3.1.1.2.2. 예비 학과들
 - 3.1.1.2.2.1. 수학
 - 3.1.1.2.2.2. 기하학(geōmetria)
 - 3.1.1.2.2.3. 입체 기하학
 - 3.1.1.2.2.4. 천문학(astronomia)
 - 3.1.1.2.2.5. 선법연구(harmonia)
 - 3.1.1.2.3. 현장교육
 - 3.1.1.2.3.1. 전쟁 참관
 - 3.1.2. 성년기 교육
 - 3.1.2.1. 종합적 예비교육
 - 3.1.2.2. 변증술 훈련
 - 3.1.2.2.1. 변증술(dialektikē)
 - 3.1.2.3. 실무 교육
 - 3.1.2.4. 통치자 교육
 - 3.1.2.4.1. 최상의 배움

4. 지식(epistēmē)

- 4.1. 능력(dynamis)으로서의 지식
 - 4.1.1. 지식과 의견(doxa)의 구별

4.1.1.1. 의견(doxa)

4.1.1.1.1.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상태

4.2. 지식의 대상

4.2.1. 있는 것(to on)

4.2.2. 이데아(idea)

4.2.2.1. 이데아의 성격

4.2.2.1.1. 단일성(to hen)

4.2.2.1.1.1. 제삼의 침상 논증

4.2.2.1.2. 동일성

4.2.2.1.3. 가설적 성격

4.2.2.2. 이데아와 사물들의 관계

4.2.3. 가지적인 것(to noēton)

4.2.3.1. 좋음의 이데아

4.2.3.1.1. 해의 비유

4.2.3.1.2. 선분의 비유

4.2.3.1.2.1. 가시적 영역

4.2.3.1.2.2. 가지적 영역

4.2.3.1.2.2.1.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

4.2.3.1.2.2.2. 이데아들의 영역

4.2.3.1.2.3. 영역 구별에 따른 앎의 상태

제3부 『국가』의 주요 주제어 분석

1. 정의(dikaiosynē)

1.1. 전통적 정의관

1.1.1. 정직과 채무의 이해

정의(正義)에 관한 논의는 케팔로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가 노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묻자, 케팔로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들은 대개 젊은 시절의 즐거움(성적쾌락, 술잔치 축하연)을 아쉬워하고 그런 것들의 상실을 한탄하면서 노년에 겪게 되는 여러 곤경들의 탓을 노령에 돌리지만, 정작 탓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tropos)이다. 노년에 이르면 광포한 주인과도 같은 온갖 욕망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큰 평화와 자유가 생기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는다. 사람들은 케팔로스가 노년을 수월하게 견뎌내는 것은 가진 재산 덕으로 생각할 텐데, 재산을 가짐으로써 덕을 보게 되는 것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 케팔로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재산의 소유는 마지못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준다든가, 신께 제물을 빚지거나 남한테 재물을 빚진 채로 저승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없애준다 라고.(328e ~ 331b) 소크라테스는 케팔로스의 이 대답이 ‘정의’에 대한 의미 규정(horos)으로서 충분한지를 되물으면서 정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 아주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케팔로스님! 하지만 바로 이것, 즉 정의(dikaiosynē)를 정직함과 남한테서 받는 것을 갚는 것이라는 식으로 단

순히(무조건적으로) 말할 것인지요, 아니면 이런 걸 행하는 것도 때로는 정의롭지만, 때로는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것인지요? [...]”(331a ~b)

1.1.2. 합당한 보상(報償)

케팔로스의 정의(‘정직과 채무의 이행’)가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받자, 폴레마르코스가 나선다. 그는 시인 시모니데스의 권위에 의지해서 케팔로스의 정의를 지지한다. 시모니데스는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말의 참뜻을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돌려주고 적에게는 나쁜 것을 갚아주는 것, 즉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갚는 것’으로 풀이한다.(331e ~ 332c)

“[...] 누군가가 황금을 맡긴 사람에게 그걸 되돌려 준다고 할 때, 만약에 그 되돌려 줌과 받음이 해로운 것으로 된다면, 더구나 돌려받는 쪽과 돌려주는 쪽이 서로 친구 사이일 경우에는, 그가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오. 당신은 시모니데스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걸로 보지 않겠죠? [...] 그렇다면 시모니데스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함에 있어서 시인처럼 암시적으로 말한 것 같소. 그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갚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고, 이 합당한 것(to prosēkon)을 갚을 것(마땅한 것)이라고 일컬은 것 같으니까 말씀이오.”(332b ~c)

1.1.2.1. 참된 의미의 보상(報償)

첫 번째 제안(‘합당한 보상’)이 논박 당하게 되자, 폴레마르코스는 오류 가능성은 배제한 ‘참된 의미의 보상’으로 수정한다.

“선량하다고 생각(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선량한 사람을 친구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선량하다고 생각되긴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는 친구로 생각되긴 하나 실은 친구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적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thesis)이 적용되겠고요. [...]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더러 처음에 우리가 친구에겐 잘 되게 해 주되 적한테는 나쁘게 되게 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한 그 ‘정의로운 것’(to dikaion)의 의미 규정에다 덧붙일 것을 당부하는 게로군요 이제 이 규정에다가 이런 식으로 즉 실제로 좋은 친구는 잘 되게 해 주되 실제로 나쁜 것은 해롭도록 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라고 당부하는 거겠죠?”(334e ~ 335a)

1.1.3. 강자의 이익

폴레마르코스가 논박 당하자 트라시마코스가 분을 터트리며 개입한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상투적인 시침떼기 술법을 질타한 후에 ‘강자의 이익’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대담하게 내 놓는다.(336b ~ 339a) 케팔로스의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나 폴레마르코스의 ‘합당한 보상’이 개인들 간에 지켜야할 규범이나 원칙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 비해서,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이익’은 국가 차원의 정의 개념이다.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은 ‘정치 권력을쥔 강자(통치자)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만든 법을 약자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주장의 약식 표현이다. 그러니까 정의의 주체는 법을 따르는 약자이며, 강자의 편에서는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나 약자에게는 해가 되도록 법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행위, 즉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 결국 정의와 불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의 논박에 부딪치자 처음의 주장을 두 번에 걸쳐서 수정 한다. ‘강자’를 ‘엄밀한 의미의 강자’로 수정 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현실 속의 강자’로 다시 바꾼다. 이 일련의 주장들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일단 논박되지만, 『국가』 II 권에

서 글라우콘에 의해 보다 세련된 형태로 재현되면서 『국가』 전체에 걸쳐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상대해야 할 반 테제의 역할을 한다.

“들어보십시오! 저로서는 정의로운 것(to *dikaion*)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338c)

“현데, 적어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각 정권은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서 합니다. 민주 정체(*demokratia*)는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 정체(*tyrannis*)는 참주 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정치 체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일단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를, 즉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나 불의를 저지른 자로서 처벌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이, 즉 수립된 정권의 이익이 정의로운 것이지요. 확실히 이 정권이 힘을 행사하기에, 바르게 추론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정의로운 것은 동일한 것, 즉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됩니다.”(338e~339a4)

1.1.3.1. 엄밀한 의미(*akribē logon*)의 강자

강자인 통치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는 반박을 피하기 위해 트라시마코스는 실수가 없는 이상적인 통치자 개념을 끌어들인다. 엄밀한 의미의 전문가(*demiourgos*)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의 지식(*epistēmē*)이 모자랄 때 실수를 하므로, 실수하는 한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통치자도 그가 통치자인 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통치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며, 다스림 받는 쪽은 이것을 이행해야만 된다고 주장한다.(340d ~ 341b)

"그러니까 엄밀한 뜻에 따라 말한다면, 더구나 선생께서도 엄밀한 표현을 하시려는 터이니 말씀입니다만, 그 어떤 전문가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의 지식이 달릴 때 실수를 하므로, 이 실수와 관련해서는 그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나 현자가 그렇듯, 그 어떤 통치자도 그가 통치자인 때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의사가 실수를 했다느니, 통치자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긴 하겠지만. 그러니 제가 앞서 선생께 했던 대답도 그런 뜻의 것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나 가장 엄밀한 표현은 조금 전의 것, 다시 말해서 이런 것 입니다. 통치자는, 그가 통치자인 한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으며, 실수를 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제정하게 되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서는 이를 이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 즉 ‘더 강한자의 편익’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주장합니다.”(340d ~ 341a)

1.1.3.2, 현실 속의 강자

첫 번째 수정 제안(‘엄밀한 의미의 강자’)이 논박 당하자 트라시마코스는 실수가 없는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 개념을 포기한다. 그 리면서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는 괴통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한다고 비판하는 소크라테스를 향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코흘리개 어린이 같다고 비꼰다. 현실에서의 통치자나 양치기가 양이나 소들을 보살피고 좋은 것을 해 주려고 신경 쓰는 목적은 결국 주인과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것.(343b) 여기서 트라시마코스는 ‘강자’를 ‘남보다 더 이득을 취할(pleonekein)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의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제정하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항상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343d ~ e)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정의의 주체는 법을 따르는 약자인 반면에, “부정의(不義)가 이익”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의의 주체는 강자이

다. 이때의 ‘부정의’는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뜻으로 ‘법을 따르지 않는 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강자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제정된 법을 마음대로 어기기도 하면서 이익을 도모한다. 반면에 남을 이길 힘이 없는 약자는 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불의를 비난하고 법을 따른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 이처럼 힘 있는 자가 언제나 이익을 보는 현실에서는 불의가 정의보다 이익이 되며 따라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트라시마코스가 강변하는 내용이다.

“그건 선생께서 양을 치는 이들이나 소를 치는 이들이 양이나 소한테 좋은 것을 생각하며 이것들을 살찌게 하고 돌보는 것이 주인한테 그리고 자신들한테 좋은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서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선생께선 나라들에 있어서 통치자들이, 즉 참된 뜻에 있어서 통치를 하는 이들이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이,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양들을 대할 때와는,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며, 따라서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과는 그래도 다른 어떤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께선 정의로운 것 (to dikaiosynē)과 정의(dikaiosynē),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to adikon)과 부정의(adikia)에 관해서도 이처럼 캄캄한 터여서, 이런 사실 조차도 모르고 계실 정도입니다. [...]”(343b)

1.1.3.2.1. 남에게 좋은 것

법을 따르는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는 강자인 ‘남에게 좋은 것’이요 남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 반면에 자신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힘의 논리가 정치 권력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철되는가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시킨다:

일상생활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나 덜 가진다.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에 그렇고, 세금 납부에서 그렇고, 공직을 수행할 때도 제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며, 친척들에게 부당한 도움을 주려하지 않다 보면 미움을 사는 일도 있다.(343c ~ d)

“정의와 정의로운 것이란 실은 ‘남에게 좋은 것’, 즉 더 강한 자와 통치자의 편익이되, 복종하며 섬기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 반면에, ‘정의롭지 못함’은 그 반대의 것이어서, 참으로 순진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저 강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343c)

1.1.3.2.2. 큰 부정의의 이로움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 내지는 ‘부정의의 이득’을 뒷받침하는 모범적 증거로서 절대 권력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연설을 끝낸다. 강자의 논리가 통하는 현실에서 힘은 클수록 유리하다. 힘 있는 자가 이익을 보고 행복을 누리는 단적인 예는 참주와 같은 절대 권력자에서 찾을 수 있다. 소소한 부정의를 행할 능력밖에 없는 자는 잘못하면 밭각되어 처벌받고 비난 받지만, 그런 처벌과 비난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자로 불린다. 약자들이 불의를 비난하는 것은 실은 불의 자체를 꺼려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344a ~ c)

“[...] 그러나 선생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쉽게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상태의 부정의에 생각이 미치실 경우일 것입

니다. 그건 부정의 한 짓을 한 자를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지만, 반면에 그걸 당한 자들이나 부정의 한 짓이라곤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가장 비참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344a)

1.1.4. 약자들의 협약

1권 말미에서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논박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논변(‘정의로운 삶을 위한 변론’ 참조)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정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로 정의가 훌륭함(aretē)이고 지혜(sophia)이며 그래서 불의보다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논변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 자체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혹은 훌륭함(aretē)의 일종으로 단순히 가정하는데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의 비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II권에서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가 포기한 주장을 보다 세련된 형태로 되살려 내어 소크라테스의 정의관과 대비킨다. 정의에 관한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은 여기서 부터다.

1.1.4.1 좋은 것의 세 가지 부류

글라우콘은 우선 좋은 것의 부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소크라테스의 정의관과 대중들의 정의관을 대비시킨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일 뿐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결과들 때문에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정의 자체를 수고롭고 까다로운 것이어서 기피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거기서 생기는 보수나 평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358a) 이 대중들의 정의관과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이익’은 정의를 혹평한다는 점에서 서

로 통한다. 또한 정의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들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래서 글라우콘은 정의를 그 자체로서 옹호하는 논변을 듣고자 하며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한다. 그러면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려 내기위해 정의의 기원이 어떠하며, 그래서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 왜 어려운지, 따라서 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길게 언급한다.

“[...] 선생님께서 보기에게 좋은 것(agathon)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자체 때문에 반기며 갖고자 하는 그런 것, 이를테면 기쁨이라든가, 또는 즐거움들 중에서도 해롭지 않은, 따라서 이를 지님으로써 나중에라도 기쁨 이외에 아무것도 이로 인하여 생기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좋은 것이 말씀입니다. [...] 또 다른 종류의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 자체 때문에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들 때문에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슬기로운 것이나 보는 것 또는 건강한 것 따위와 같은 것 말씀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좋은 것의 셋째 종류가 있어서, 이에는 신체 단련이나 환자의 치료받음, 그리고 의료행위나 기타 돈벌이가 속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하려하는 것도 그 것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보수라든가 그 밖에 그것들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입니다.”(357b ~ d)

1.1.4.2. 정의의 기원(= 법의 기원)

정의의 기원에 대한 글라우콘의 설명은 두 가지 생각을 담고 있다. a.본래 불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358e) b.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불의를 당해서 입는 나쁨이 불의를 저질러서 얻는

좋음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358e) 사람들은 서로 간에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데, 절대 강자가 아닌 한 한쪽은 피하되 다른 한쪽만을 취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서로 협약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 법이 지시하는 바를 정의로운 것이라고 일컫는다.(358e ~ 359a)

글라우콘의 ‘약자들의 협약’은 대중들의 정의관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며,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이익’과 같은 전제(a.) 위에 있다. a.는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며, b.는 법을 따르는 약자들의 입장에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때, 글라우콘의 ‘약자들의 협약’은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이익’과 더불어 하나의 이론이 되는 셈이다. ‘강자의 이익’은 법을 따르는 약자들을 전제로 하며 힘의 논리에 의지하고 있다. 정의는 약자들 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부정의는 약자들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트라시마코스의 부정의는 힘으로 정의를 누르고 부활한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본디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좋은 것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걸 당함으로써 입는 나쁨이 그걸 저지름으로써 얻는 좋음보다 월등하게 커서, 결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르지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며, 그 양쪽 다를 겪어 보게 되었을 때, 한쪽은 피하되 다른 한쪽을 취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로서는 서로 간에 불의를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연유가 되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법률(nomoi)과 약정(계약 : synthekē)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nomos)에 의한 지시를 합법적이며 정의롭다(dikaion)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로 정의의 기원(gensis)이며 본질(ousia)이란 거죠. 그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죄선의 경우와 그걸 당하고도

그 보복을 할 수 없는 죄악의 경우, 이 두 경우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 는 겁니다.[…]”(359a)

1.1.4.3. 결과로서 좋은 것

글라우콘의 ‘약자들의 협약’으로서의 정의는 좋은 것의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불의를 행해서 얻는 이익보다 불의를 당해서 잃는 손실이 한층 더 크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다.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정의 자체를 좋은 것으로 여겨서가 아니다. 불의를 저지르고도 법의 처벌이나 상대방의 보복을 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정의를 행한다.(359b) 그나마 정의롭다는 평판과 그로 인한 명성이나 보수가 정의를 행하게 하는 미약한 동기라면 동기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 남을 능 가할 능력이 있다면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통한 이익을 얻는 쪽으로 기운다. ‘강자의 이익’이 추구하는 ‘불의의 이익’은 그 만큼 적극적이고 쉬운 것이다. 따라서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득의 측면에서 견준다면 정의는 결코 불의를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정의로운 삶보다 부정의한 삶을 낫게 여기고 찬양하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불의를 상대하려면 그 자체로서 좋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도 그 자체로서의 좋음이 결과로서의 모든 이득을 능가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정의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런 사정을 정의와 부정의를 극단화 시켜 보여주는 글라우콘과 그것을 보충하는 아데아만토스의 논변 실력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정의로운 것이 이들 양쪽 것 사이에 있는 것이면서도 만족스런 것으로 대접받는 것은 결코 좋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에 존중되는 것으로서 일뿐입니다. 능히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자는 그리고 진짜 사내는 불의를 저지르지도 당하지도 않도록 하자는 약정을 결코 누구와도 하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359b)

1.1.4.3.1. 인간의 탐욕(pleonexia)

왜 사람들은 불의를 당해서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능력만 있으면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는가? 그것은 제 몫 이상을 차지하려는 마음, 즉 탐욕(pleonexia) 때문이다. 뒤집어서,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제몫의 이익(정의)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이익(부정의)으로 기운다. 여기서 탐욕을 추진시키는 것은 남을 능가하는 능력, 즉 힘이다. 목동이었던 기계스가 우연히 얻게 된 반지의 무소불위한 힘을 빌려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정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도 불의를 저지르는 방향으로 이끌릴 것인즉, 이로부터 우리는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못 되며,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아무도 정의롭고자 하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359c ~ 360d)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걸 그들이 실천하는 것은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무능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머리 속으로 다음과 같은 상정을 해 보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즉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도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다음에, 각자의 욕망이 각자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그들을 따라가며,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도 그 탐욕(제 몫 이상을 차지하려는 마음 : pleonexia)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현행 중에 포착하게 될 겁니다. 이는 모든 천성이 좋은 것으로서 본디 쫓게 마련인 방향이지만, 법에

의해서 강제로 평등에 대한 존중 쪽으로 천성이 유도됩니다.”(359c)

1.2. 전통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

1.2.1. 말과 행위 규범으로서의 정의(正義)

케팔로스의 정의에 대한 비판이다. 정직과 채무의 이행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시되는 규범이다. 이런 종류의 규범이나 원칙은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반례는 단순하지만, 정의(定義)가 갖추어야 할 예외 없는 엄밀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말이나 행위의 규범이 정의로운 것이 되려면 그것이 적용되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체로서 좋은 것일 뿐 아니라 결과로서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용 대상의 상태와 형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점은 기술로서의 정의 개념에서 보완된다. 기술 개념은 적용 대상의 상태가 어떠하며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 가령 어떤 사람이 멀쩡했을 때의 친구한테서 무기를 받았다가 후에 그 친구가 미친 상태로 와서 그것을 돌려주기를 요구한다면, 그런 걸 돌려주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런 걸 되돌려 주는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죄다 말해 주려고 드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고 누구나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 그렇다면 진실을 말함과 받은 것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정의에 대한 의미 규정(horos)은 못됩니다.”(331c ~ d)

1.2.2. 기술(*technē*)로서의 정의(正義)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의술이나 항해술 같은 전문적인 기술(技术)로 간주하는 곳은 폴레마르코스의 주장('합당한 갚음')을 논박하는 대목에서이다.(이후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논박할 때에도 여러 차례 이 기술 개념이 사용된다.) 케팔로스의 '정직함과 빛진 것을 갚음'이 일상적인 말과 행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폴레마르코스의 '합당한 갚음'에서 '합당한'을 플라톤은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행위의 차원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어 *technē*는 라틴어 *ars(art)*에 해당하는 말로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학술이나 기술 또는 논쟁술이나 변증술 등에서처럼 '-術'에 해당하는 뜻을 비롯해서 전문적인 지식, 재간, 솜씨, 방책 등의 뜻도 가지고 있다.] 이 기술로서의 정의 개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한계점도 지닌다.

1.2.2.1. 기술의 부정적 측면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보여주는 바는 이런 것이다. 정의를 여러 기술들 중의 하나로 놓게 될 경우 정의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기술 자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를 줄 수도 있고 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도 정의의 기술은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는 의술이나 항해술 같은 기술들 가운데 한가지 일 수는 없다. 나아가서 의술이나 항해술 같은 기술은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정의(正義)가 아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해서 적용하게 하는 요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설사 정의(正義)가 기술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원의 기술이다.

1.2.2.1.1. 기술의 제한성

폴레마르코스의 주장('합당한 갚음')에 따르면 정의는 '누구에게 합당한 무엇인가를 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맞는 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의술(醫術)은 질병 및 건강과 관련해서, 항해술은 바다의 위험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적들에게 잘 해주고 잘 못해주는 기술이라 할 때, 정의는 전쟁 시에 항전을 위한 연합작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평화 시에 정의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 정의는 계약(symbolaia)에 소용된다고 폴레마르코스가 대답하자, 소크라테스는 계약의 의미를 '거래'(koinōnēmata) 관계로 한정하고, 더 좁혀서 '금전 상의 거래' 관계로 한정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재화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된 관계로 좁힌다. '계약'이나 '금전 상의 거래'는 정의(正義)를 규정하기에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을 기탁 받아서 보관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떤 것이 유용(有用)할 때는 무용(無用)하고 무용할 때에 유용하게 되는 셈이어서 정의는 그다지 요긴한 것이 못된다.(332c ~ 333e)

"그렇다면 금·은을 함께 이용해야 할 경우에, 정의로운 이는 무슨 일에 남들보다도 더 쓸모 있는가요?" "그걸 맡겨 놓되 안전하게 해야만 할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러면 그건 그것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두어두어야만 할 때가 아닌가요? [...] 그렇다면 돈이 소용없는 그런 때에 정의가 소용되는가요? [...] 또한 [포도나무 전정용] 낫을 보관해 두어야만 할 때에도 정의가 공동 관계에 있어서나 개인적으로나 소용될 테고요. 반면에 그것을 막상 사용해야 할 때에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기술이 소용되겠죠? [...]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과 관련해서도 정의는 그 각각의 것의 사용 시에는 쓸모가 없다가도, 쓰지 않을 때에는 쓸모가 있게 되겠군요? [...] 그리고 보면

정의란 그다지 요긴한 것이 못 되겠소. 만약에 필요 없게 된 것들과 관련해서만 그것이 소용되는 것이라면 말씀이오.”(333c ~ e)

1.2.2.1.2. 기술의 양면성

“[...] 싸움에 있어서, 이를테면, 권투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싸움에 있어서건 간에, 치는 데에 가장 능한 사람은 방어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소? [...] 그렇다면 질병도 막는 데 있어서 능한 이면, 이 사람은 몰래 병을 생기게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능하겠죠? [...] 그러니 군대의 훌륭한 수호자가 바로 적의 계략과 그 밖의 작전들을 몰래 탐지해 내는 데 있어서도 또한 훌륭한 사람이겠죠? [...] 따라서 누구든 무엇에 있어서 유능한 수호자는 그것에 있어서 유능한 도둑이기도 하오.”(333e ~ 334a)

1.2.2.1.3. 기술의 중립성

폴레마르코스의 ‘합당한 보상’이란 친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갚는 것이다. 이 ‘합당한 보상’으로서의 정의가 충족되려면 친구와 적의 구별이 전제되어야 한다. 친구와 적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적을 이롭게 하고 친구를 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당한 보상’으로서의 정의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 논증은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로서의 정의 개념을 사용한 논증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의술은 환자와 건강한 자를 구별해 주기는 하지만 친구와 적을 구별해 주지는 않는다. 다른 기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기술은 적에게도 친구에게도 해와득을 모두 끼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인 것이다. 플라톤이 여기서 친구와 적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대치시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플라톤에 따르면 좋고 나쁨에 대한 참된 인식은 보통의 지식이 아니다.[‘최상의 배움’ 참조]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여, 실제로는 선량하지 않은 많은 이가, 그들이 생각하기엔 선량한 이로 보이는 반면, 실제로 선량한 많은 이가 그와 반대로 보이는 게 아닌가요? [...] 그러니까 그들에겐 좋은 사람들이 적들로 되나, 나쁜 사람들은 친구들로 되겠군요?”(334c)

1.2.2.2. 기술의 긍정적 측면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기술(technē)’과 ‘지식(epistēmē)’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기술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제외하면 기술의 완전함은 이상국가에서 철인 통치자가 이데아에 대해서 갖는 인식에 견줄 수 있다. 기술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관리를 받는 대상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기술의 하나인 통치술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진해서 통치를 맡으려들지 않는다는 부연 설명은 이상국가의 철인 통치자의 처지에 그대로 적용된다.

1.2.2.2.1. 기술의 완결성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가 실수 없는 이상적인 통치자 개념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과 지식 개념의 유추를 그대로 사용해서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는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받는 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처음에 트라시마코스는 기술(technē)인 한에서의 기술(=기술자인 한에서의 기술자)이 자신의 기능의 완벽함 외에는 다른 이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예를 들어 보충 설명을 한다. a. 몸 자체만으로는 몸으로 존재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몸의 결함을 고쳐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 의술이 발명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의술은 몸에 이득이 되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b. 엄밀한 의미의 기술은 자신

의 기능의 완벽함 외에는 다른 이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눈이 시력을, 귀가 청력을 결핍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이득을 제공해 줄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듯이, 기술 자체에도 결함이 있어서 이를 위한 이득을 제공해 줄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 기술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되는 식으로 끝없이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기술이 자신의 이득을 스스로 생각해서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341d ~ 342b)

“[…] 실은 그 어떤 기술에도 결함이나 과오란 아무것도 없어서, 기술로서는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 이외의 다른 것에 편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각각의 기술이 엄밀한 의미의 것이고 온전한 것인 한,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기에, 그 자체는 아무런 훼손도 없는 순수한 것인가요? […]” “그런 것 같습니다.”(342b)

1.2.2.2. 약자의 이익

c. 기술들은 그것이 관여하는 대상을 어쨌든 관리하고 지배한다. d. 따라서 어떤 전문 지식(epistēmē)도 더 강한 자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관리를 받는 더 약한 자의 이익을 생각한다. e.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지시하지 않고 피통치자의 이익이 되는 것을 지시한다. 이런 결론은 엄밀한 의미의 기술로서의 정의가 남에게 좋은 것(allotrian agathon)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같지만, 약자가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반대이다.(342c ~ 343a)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선생, 그 밖의 다른 어떤 통솔(다스림 : arche)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통솔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 주

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또한 그가 말하는 것도,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 쪽을 염두에 두고서 그 쪽에 편익이 되고 적절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행하오.”(342e)

1.2.2.2.3. 돈벌이 기술과의 구별

트라시마코스의 두 번째 수정안(‘현실 속의 강자’)에 대한 비판이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목적이 결국은 주인 내지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자. 이 때 ‘자신의 이득’이란 손님 접대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435c)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a.기술은 기술로서 미흡한 점이 전혀 없는 한, 기술의 관심사는 돌보는 대상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b.각각의 기술이 제공하는 이득은 제각기 다르다. 의술은 건강을, 조타술은 항해의 안전을 제공해 준다. c.보수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면 그것이 제공하는 이득(‘보수’)은 여타의 기술들이 제공하는 이득들과는 다른 것이다. d.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항해로 인하여 건강해졌다고 해서 조타술을 의술로 부를 수는 없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가 노동으로 인하여 건강해 졌다고 해서 보수 획득술(돈벌이 기술)을 의술이라 부를 수도 없다. e.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이득, 즉 보수를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전문 기술로 인해서가 아니라 보수 획득술을 덧붙여 이용한 결과이다. f.이처럼 통치술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진해서 통치를 맡으려들지 않고, 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다.(345e ~ 347a)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적인 기술로 해서 각자에게 이 이득, 즉 보수

의 획득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오. 그렇다기 보다도, 엄밀히 생각건대, 의술은 건강을 생기게 하나, 보수의 획득술이 보수를 생기게 하오. 그리고 건축술은 집을 만드는 반면에, 이에 부수되는 보수 획득술이 보수를 생기게 하오. 또한 다른 모든 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마다 제 기능(일 : ergon)을 하며, 그 각각이 맡도록 되어 있는 그 대상을 이롭도록 하오. 하나, 만일에 그 기술에 보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그 전문가가 그 술로 해서 이득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있겠소?”(346d)

1.2.3. 훌륭함(arete)으로서의 정의(正義)

플레마르코스의 ‘참된 의미의 보상’, 즉 곁보기만의 친구가 아닌 진짜 친구에게는 잘 해주고, 진짜 적에게는 해를 끼치는 것이 정의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a. 말이나 개가 해(害)를 당하면, 각각이 훌륭함(arete)에서 더 나빠지듯이, 사람도 해를 당하면 훌륭함에서 더 나빠진다. b. 정의(正義)는 사람의 훌륭함이다. c. 따라서 해를 당하는 사람은 더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d. 그래서 정의는 정의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만들어 내는 꼴이 된다. e. 차갑게 하는 것은 열(熱)의 기능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의 기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의 기능이다. f. 정의로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다. g. 그러므로 해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의 기능이 아니라, 그 반대인 부정의한 사람의 기능이다.(335a ~ 335e)

이 논증의 핵심 개념은 ‘아레테’이다. 아레테는 『국가』에서 수 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인데, 흔히 ‘덕’(virtue, venu, Tugend)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의 ‘훌륭한 상태’, 즉 ‘좋은(agathos=good) 상태가 있게 마련인데, 이는 대개 그 종류 나름의 ‘기능’(ergon) 또는 ‘구실’과 관련되어 있다. 칼의 아레테는 잘 자르는 것이고, 눈의 아레테는 잘 보는 것이며, 제화공의 아레테는 구두를 잘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나름의 특이성을 뛰어나게 잘 발현하는 상태를 (good -ness, excellence) 아레테라 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사용하는 아레테 개념은 이와 같은 탁월한 기능으로서의 아레테는 아니다. 왜냐하면 칼은 자신의 탁월한 기능에 의해서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4. 정의와 부정의의 비교

1.2.4.1. 정의로운 삶을 위한 변론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부정의는 언제나 이득을 보고 정의는 손해를 본다고 강변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만 정의는 불행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토로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단순한 토론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352d)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논의는 부정의에 맞서서 정의를 변호하는 데로 나가게 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데서는 벗어난다.

“[...]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내게 생각되는 것은 트라시마코스 선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즉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삶이 정의로운 사람의 삶보다 더 낫다고 하는 주장일세. 그러면 글라우콘 자넨 어느 쪽을 택하겠나?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진실되게 하는 말로 자네에겐 생각되는가? [...] 자넨 방금 트라시마코스 선생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삶에 수반되는 하고 많은 좋은 것으로 열거하였던 걸 들었겠지?”(347e ~ 348a)

1.2.4.1.1. 지혜(sophia)의 측면

트라시마코스가 부정의를 훌륭한 것이고 지혜(sophia)라고 주

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a. 정의로운 자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능가(pleonexia)하려 하지 않지만,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능가하려 한다. b. 부정의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능가하려 한다. c. 기술(시가, 의술)이나 지식을 지닌 자(epistēmōn)는 그 점에서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훌륭하다. d.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같은 분야의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자 하지 않지만(예를 들어 악기를 조율한다고 할 때, 각 줄의 적절한 음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알고 있는 음악가는 이것을 아는 다른 음악가를 능가하려하지 않는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능가하려 한다. e.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과 같은 이에 대해서는 능가하고자 하지 않으나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능가하고자 한다. 무지한 자는 이와 반대다. f. 따라서 a.과 e.로부터,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고 훌륭하되, 부정의한 사람은 못되고 무지하다.(348c ~ 350c)

“이젠 온갖 지식 및 무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오. 혹시 선생이 생각하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전문가가 행하거나 말하는 바를 능가하는 선택을 하고자 할 것 같은지, 그래서 동일한 일처리를 두고서 자신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선택을 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지를 말이오. [...]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자는 어떻겠소? 이 사람은 전문가에 대해서만, 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똑같이 이들을 능가하려 하지 않겠소?”(350a)

1.2.4.1.2. 힘(dynamis)의 측면

트라시마코스가 개인의 관점에서 상대를 예속시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부정의한 자로서의 강자를 언급했던 것을 소크라테스

는 국가와 집단에 적용시킨다. 나아가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 그것도 완벽하게 부정의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켜 속국화하며, 그래서 완벽하게 부정의 한 나라가 최선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정의 없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도대체 더 강해 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351a ~ b) 소크라테스의 논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집단 내의 구성원들 서로 간에 부정의 한 짓을 저지른다면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의의 기능(ergon) 내지 힘(dynamis)은 그것이 짓들인 곳에 증오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의는 합심(homonoia)과 우애(philia)를 가져다준다. 부정의가 집단(나라, 군대, 강도나 도둑의 무리 등) 안에 짓들게 되면 집단 내부에 분쟁(stasis)을 일으켜서 무슨 일을 해 낼 수가 없게 만들고, 집단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대립하는 모든 집단, 즉 정의로운 집단에 대해서 적이 되게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 안에 짓들게 되면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정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적이 되게 한다. b. 따라서 전적으로 부정의한 자는 아무 일도 해 낼 수가 없다. c. 부정의한 사람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못된 짓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 낼 수 있었다면 그들 간에 모종의 어떤 정의가 짓들어 있었다고 봐야 하며, 그래서 이들은 어중간 하게 못된 자들이라고 해야 한다.(351b ~ 352d)

논변에서 핵심이 되는 주장은 “부정의는 대립과 증오를 생기게 하지만, 정의는 합심과 우애를 가져다 준다”이다. ‘분쟁’(351d, 352a)의 유래함은 『국가』 여러 곳에서 되풀이 언급된다.(547b, 465b) 공동체가 잘 다스려 지려면 ‘합심’과 ‘우애’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되풀이 된다.(432a, 442c, 547b ~ c) 뿐만 아니라 이 논

변은 플라톤이 『국가』 II권 이하에서 전개할 생각들을 많이 반영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의(正義)가 한 집단이나 개인의 내적인 통합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II권 369b ~ 370c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IV권 432b ~ 434c에서 국가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구체화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집단에서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 간의 유비이다. 이 유비는 개인의 정의를 고찰하는데 결정적인 길잡이가 된다.(441c ~ 442d, 434d ~ 436b, 368c ~ 369b) 최선의 나라는 부정의한 나라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해서 플라톤은 완전하게 정의로운 나라가 최선의 나라이며(427e ~ 428a), 완전히 부정의한 나라는 최악의 나라임을(576b ~ 578b) 논증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 선생은 나라나 군대, 강도단이나 도둑의 무리, 또는 다른 어떤 집단이 뭔가를 공동으로 도모할 경우에,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끼리 서로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 일을 그들이 조금인들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 [...] 트라시마코스 선생, 어쩌면 그건 부정의가 서로간에 대립과 증오 및 다툼을 가져다 주나, 정의는 합심과 우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이오, 그렇지 않소?”(351c ~ d)

1.2.4.1.3. 행복(eudaimonia)의 측면

정의로운 사람의 삶과 부정의한 사람의 삶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의 문제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사람이 부정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논박을 일단락 짓는다.(352d) 논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어떤 것의 기능(ergon)이란 그것만이 해 낼 수 있는 일, 또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것이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일.(눈,

귀, 단검의 기능은 각각 ‘보는 것’, ‘듣는 것’, ‘자르는 것’이다) b. 일을 해내는 것들은 자기 특유의 훌륭함(arete)에 의해서 자신의 기능(일)을 잘 해 내고, 나쁜 상태(kakia)에 의해서는 나쁘게 해낸다. c. 혼(psychē)에는 혼만이 해 낼 수 있는 기능, 즉 보살피고, 다스리고, 심사숙고 하는 등속의 일들이 있다. 삶도 혼의 기능이다. d. 나쁜 상태의 혼은 자신의 기능을 잘못 행하지만, 훌륭한 상태의 혼은 훌륭하게 잘 해낸다. e. 정의는 혼의 훌륭한 상태(arete)지만, 불의는 혼의 나쁜 상태이다. f. 따라서 정의로운 혼과 정의로운 사람은 훌륭하게 살게 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된다. g. 따라서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다. h.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되,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하다. i. 불행하다는 것은 이득이 안 되는 것이지만, 행복하다는 것은 이득이 되는 것이다. j. 따라서 불의는 정의보다 더 이득이 되지 않는다.(352e ~ 354a)

이 논변의 핵심 명제는 “정의는 혼의 아레테다”이며, 이것으로 결론은 미리 예고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능’(ergon) 개념은 335b ~ 336a에서 먼저 나온다. 이 개념은 집단의 구성원들 각각은 자신에게 맞는 일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1인 1업의 원리’에서 두드러진다.(369e ~ 370c, 374e ~ 376c, 422e ~ 423d, 601b ~ 602c)

“[…] 혼(psychē)에는 선생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써도 해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능(일: ergon)이 있소?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은 것 말이오. 즉 보살피거나 다스리는(통솔하는) 것, 심사 숙고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유(類)의 모든 일을 우리가 혼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든 부여해 주고서는 이것들이 그것 특유의 기능이라고 말해서 옳을 그런 것이 있겠소? [...] 그러면 이번에는 ‘사는 것’의 경우는 어떻소? 이건 우리가 혼의 기능이라고 말하겠소? [...] 그러니까 혼의 어떤 훌륭

한 상태 또한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소? [...] 그러면 트라시마코스 선생, 도대체 혼이 그 고유의 훌륭한 상태를 앗기고서도 자신의 기능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게 되겠소? [...] 그렇다면 나쁜 상태의 혼으로서는 잘못 다스리고 보살피겠지만, 훌륭한 상태의 혼으로서는 이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내게 될 게 필연적이오.”(353d ~ e),

1.2.4.2. 부정의한 삶에 대한 찬양

1.2.4.2.1. 정의로운 삶과의 비교

글라우콘은 정의로운 삶과 부정의 한 삶에 대한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과 완벽하게 부정의한 사람을 상정해서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후자는 가장 큰 불의를 행하고서도 온갖 수완과 힘을 사용해서 남들로부터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자이고, 전자는 실제로 정의로운데도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라는 악평을 얻는 자로 가정한다. 요컨대 불의는 결과로서 얻는 이득의 관점에서, 정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의 관점에서, 양자를 철저히 극단화해서 비교할 때, 아무도 정의 쪽 삶이 불의 쪽 삶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글라우콘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360e ~ 362a) 글라우콘의 ‘완전하게 부정의 한 자’는 트라시마코스 ‘엄밀한 의미의 강자’와 통한다. 차이점은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실수 없이 법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제정하는 자라면, 글라우콘의 부정의한 자는 제정된 법 하에서 불의를 저지르더라도 이익을 얻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 받지 않으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피하거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정의롭다는 평판을 얻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삶과 관련된 판정 자

체는, 가장 정의로운 이와 가장 부정의한 이를 우리가 대비시켜 보게 될 경우에, 바르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부정의한 자의 부정의에서도, 그리고 정의로운 자의 정의(正義)에서도 조금도 감하지 말고, 이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각자를 완벽한 사람으로 상정하십시오. [...] 최상급의 부정의는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로운 듯이 보이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완벽하게 부정의한 자에게는 가장 완벽한 부정의를 인정해 주되, 그에게서 조금도 감하지 말 것이며, 그가 최대의 부정의한 짓을 저지르고도 정의에서 최고의 평판을 안겨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논의를 통해 이 사람 옆에 정의로운 사람을, 즉 단순하고 고귀한 사람으로서, 아이스킬로스의 표현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사람을 서게 하십시오.[...]"(360e ~ 361b)

1.2.4.2.1.1. 부정의 한 삶의 행복

아데이만토스의 긴 연설은 글라우콘의 연설을 보완한다. 글라우콘은 정의를 자체로서 좋은 것으로만 가정하고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득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극단적인 손해를 덧붙이기까지 해서) 부정의와 비교 했다면, 아데이만토스는 정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득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글라우콘의 것은 극단화된 이론적 차원의 비교라면, 아데이만토스의 것은 현실에서의 비교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글라우콘의 주장처럼, 마지못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의 자체가 좋아서는 아닐지라도 정의의 결과로서 얻는 이득(평판이나 명성)을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자식들에게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들의 교육자료 선생으로 통하는 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의의 결과로서 얻는 이득은 힘들고 수고로운 반면에 부정의는 달콤하고 얻기 쉬운데다가, 대개의 경우 정의로운 쪽보다 부정의한 쪽이 더 이득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현실도 그러하다. 게다가 능력(재물이나 권력)만 있으면 정의로운 사람보다 부

정의한 사람이 대접받고 칭송받는다. 현실의 여건들이 이럴진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다. 정의를 행하라는 부모들의 권고가 그들에게 먹혀들 리가 없다. 부모의 권고대로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고생하며 손해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정의롭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은 글라우콘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黛이만토스가 설파하는 연설의 요지이다.

“하지만 다음의 제 말씀도 마저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한 것들과는 반대되는 주장들을, 즉 정의는 찬양하되 부정의는 비난하는 주장을 마땅히 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보기에 글라우콘이 의도했던 바가 한결 더 분명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1.2.4.2.1.1. 대중들이 정의를 찬양하는 동기

“짐작컨대,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충고하는데, 그러는 그들은 정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생기는 명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로운 것으로 보이는 이에게 그 평판으로 인해 관직과 혼처가, 그리고 그 밖에도 방금 글라우콘이 열거한 그러한 모든 것이 실제로 정의롭다는 명성으로 해서 정의로운 이에게 생기게 될 것이라 해서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평판으로 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이들은 신들 쪽의 명성을 끌어들임으로써, 신들이 경건한 자들에게 내린다고들 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362e ~ 363a)

1.2.4.2.1.1.2. 부정의가 더 이득이 되는 여건들

시인들은 절제와 정의로움은 아름다운 것이되 힘들고 수고로운 것인 반면에, 무절제와 부정의는 달콤하고 얻기 쉬운 것이되 평판과 법(nomos)에서만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의로운 것보다는 부정의 한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말한다. 못 됐지만 부유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예우하고, 더 훌륭해도 힘없고 가난하면 업신여기고 얕본다. 신들조차도 훌륭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삶을, 그 반대인 사람들에게 그 반대의 삶을 안겨준다. 탁발승이나 예언가들은 자신이나 조상의 잘못을 연회를 통해서 보상할 수 있고, 또 정의로운 자에게 해를 끼치고 싶을 때에도 비용을 지불하면 자신들이 주술과 마법에 의해서 신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무사이오스와 오르페우스의 책도 그렇게 말한다. 제물과 즐거운 놀이를 통한 면죄와 정화의식이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젊은이들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들의 혼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는 정의롭다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고역과 손해만 있을 것이다, 내가 실제로 정의롭지 않더라도 정의롭다는 평판을 얻게 되면 내게 놀라운 인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364a~365c)

1.2.4.2.1.1.3. 부정의를 부추기는 변론들

나쁘면서도 언제까지나 남의 눈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때로는 설득과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여 욕심을 부리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신들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a.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b.존재 하더라도 인간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c.신들이 존재하고 인간사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신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출처는 관습이나 법률 또는 신들의 계보를 밝힌 시인들이며, 시인들은 제물과 공손한 서원, 그리고 공납물에 의해서 신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승에서 받게 되는 벌, 그리고 자손들이 받게 될 벌 역시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입교의식과 사면해주는 신들의 존재는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주장하는 바이고, 신들의 자손으로 알려진 시인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불의까지도 거짓된 우아함으로 감추어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들과 인간들이 보기에 제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어떤 근거로 불의보다 정의를 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가 최선의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불의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365c ~ 366d)

1.3 플라톤의 정의관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설명과 연설은 정의에 대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었다. 정의와 부정의가 글라우콘에 의해서 제대로 비교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전제 위에서 각각의 본질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부정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양쪽이 그렇게 규정되는 것은 힘의 논리, 즉 힘이 세고 약함에 따른 것이다. 힘의 논리에 따르는 한,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다. 이 배경에는 자신의 몫 이상의 이득을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이 놓여 있다. 사람은 탐욕 때문에 남을 이길 힘이 있으면 정의보다 부정의를 쫓는다. 정의보다는 부정의가 탐욕을 더 쉽게 채워주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맞서서 정의를 옹호해야 할 부담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졌다. 글라우콘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려 낸 것과 같은 식으로, 정의와 부정의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각각을 같은 전제 위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정의의 우월성을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1.3.1. 정의를 찾는 방법

소크라테스는 우선 정의를 개인의 정의와 국가(*polis*)의 정의로 구분하고, 국가의 정의부터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개인보다 크므로 정의의 규모도 더 크며, 그래서 알아내기가 쉽다는 것인데, 마치 똑 같은 글씨라면 작은 글씨를 먼 거리에서 읽는 것보다 더 큰 곳에 적힌 더 큰 글씨를 읽는 것이 쉬운 것과도 같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의를 알아보는 방법은 말(*logos*)에 의해서 나라를 수립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 정의와 부정의가 나라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의를 찾아 낸 다음 국가와 개인의 유사성에 의지해서 국가의 정의 개념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간다.(368d ~ 369a)

“[...] 정의는 한 사람의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것도 있다고 아마도 우리는 말할 것 같은데? [...] 그렇다면 나라는 한 개인보다 크겠네? [...] 그러니까 어쩌면 정의는 한 걸 큰 것에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있을 것이며, 또 알아내기도 더 쉬울 걸세. 자네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먼저 나라들에 있어서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세나. 그런 다음에 한걸 작은 형태의 것에 있어서 한걸 큰 것과의 유사성을 검토해 보면서, 역시 개개인에 있어서의 정의를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세나.”(368e ~ 369a)

1.3.2. 국가의 정의(正義)

“‘제 일을 하는 것’(*to ta hautou prattein*)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정의이다.”(433b)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 수립의 기초 원리인 ‘1인 1업의 원리’[‘1인 1업의 원리’ 참조], 즉 집단의 각 구성원은 저마다 태어난 본성에 맞는 자신만의 일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원

리가 국가 수립의 기초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의는 “절제와 용기 그리고 지혜(phronēsis), 이 세 가지를 모두 국가 안에 생기게 하는 힘을 주고, 일단 생기면 그것들의 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433b)이라 할 수 있다. 지혜, 용기, 절제는 통치자 부류, 수호자 부류, 생산자 부류(혹은 ‘돈벌이 하는 부류’)가 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aretē)이기도 하지만, 타고난 성향에 따라 구별된 세 부류가 각각 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갖추게 되는 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1인 1업의 원리’는 국가 정의의 기초 원리이기도 하다. 이 원리에 따라서 세 부류가 각각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oikeiopragia)이 정의이고, 이것이 나라를 정의롭게 한다. 반면에 세 부류들 사이의 참견이나 상호 교환이 국가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며, 이것을 악행(kakourgia)이라 불리 마땅하다. 이 악행이 부정의다.(434c)

“[...]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할 당초부터 언제나 준수해야만 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게, 또는 그것의 일종이 정의일세. 자네도 기억하겠네만, 분명히 우리가 주장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던 것은,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었네. [...] 이들 세 가지 모두가 이 나라 안에 생기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고, 일단 이것들이 이 나라 안에 생긴 다음에는, 그것이 이 나라 안에 있는 한은, 그것들의 보전을 가능케 해 주는 그런 것일세. 그렇지만, 다른 셋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그것들 말고 남는 것이 정의일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했네.”(433a ~ c)

1.3.3. 개인의 정의

국가의 세 부류가 저마다 ‘제 일을 함’에 의해서 나라가 정의롭게 되듯이, 개인도 자신 안의 세 부분들(이성적 부분, 기개적 부분, 욕구적 부분)이 각각 제 일을 함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결론은 세 부류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임이 밝혀진 후에 그것이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긴 논증의 결과로서 얻어진다.

1.3.3.1. 혼의 세 부분

소크라테스는 먼저 국가의 정의를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간단한 유비추론을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435a ~ c) 보다 더 사실에 바탕을 두고 혼의 내적 부분들을 구별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내의 이러저러한 성격들은 그런 성격을 갖는 개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은 그런 행위나 성격을 지배적으로 보여주는 개인들의 부류가 실제로 있다는 데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의 세 부류에 상응하는 개인의 행위, 즉 배우는 행위, 발끈하는 행위, 음식섭취나 생식 등 쾌락을 욕구하는 행위가 개인 속에 있는 동일한 부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 부분이 있어서 세 부분 각각이 맡아서 하는 행위가 다른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한 가지 원리를 가정하고 이것에 의지해서 혼의 세 부분을 구별하는 논증을 다소 길게 진행한다.(435c ~ 436b)

“그러나 이번의 이것은 알기가 어려우이. 우리가 다음의 각 행위를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부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다른 부분으로 다른 행위를 하는지는 말일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의 한 가지로는 배우고, 다른 한 가지로는 발끈하며,셋째 것으로는 음식과 생식 또는 이것들과 동류(同類)인 것들과 관련된 쾌락을 욕구하는지, 아니면 이런 각각의 행위를 우리가 일단 하기 시작하면, 그걸 혼 전체로 하는지는 말일세. 이를 제대로 결정짓기는 어려운 것일세”(436a ~ b)

1.3.3.1.1. 세 부분의 구별을 위한 논증

“동일한 것이 자신의 동일한 부분에 의해서 동일한 것에 대해 상반된 것들(tanantia)을 동시에 행하거나 겪는 일은 없다”(436b, 439b) 이 원리는 ‘1인 1업의 원리’에 상응한다. ‘1인 1업의 원리’가 국가의 세 부류의 구별을 뒷받침하는 원리라면, ‘상반된 행위 배제 원리’는 혼의 세 부분의 구별을 뒷받침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참이라고 믿어지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이 원리에 대해서 많은 시비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해명하는 것은 장황한 일이므로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고 나가자고 제안하면서,(436c ~ 437a) 두 가지 반례만을 예로 들어 원리의 적용을 설명한다.

“[...] 가만히 서 있되 두 손과 머리는 움직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두고, 누군가가 말하기를 동일한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고 그 사람의 일부는 정지하여 있지만 일부는 운동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안 그런가?”(436c)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또한 이런 정교한 주장을 펴며 한층 더 재치를 부리려 한다면, 즉 팽이가 그 끝을 같은 곳에 고정시키고서 돌 때, 팽이가 전체로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거나, 또는 그 밖에도 같은 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걸세. 그건 이런 것들이 그 경우에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은 그것들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자체에 곧은 축과 원둘레를 갖고 있어서 곧은 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므로, 가만히 서 있으나, 원둘레와 관련해서는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말 할 것이기 때문이지. 아울러, 이 곧은 축이 좌우의 방향으로나 전후 방향으로 기울면서 동시에 돌고 있을 경우에, 그땐 어떤 식으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고.”(436d~e)

1.3.3.1.1. 욕구의 존재

a. 목마름, 배고픔과 같은 욕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욕구의 작용과 상반되는 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물을 마시려 ‘욕구하는 것’은 혼이 물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으로, 반대로 물을 ‘욕구하지 않는 것’은 ‘내 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 각각의 욕구 자체는 자신의 자연적인 대상 그 자체에만 관여한다. 이를테면 목마름 자체는 마실 것 자체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욕구일 수 없다.(목마름 자체는 ‘뜨거운’ 음료나 ‘차가운’ 음료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음료 자체’에 대한 욕구이다.) c. 일반화해서 X가 Y와 어떤 관계를 갖는다면, 특정한 종류 y와 관계를 갖는 것은 X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 x이다. 반면에 Y자체와 관계를 갖는 것은 X자체다. 예를 들면, 지식(epistēmē) 자체는 배움 자체에 관계한다. 반면에 특정한 종류의 지식(e.g. 건축술)은 특정한 종류의 대상(e.g. 집)에 관계한다.(437b~439a)

“[...] 자네는, 욕구하는 자의 혼(마음)은 언제나 그 욕구하는 대상을 실상 갈구한다거나,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 어떤가? 의욕을 갖지 않음과 원하지 않음 또는 욕구하지 않음을 폐미는 것으로 그리고 혼(마음)에서 내쫓는 것으로 보아 앞엣것들과는 모두 반대되는 것들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겠는가? [...] 이것들이 이려할진대, 욕구(epithymia)라는 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가운데서도 제일 두드러진 것들은 우리가 목마름이라 그리고 굶주림이라 일컫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는가? [...] 그러면, 목마름의 경우에, 그것이 목마름인 한, 그것은 우리가 혼(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대상으로 갖는 것에 대한 욕구라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 이를테면, 목마름은 뜨거운 음료수나 찬 음료수에 대한 목마름인가, 또는 많은 음료수나 적은 음료수에 대한

목마름인가,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음료수에 대한 목마름인가? 아니면, 목마름에 열이 추가될 경우에, 그것은 찬 것에 대한 욕구를 추가적으로 갖게 하나, 냉기가 추가될 경우에는, 그것은 뜨거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추가적으로 갖게 하는가? 반면에 그 정도가 심해서 목마름이 심할 경우에는, 많은 분량에 대한 욕구를 갖게 할 것이나, 목마름이 약할 경우에는, 적은 양에 대한 욕구를 갖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 목마름 자체는 자연적으로 그 대상으로 갖는 것, 즉 마실 것 자체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욕구로 될 수는 결코 없으며, 다시 먹을 것에 대한 욕구인 짖주림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인가?”(437d ~ e)

1.3.3.1.1.2. 이성과 욕구의 구별

“그러면 목말라 하면서도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고 우리는 말할 것인가? [...]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의 혼 안에는 마시도록 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마시는 걸 막는 것이, 즉 그러도록 시키는 것과는 다르면서 이를 제압하는 게 있지 않은가?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정작 생기게 될 경우에, 이것은 헤아림(추론, logismos)으로 해서 생기지만, 반면에 그쪽으로 이끌고 당기는 것은 어떤 처지(감정, pathemata)나 병적인 상태로 인하여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것들로 보고서, 그것으로써 혼이 헤아리게 (추론하게) 되는 부분(면)을 혼의 헤아리는(추론적, 이성적: logistikon) 부분이라 부르는 반면, 그것으로써 혼이 사랑하고 배고파하며 목말라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 상태에 있게 되는 부분은, 어떤 만족이나 쾌락들과 한편인 것으로서, 비이성적(헤아릴 줄 모르는, alogistikon)이며 욕구적인(epithymetikon) 부분이라 부른다 해도, 결코 불합리하지는 않을 걸세.”(439c ~ d)

1.3.3.1.1.3. 기개와 욕구의 구별

우리는 자신 속의 욕구가 이성을 거스르도록 강요할 때, 자신을 꾸짖으면서 그런 강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욕구와 대항해서 싸우는 결정적인 부분(기개)이 우

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욕구가 이성을 거스를 때, 거슬러 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이성이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욕구와 협력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자들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유사하다.(439e ~ 440d)

“그러나 언젠가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난 이걸 믿고 있네. 아글라이온의 아들 레온티오스가 피레우스로부터 북쪽 성벽의 바깥쪽 아랫길을 따라 시내로 들어가다가 사형 집행자 옆에 시체들이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한편으로는 보고 싶어도 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언짢아하며 외면하려 했다더군. 그래서 얼마 동안 마음 속으로 싸우며,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네. 그렇지만 보고 싶은 욕구에 압도당하자, 두 눈을 부릅뜨고 시체들 쪽으로 내닫더니, ‘보려무나, 너희들 고약한 것들아! 그래, 저 좋은 구경거리를 실컷들 보려무나’라고 말하더란 이야기 말일세. [...] 이 이야기는 실상 분노가 욕구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때로는 욕구들에 대항해서 다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네.”(439e ~ 440a)

1.3.3.1.1.4. 기개와 이성의 구별

기개가 이성과 협력한다고 해서 양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양자의 구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글라우콘은 기개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드러나지만, 이성은 영영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갖추더라도 시기가 늦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는 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로 나무랐다”라는 호메로스의 말을 인용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나무란다는 것은 헤아릴 줄 아는 더 나은 부분과 격함을 드러내는 더 못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440e ~ 441c)

1.3.3.1.2. 세 부분의 역할

헤아리는 부분은 지혜롭고 혼 전체를 위한 선견지명(promē-theia)을 지니고 있어서 지배를 담당한다.(441e) 격정적인 부분은 혜아리는 부분(to logistikon)에 복종하며 협력자 역할을 한다.(441e) 이 두 부분은 혼 전체와 신체를 위해 외부의 적들도 막아 내려고 한다. 한쪽이 숙고해서 결정하고, 다른 쪽은 싸움을 하며 결정된 사항들을 용기 있게 완수한다.(442b) 욕구적 부분은 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재물에 대해서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 욕체적인 쾌락들로 가득하여 강대해지면 혜아림의 부분과 격정적 부분을 지배하려 들고 급기야는 삶 전체를 망치게 한다.(442a ~ b)

1.3.3.1.3. 세 부분의 덕(aretē)

헤아리는 부분의 덕은 지혜다. 지혜란 세 부분 각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442c, 443e) 격정적인 부분의 덕은 용기다. 용기란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쾌락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442c) 절제는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이다. 절제란 세 부분이 우의와 화합으로 하나가 될 때, 즉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 받는 두 부분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 반목하지 않는 것이다.(442d)

1.3.3.2. 혼의 세 부분과 국가의 세 부류의 일치

개인이 정의롭게 되는 방식과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방식은 같다. 국가의 정의는 구성원인 개인이 저마다 제일을 할 때 구현되며, 개인이 제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혼의 내적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면, 사실상 국가의 정의는 개인의 정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441c ~ d)

“그리고 보니 이것들을 우리가 가까스로 헤쳐 나왔으며, 나라 안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부류의 것들이 개개인의 혼 안에도 있고, 그 수도 똑같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네. [...] 그러니까 나라를 지혜롭게 한 방식 및 부류와 같은 방식 및 같은 부류(부분)에 의해서 개인도 지혜롭게 되는 것임은 아무튼 이미 필연적이지 않은가? [...] 또한 개인을 용기 있게 하는 부류와 방식, 바로 그 부류와 그 방식으로 나라 또한 용기 있는 나라로 되었으며, 훌륭함(훌륭한 상태, 덕:arete)과 관련되는 다른 모든 것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兩者)는 마찬가지겠지? [...] 그리고 글라우콘!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나라가 정의롭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결로 나는 생각하네. [...] 그런데 적어도 이 점은, 즉 실상이 나라가 정의로웠던 것이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제 일을 함’(to hautou prattein)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있을 게 확실하야.”(441c ~ d)

1.3.4. 정의에 대한 최종 결론

정의는 세 부분들 각각이 지배 및 피지배와 관련해서 저마다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2.1.1.2. 1인 1업의 원리' 참조]은 정의에 대한 모상에 불과하며 완전한 규정이 아니다.(443c) 개인의 정의는 일차적으로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하며, 혼의 부분들 간의 조화를 포함한다. 혼의 각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 상태(hexis)를 유지시키고 이루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이고, 이런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은 부정의 한 행위다.(443e) 불의(부정의)는 세 부분 간의 내분(stasis)이며, 참견과 간섭, 혼 전체에 대한 일 부분의 모반이다. 세 부분의 혼란과 방황이 부정의, 무절제, 비겁, 무지이다. 즉 일체의 나쁜 것들이다.

“사실 ‘정의’가 그런 어떤 것이긴 한 것 같으이. 하지만 그것은 외적 인 자기 일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일의 수행, 즉

참된 자기 자신 그리고 참된 자신의 일과 관련된 것일세.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남의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혼의 각 부류가 서로들 참견하는 일도 없도록 하는 반면, 참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인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며 통솔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화목함으로써, 이들 세 부분을, 마치 영락없는 음계의 세 음정 즉 최고음과 최저음 그리고 중간음처럼,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네. 또한 혹시 이를 사이의 것들로서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라도 되면, 이들마저도 모두 함께 결합시켜서는, 여럿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인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으로 되네.”(443d ~ e)

1.3.4.1. 정의와 건강의 유비

정의로운 것들은 신체에서와 혼에서 건강한 것들이고, 부정의 한 것들은 병든 것들이다. 건강한 것들은 건강을 생기게 하고 병든 것들은 질병을 생기게 하듯이, 정의로운 것들은 정의를 생기게 하고 부정의 한 것들은 부정의를 생기게 한다. 건강을 생기게 한다는 것은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를 본성에 따라 확립한다는 것이고, 질병을 생기게 한다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게 확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의를 생기게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훌륭함(arete)은 혼의 건강함이고 아름다움이고 좋은 상태(euexia)다. 나쁨(kakia)은 혼의 질병이고 추함이고 허약함이다. 훌륭한 생활습관(epitēdeumata)은 훌륭함(덕)의 획득으로 이끌어가고, 부끄러운 생활습관은 나쁨으로 이끌어 간다.(444c ~ e)

“그러나 건강을 생기게 함은 곧 신체에 있어서의 여러 부분이 서로 지배하며 지배받는 관계를 ‘성향에 따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kata physin*) 확립함이요 반면에 질병을 생기게 함은 곧 서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는 관계를 ‘성향에 어긋나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게: *para physin*) 확립함일세. [...] 정의를 생기게 함은 곧 혼에 있어서 여러 부

분이 서로 지배하며 지배받는 관계를 성향에 따라 확립함이요 반면에 부정의를 생기게 함은 곧 서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는 관계를 성향에 어긋나게 확립함이 아니겠는가? [...] 그리고 보면 ‘훌륭함’(훌륭한 상태: *aretē*)은 일종의 혼의(정신적) 건강이요 아름다움(*kalos*)이며 좋은 상태(*euexia*)인 반면, ‘나쁨’(나쁜 상태, *kakia*)은 일종의 혼의 질병이요 추함이며 허약함(*asmeneia*)인 것 같으이.”(444d ~ e)

2. 국가(*polis*)

2.1. 국가의 수립

국가를 이론상으로 수립해 보기로 한 직접적인 동기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국가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정의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정의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이 생각이다.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정치제도의 존립 근거가 되는 법을 제정하는 일로서 플라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법제도이다.

2.1.1. 최소국가

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chreia*)이다. 사람들 각자는 자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자로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형성된 공동생활체(*synoikia*)에 ‘국가’(*polis*)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것이다.(369b ~ c) 국가 수립의 첫 단계로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만을 위한 최소한의 나라, 즉 농부(음식물), 집짓는 자(주거), 베 짜는 자(의복), 신발 만드는 자 혹은 신체에 관한 것을 보살피는 자, 이

령게 넷 혹은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는 나라를 수립한다.(369d)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필요 중에서도 첫째이며 가장 중대한 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물의 마련일세 [...] 그리고 둘째 것은 주거의 마련일 것이며, 셋째 것의 의복 및 그와 같은 유의 것들의 마련일세. [...] 자, 그러면 나라는 이처럼 많은 여러 가지 것의 마련을 위해, 이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농부가 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직물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할밖에? 혹시 우리는 여기에다 제화공이나 아니면 신체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사람을 보탤 것인가? [...]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나라’(최소필요국: *hē anankaiotatē polis*)는 넷 또는 다섯 사람으로 이루어지겠네.”(369d ~ e)

2.1.2. 건강한 국가

‘1인 1업의 원리’에 따르면 나라의 구성원들은 최소국가의 그 것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농부가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어야하고, 베를 짜고 신발을 만드는 재료(가죽, 양털)를 얻으려면 소치는 자와 양치는 자도 있어야 한다. 또 생산물의 분배와 교환을 중재하는 상인도 있어야 하고, 외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상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구성원들이 필요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참된 나라’(*alēthinē polis*) 내지 ‘건강한 나라’(*hygiēs polis*)로 일컫는다.(369e ~ 372e)

2.1.2.1. 1인 1업의 원리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370b) a. 사람은 제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게 된다. b.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 가지 기술

에 종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c. 어떤 일들은 해야 할 적절한 시기(kairos)가 있어서 그것을 놓치면 그르치게 된다.(이를테면, 열매나 곡식은 수확 시기에 맞추어 거두어들여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원리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 일을 나머지 구성원들 전체를 위해 행할 때 국가는 가장 잘 운영된다고 말하고, 국가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 요할 때마다 이 원리를 되풀이해서 언급한다.(374b, 394e, 397e, 423d) 그는 이 원리를 국가의 정의(正義), 그리고 국가와 유비 관계로 이해되는 개인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기초로 삼는다. 그런 만큼 『국가』의 이해는 이 원리의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수립과 관련해서 이 원리를 언급하는 동기는 국가의 확장이 외부에서 인위적인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사건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데 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글라우콘의 견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글라우콘에 따르면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협약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향에 따라(kata physin) 적기에 하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에 있어서 이네”(370c)

2.1.3. 돼지들의 국가

필요 불가결한 것들 이상의 것들을 갖추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나라를 부풀어 오른 ‘염증 상태의 나라’(plegmainousa polis) 내지 ‘돼지들의 나라’(hyōn polis)이다. 소크라테스가 사치스런 국가를 덧붙여 수립하는 이유는 정의와 부정의가 어떻게 해

서 나라에서 자라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372e ~ 373c) 국가에서 정의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부정의로 나아가는 경향들과 대비될 때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나아가서 국가의 정의는 개인의 정의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이 돼지국가는 혼의 세부분들 가운데 욕구적인 부분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혼의 욕구적 부분은, 만약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이 돼지국가의 사치스러움을 추구할 것이다. 플라톤에게는 혼의 욕구적 부분을 통제하는 문제가 국가에서 시민들의 욕구적인 측면들을 통제하는 문제와 상응한다.

“[...] 그러니까 ‘참된 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방금 우리가 서술한 그런 나라 말하자면 ‘건강한 나라’인 것 같으이. 그러나 자네들이 원한다면 ‘염증 상태의 나라’도 생각해 보기로 하세나. [...] 실상 어떤 사람들에게겐 이것들로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일세. 침상과 식탁, 그리고 그 밖의 가구들이, 그리고 또 요리와 향유 및 향료, 기녀와 생과자, 그리고 이를 각각 온갖 종류가 다 추가될 걸세. 그리고 더욱이 이젠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들, 즉 집과 옷 그리고 신발 따위만을 필수적인 것들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회화와 자수도 동원되어야 하며, 황금과 상아 그리고 이와 같은 온갖 것을 갖추어야만 될 걸세 안 그런가?”(372e ~ 373a)

2.1.4. 이상 국가

부풀어 오른 돼지들의 나라를 법과 제도로 정화한 것(399e)이 최선의 국가, 즉 완벽하게 좋은 이상 국가이다. 이 나라는 ‘1인 1업의 원리’에 충실한, 그래서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kata phisin oikistheisa)(428e)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부류와 다스림을 받는 부류 그리고 나라를 수호하는 부류가 제각기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나라이이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나 어

느 한 집단이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다.

2.1.4.1. 이상 국가의 주요 부류

이상 국가는 크게 생산자(혹은 ‘돈벌이 하는 부류’(434b)), 수호자, 통치자 세 부류로 구성된다. 통치자 부류는 수호자 부류에서 선발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수호자 부류가 ‘보조자들’(epikouroi) 내지는 ‘협력자들’(boēthoi)로 불리는 것은 통치자 부류와 구별할 때이다.(412a ~ 414b) 플라톤이 보기에 이상 국가에서 통치자를 포함한 수호자 부류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의 역할, 기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서술이 국가 수립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산자 부류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2.1.4.1.1. 수호자 부류

재화에 대한 욕구가 필요불가결한 것들의 한도를 벗어나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의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영토도 넓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웃 나라의 땅의 일부를 차지해야 한다. 이웃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면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전쟁의 기원] 전쟁에서 나라와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필요하다. ‘1인 1업의 원리’에 따르자면 전쟁술만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전쟁에 관한 일이야말로 잘 수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수호자들(phylakes)이 그 일을 담당하는 부류인 만큼, 최대의 기술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373d ~ 374e)

2.1.4.1.1.1. 수호자의 자격

수호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수호 임무에

알맞은 성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수호 활동은 지킨다는 점에서 개의 활동과 유사하므로 수호자의 성향을 개의 성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육체적 조건으로는 감각이 예민해야 하고, 감지한 것을 추적하는데 날렵해야 하고, 싸울 때 힘이 세야 한다.(375a) 정신적 조건으로는 a. 용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정(thymos)을 지녀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적들에 대해서는 거칠되 자기편에게는 온순해야 한다. 온순한 기질과 대담한 기질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지만, 혈통 좋은 개에서 그런 기질을 실제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기질은 자연에 맞는 것이다. b.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philosophos). 영리한 개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 사납게 굴지만, 아는 사람을 보면 반긴다.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의 식별은 암과 모름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므로 배움을 좋아한다는 증거다. 배움을 좋아하는 것(philomathes)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375a ~ 376c)

“그런데 말이든 개이든 또는 그 밖의 어떤 동물이든 맹렬하지(격정적이지, thymoeides) 못한 것이 용맹스러워지겠는가? 혹시 자네는 격정(기개, thymos)이란 것이 얼마나 당해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또 그것이 일게 되었을 때의 마음이 한결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겁이 없고 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375b) “[...] 장차 수호자로 될 사람에겐 이런 점이 또한 요구될 것 같은가? 즉 격정적인 것에 더하여 기질상으로 지혜를 사랑하게 되어야만 할 것 같은가? [...] 개가 친한 사람의 모습과 적의 모습을 식별함에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자기가 알아보는가 또는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세. 그리고 그게 실로 암과 모름에 의해서 친근한 것과 낯선 것을 구별할진대, 어찌 배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친근한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순하려면, 그는 천성으로 지혜를 사랑하며 배움을 좋아하는 이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감히 주장해 볼까?”(375e ~ 376c)

2.1.4.1.1.2. 수호자의 생활

2.1.4.1.1.2.1. 단체생활

수호자들의 거처는 법을 어기는 내국인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고,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 거점에 마련해야 한다. 집은 군인들에게 적합한 숙영 막사여야 하고,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 식사를 하며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415e)

“[...] 이들이 나아가면서, 이 나라에서 주둔하기에 가장 좋은 곳을 이들로 하여금 살피도록 하세나. 즉 혹시 누군가가 국법에 복종하지 않으려 할 때는, 내국인들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거점이면서도, 또 한 어떤 적이 마치 이리가 양떼에 대해 하듯, 습격해 올 경우에는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 거점을 말일세. 그래서 일단 주둔을 하게 되면, 마땅히 그래야 할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고서, 이들 스스로 숙영막사들을 짓도록 하세나. [...]”(415e)

“[...] 이들은 공동 식사(syssitia)를 하면서, 마치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하네.[...].”(416e, 458c)

2.1.4.1.1.2.2. 사유 재산 금지

수호자들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제할 줄 아는 용감한 전사들에게 필요한 정도만큼의 생활필수품을 시민들로부터 보수로 지급받되 연간 소요량을 초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여야 한다. 사적인 여행도 할 수 없고, 애인에게 선물도 줄 수 없으며, 대중들이 지니는 금·은·불이나 화폐를 소유하거나 취급해서도 안 된다.(416a ~ 417b)

“[...] 이들은 자신의 혼 안에 신들이 준 신성한 금·은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서, 이에 더하여 속인의 금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신에게서 받은 그 소유물을 사멸하는 인간의 소유물과 섞음으로써 더

럽히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짓인데, 이는 다중(hoi polloi)의 화폐와 관련해서는 하고많은 불경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의 것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 중에서도 오직 이들에게 있어서만이 금은을 다루거나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금은과는 같은 지붕 밑에서 기거해서도 아니 되며, 이를 [몸에] 걸쳐서도 아니 되고 그리고 또 황금이나 은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셔서도 아니 되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며 나라도 구원할 결세. [...]”(416e ~ 417a)

사유 재산을 금하는 이유는,

a. 수호자가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협력자가 아니라 해코지 하는 주인 노릇을 하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능력과 지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16a ~ 417b) b. 재물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열등하게 만든다. 부유해진 도공은 자신의 기술에 마음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등한 도공이 된다. 또 가난해서 기술을 발휘할 여건이 안 되면(도구나 재료가 없으면) 열등해 질 수밖에 없다.(421d ~ 422a) 도공답지 못한 도공이나 구두쟁이답지 못한 두구쟁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락한 수호자는 나라를 망쳐놓는다. 나라 전체의 행복이 바로 수호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421a)

“[...]이들이 거쳐나 이런 유의 다른 자산을 갖추게 됨에 있어서, 그게 어떤 규모의 것이건 간에, 이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호자이기를 그만두게 하거나 다른 시민들에 대해 해코지를하도록 유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 되게끔 되어야만 한다고 말함직 하네.”(416c)

“부와 빈곤일세. 앞엣것은 사치와 계으름 및 변혁을 초래하는 반면,

뒤엣것은 변혁에 더하여 노예 근성과 기량의 떨어뜨림을 초래하기 때문이네.”(422a)

2.1.4.1.1.2.3. 처자들의 공유

수호자들은 남편과 아내·자식들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알아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를 알아서도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남·여 평등에 관한 것보다 훨씬 큰 파도에 비유한다. 이런 제도가 실현 가능하다면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므로 소크라테스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고 하자, 글라우콘이 두 가지 다 해 달라고 요구한다. 소크라테스는 게으른 사람들이 곧 잘 하는 방식대로 실현 가능성 문제는 뒤로 미루어 놓고, 유익한 지의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457d~458b) 이 제도의 실현가능성 문제는 결국 세 번째 파도에 대한 논의 속에서 다루어진다. 세 번째 파도는 소크라테스가 수립한 국가의 모든 제도들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남자들은 이 모든 여자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고,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와 개인적으로는 동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네. 또한 아이들도 공유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알게 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아이도 자기 부모를 알게 되어 있지 않다네. [...] 여자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자식들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녕 가능하다면, 이것이 최선의 것이 못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으이. 그러나 그것의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대의 논쟁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네.”(457d~e)

2.1.4.1.1.2.3.1. 결혼

결혼은 가장 성스럽고 유익한 것, 즉 최선의 혈통을 얻고 유지

할 수 있는 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에 정한 축제와 제물을 바치는 행사 기간에 신랑 신부들을 만나게 한다. 혼인을 위한 찬가를 시인들이 짓게 하고, 혼인의 수는 통치자들의 재량에 맡기되, 국가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전쟁과 질병 등을 고려해서 남자들의 수를 최대한 같게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배우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460a ~ b)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식사하며 체육훈련이나 그 밖의 양육 과정에 함께 어울리게 되므로 상호 성적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질서한 성 관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359d ~ e) 너무 늙거나 어리지 않은 절정기에 있는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자주 성 관계를 가져야 한다. 반대로 가장 열등한 남자들은 가장 열등한 여자들과 관계를 갖도록 한다. 젊은이들 중 빼어난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주고, 여자들과 더 많은 동침의 자유를 허용토록 한다.(459a ~ e)

“[...]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한 자주 성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제일 변변찮은 남자들은 제일 변변찮은 여자들과 그 반대로 관계를 가져야하고 [...] 몇 차례의 축제 행사와 제물 바치는 행사가 법으로 정해져야만 할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신부들과 신랑들을 서로 만나게 할 것이며, 거행되는 혼인들에 어울리는 찬가들도 우리의 시인들에 의해 지어져야만 하네. 혼인의 수는 통치자들의 재량에 우리가 일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전쟁과 질병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남자들의 수를 최대한 같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는, 가능한 한,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을 걸세.”(459d ~ 460a)

2.1.4.1.1.2.3.1.1. 근친 결혼 금지

출산 적령기를 넘겼을 때는 남녀가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성 관계를 갖도록 내버려 두되 근친상간은 금한다. 즉 남자는 딸과

어머니, 딸의 자식과 어머니의 손위 여자들과의 관계를 금하고, 여자는 아들과 아버지, 이들의 손아래와 손위 남자들과의 관계를 금한다. 만에 하나 아이가 태어날 경우 양육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들과 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신랑이 된 날로부터 일곱 달에서 열 달째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아들 혹은 딸로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끼리는 형제자매 관계가 된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정한다. 형제자매들 간의 혼인은 허용한다.(460e ~ 461d)

2.1.4.1.1.2.3.2. 출산

출산 적령기는 남자는 절정기부터 천다섯 살까지 30년간이고, 여자는 스무 살에서 마흔 살까지 20년간이다. 출산 적령기를 어겨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제물 바치는 의식과 기원 없이 어둠 속에서 무절제의 산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통치자의 혼인 허락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461a ~ b)

2.1.4.1.1.2.3.3. 양육

빼어난 자의 자식들은 양육되어야 하지만 열등한 자의 자식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은 통치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행해져야 한다.(459d) 특정 지역에 따로 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넘겨받아 거기에 데려가서 양육시킨다. 열등한 보모의 자식들이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 둔다. 산모가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 젖을 먹일 때는 자신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460c ~ d)

“이들 관리들은 빼어난 자들의 자식들을 받아서는, 이 나라의 특정 지역에 떨어져 거주하는 양육자들 곁으로 보호 구역 안으로 데리고 갈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반면에 열등한 부모의 자식들은,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자식으로서 불구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듯, 밝힐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 둘 걸세 [...] 따라서 이들 관리들은 젖이 분 산모들을 보호 구역으로 안내하며, 어떤 산모도 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든 방책을 강구하고 또한 산모들이 젖이 넉넉지 않을 때에는, 젖 있는 다른 여인들을 댐으로써 양육 또한 감독하지 않겠는가? 또한 이들은 산모들이 적절한 시간 동안만 젖을 빨리도록 하되, 불침번이나 다른 수고는 보모들과 양육자들에게 넘기지 않겠는가?”(460c ~ d)

2.1.4.1.1.2.4. 재산 및 처자 공유 제도의 효용성

국가의 수립에서 최대선이 무엇이며 최대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가를 위한 최대선은 국가를 결속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며, 최대악은 국가를 분열시켜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같은 일에 대해서 즐거움과 고통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나라를 단결시킨다. 반면에 같은 일에 대해서 즐거움과 고통을 서로 달리하는 것은 나라를 해체시킨다. 한 부분이 다쳤을 때 전체가 함께 괴로워하듯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나라, 그리고 같은 것에 대해서 ‘내 것’(to emon)과 ‘내 것 아닌 것’(to ouk emon)이라는 말을 가능한 최대 다수가 똑같이 쓰는 나라가 가장 잘 경영되는 나라다.(462a ~ e)

“그러면 나라를 분열시켜 하나 대신 여럿으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나라에 더 나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또는 나라를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 그러니까 동일한 일들이 생기거나 없어질 때, 모든 시민이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할 경우의 이 즐거움과 고통의 공유(함께 함: koinōnia)가 나라를 단결시키지 않겠는가? [...] 나라에 일어난 동일한

일들에 대해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일들에 대해 일부의 사람들은 뭋시 상심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뭋시 즐거워할 경우에, 이런 것들의 사유(私有, 달리함: idiosisis)야 말로 나라를 해체시키겠지? [...]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에서, 즉 그 나라에서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같은 말들을 모두가 일제히 함께 말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겠지? 또한 ‘남의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지? [...] 어느 나라에서건 ‘내 것’이니 ‘내 것이 아닌 것’이니 하는 말을 최대 다수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쓰는 나라가 가장 훌륭하게 경영되겠지?”(462b ~ c)

2.1.4.1.1.2.4.1. 처자 공유의 효과

최선의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최대선의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 통치자들과 평민(dēmos)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평민이 통치자들을 ‘군주’(despotēs), 혹은 ‘통치자’(archōn)라 부르고 통치자들이 평민을 ‘노예’(doulous)라고 부른다. 반면에 최선의 국가에서는 평민들이 통치자들을 ‘구원자’(sōtēr) 내지 ‘보조자’로 부르고, 통치자는 평민을 ‘보수를 주는 자’ 내지 ‘부양자’로 부른다. 그리고 통치자들 서로에 대해서는 동료 수호자들로 부르며 동료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 누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하거나 잘못했을 때, ‘내 것’이 잘 되고 있다든가, ‘내 것’이 잘 못되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수호자들이 처자들을 공유하는데 있다.(463a ~ 464b)

“그러면 우리의 시민들이야말로 동일한 것을 으뜸으로 공유할 것이니, 바로 이걸 이들이 ‘내 것’이라 일컬지 않겠는가? 한데, 이걸 이들이 이처럼 공유하기에, 이들은 고통과 즐거움 또한 으뜸으로 공유하겠지? [...] 그러니까 이에 대한 원인은 다른 제도에 더하여 수호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처자들의 공유인가? [...]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의 공유가

‘최대선’(最大善)이라고 동의했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게 경영되는 나라를 신체에다, 즉 자신의 일부의 고통 및 즐거움과 관련해서 신체가 처하게 되는 상태에다가 비유했네. [...] 따라서 우리의 이 나라에 있어서의 최대선의 원인은 보조자들에 있어서의 처자들의 공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네”(464a ~ b)

2.1.4.1.1.2.4.2. 재산 공유의 효과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을 두고 내 것이라 일컫게 되면, 각자가 남들과 따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어 분열하게 된다. 그러나 수호자들은 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없고 다 공유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고소가 사라진다. 강제 행위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도 없다. 그리고 젊은 수호자들은 통치자가 지시하지 않는 한, 두려움과 공경심 때문에 연장자들에게 난폭한 짓을 하려들지도 않을 것이다. 수호자들 사이에 분쟁이 없으면 나머지 시민들도 이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게 될 위험이 없어진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464c ~ 465d)

2.1.4.1.1.3. 공동 참여 제도(남·여 평등)

소크라테스는 여성에 관한 법을 다루는 것을 논의의 바다에서 만난 첫 번째 파도에 비유한다. 논의의 결론은 힘이 약하는 점 외에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수호자의 업무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전쟁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452a) 수호자들의 아내는 옷 대신에 훌륭함을 걸쳐야 한다. 전쟁이나 그 밖의 수호에 관여해야 하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457a) 그러나 여성은 힘이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중에서도 가벼운 것을 맡아야 한다. 남자들

과 여자들의 공동 참여(*koinōnia*)는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모든 방식으로 행해져야 된다.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성향에 어긋나지 않게, 양성이 서로 자연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466c ~ d) 이런 제도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최선의 국가에서 수호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며, 여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최선의 남자와 여자들이 나라 안에 생기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따라서 이 법은 나라를 위한 최선의 법이다.(456c ~ e)

“그러면 자네는 교육과 아이들 그리고 다른 시민들의 수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했던 그 남자들과 여자들의 공동 참여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또한 나라 안에 머물 때나 싸움터에 나가서나 함께 수호도 하고 마치 사냥개들처럼, 사냥도 같이 해야 되며,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모든 방식으로 관여하여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최선의 것들을 행하되,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성향에 어긋나지 않게, 양성이 서로 자연적으로 관여하게 되어있는 방식으로, 행하게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466c ~ d)

2.1.4.1.1.3.1. 공동 참여 제도의 장애 요인

2.1.4.1.1.3.1.1. 사회적 편견

남·여의 공동 참여가 관습(ethos)에 어긋나 보여서 온갖 농담과 놀림이 있을 것인데(특히 옷을 벗고 남자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그런 놀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옷 벗은 남자들을 본다는 것이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웠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실천해 본 결과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눈으로 볼 때의 우스꽝스러움이 이치로 따져서 드러난 최선의 것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점을 일깨워 주도록 한다.(452a ~ e)

“하지만 이를 실천해 본 사람들한테 이 모든 걸 감싸는 것보다도 벗겨 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눈으로 볼 때의 우스꽝스러움도 ‘이치로 따져서’ (논의를 통해서: en tois logois) 드러난 최선의 것에 의해서 사라졌던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또한 이는 이런 사실을 보여 주기도 했네. 즉 나쁜 것과는 다른 것을 우스꽝스런 것이라 생각하는 자는, 그리고 어리석고 나쁜 것의 광경을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것의 광경을 우스꽝스런 것으로 보고서 웃기려는 자는,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것의 목표를 좋은 것 이외의 것으로 설정하고서 진지해지는 자는 실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일세”(452d ~ e)

2.1.4.1.1.3.1.2. 성향의 차이에 대한 논란

여성은 성향이 남성과 다르다. 그렇다면 1인 1업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성향은 다른 일에 종사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반박술(antilogike techne)에 의지한 반론이다. 논박술은 문제의 대상을 종(eidos)들에 따라 나누고서 검토하지 않고, 낱말에만 집착해서 상대의 주장과 반대를 고집한다. 즉 같지 않은 성향은 같은 업무를 배정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같고 같지 않은 성향(physis)의 종(eidos)이 무엇인지, 무엇에 적용해서 같고 같지 않은 음을 구분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아이의 출산은 어떤 기술이나 일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못된다. 여러 가지 성향이 남·녀 양쪽 성에 비슷하게 흘어져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여자든 남자든 성향에 따라 관여하게 된다. 여성들도 성향에 따라 의술에 능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고, 시가에 능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으며, 체육이나 전쟁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나라의 수호와 관련해서 성향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남자 수호자들의 아내들에게 시가와 체육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453b ~ 456b)

“[...]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일(업무)로서 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것인 것은 없고, 남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것인 것도 없다네. 오히려 여러 가지 성향이 양쪽 성(性)의 생물들에 비슷하게 흘어져 있어서, 모든 일(업무)에 여자도 ‘성향에 따라’(kata phisin) 관여하게 되고, 남자도 모든 일(업무)에 마찬가지로 관여하게 되는 걸세.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는 하이.”(455d)

2.1.4.1.1.3.2. 전쟁의 공동 수행

2.1.4.1.1.3.2.1. 아이들의 전쟁 참관 교육

전쟁에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출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고 봉사와 보조를 하게 한다. 전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출정과 위험한 출정을 구별해서 데리고 나간다. 경험과 연령 면에서 지도자나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되도록 어려서부터 말을 타게 한다. 승마를 습득케 한 후 날래면서도 고분고분한 말에 태워 전투를 관찰하게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나이 많은 인도자를 따라 가게해서 안전하게 구조 받을 수 있게 한다.(466e ~ 467e)

“전쟁과 관련해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하네. [...] 함께 출진(出陣)하게 될 것이라는 것, 게다가 아이들 중에서도 건장한 자들을 모조리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이 말일세. 이는 다른 분야의 장인들의 자제들이 그럴듯, 자신들이 성장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네. 이들은 이걸 보는 것에 더하여, 전쟁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봉사하고 보조하며, 부모들을 봉양할 결세. [...]”(467a)

2.1.4.1.1.3.2.2. 전쟁과 관련된 규정들

2.1.4.1.1.3.2.2.1. 상별 규정

전쟁에서 대오 이탈, 무기 방기 등의 비겁한 행위를 저지른 군인들은 장인이나 농부로 강등시킨다. 무공을 세우거나 명성을 떨친 자는 큰 명예들을 얻고 각종 혜택들을 누리게 한다. 출전 중 명성을 떨치고 전사한 자에게는 특별한 장례를 치러주고 수호신들의 무덤을 모시듯이 모시고 경배한다. 살아서 현저히 훌륭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 자연사하는 경우도 똑같이 대우한다.(468a ~ 469b)

“[...] 그건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행사나 이와 같은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훌륭한 사람들을,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로 보이는 한은, 찬가

(讀歌)와 방금 우리가 말한 것들로써, 또한 이것들 이외에도 ‘명예로운 자리와 고기 그리고 그득한 술잔으로써’ 예우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훌륭한 남녀들을 예우함과 동시에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이네.”(368d)

2.1.4.1.1.3.2.2.2. 패배한 적에 관한 규정

승리했을 때 전사자들의 무장 이외의 것을 벗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굴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다. 시신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몸뚱이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녀자 같은 소심한 것이다. 적의 무기를 봉납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469d ~ 470a)

“시체를 벗기는 것은 비굴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짓이며, 죽은 자의 몸뚱이를, 그가 갖고서 싸우던 것만 남긴 채 그는 이미 날아간 터에,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녀자 같은 소심한 생각의 발로로 생각되지 않는가? 혹은 이 짓을 하는 자들이, 던져지는 돌들에 대해서는 성을 내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던지고 있는 자는 건드리지 않는 개들과 차이 가 나는 짓을 하는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469d)

2.1.4.1.1.3.2.2.3. 전쟁과 내분의 구별

헬라스 나라들이 헬라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땅을 유린하거나 가옥들을 방화해서도 안 된다.(469b ~ c) 그 해의 수확물만 빼앗도록 한다. 헬라스 종족은 친족이자 동족이다. 비헬라스 종족은 이민족이며 남이다. 전쟁은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 간의 싸움이다. 헬라스인들끼리의 싸움은 내분이다. 내분은 병이다. 내분에서 들판을 유린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짓이다. 수확물만 빼앗는 것은 불화의 장본인들에게 제정신을 들게 해 주려는 것이지 예속이나

파멸을 의도하여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470a ~ 471c)

“내가 보기엔, 그게 불리기도 두 가지 이름으로 그려듯, 즉 전쟁(polemos)과 내분(내란: stasis)으로 불리듯, 실제로 이것들은 둘이기도 해서, 두 가지 것에 있어서 찾아 볼 수 있는 두 가지 불화(diaphora)에 적용되는 것들인 것 같으이. 내가 말하는 두 가지 것이란, 하나는 친족 및 동족에 대한 것이나, 다른 하나는 남인 이민족에 대한 것이네. 내분이란 친족 사이의 적대심에 적용되어 지칭되나, 전쟁은 남인 사이의 적대심에 적용되어 지칭되네.”(470b)

2.1.4.1.1.4. 수호자의 임무

수호자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란 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 관련된 일이고, 내적으로는 정치 체제(politeia)의 보존과 관련된 일이다. 나라의 정치 체제를 보존한다는 것은 법률과 관례(epitēdeumata)를 수호하는 일로서(484c) 수호자는 이런 일을 감독하는 자(epistates)이다.

“어느 쪽이든 나라들의 법률(nomoi)과 관례(관행, epitēdeumata)를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면, 이들을 수호자들로 임명해야 할 걸세.”(484c)

2.1.4.1.1.4.1. 정치 체제의 보존

2.1.4.1.1.4.1.1. 국가의 통합

수호자는 국가가 단일함을 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국가를 위한 최대선은 국가를 결속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며, 최대악은 국가를 분열시켜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만드는 것이다.(462b)

“그러면 나라를 분열시켜 하나 대신 여럿으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나라에 더 나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또는 나라를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2.1.4.1.1.4.1.1.1. 부의 통제

수호자들은 부와 빈곤이 나라 안에 숨어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과 변혁(neōterismos)을 초래하고, 빈곤은 변혁에 덧붙여서 노예 근성(aneleutheria)과 열등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421e ~ 422a) 빈부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나뉘어져서 분열이 생긴다. 그런 국가는 대립하는 여러 국가들로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423a) 이런 나라들은 전쟁에서 허약하지만, 부를 통제하여 절제 있게 경영되는 나라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재물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재물을 바라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부유하나 분열된 나라들과 대적하여 충분히 이길 수 있다.(422d)

“우리가 수립해 온 것과 같은 그런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 나라’ 라 부를 가치가 있는 걸로 자네가 생각하는 걸 보니, 자넨 태평이군. [...] 다른 나라들은 더 큰 명칭으로 불러야만 하네. 이런 나라들의 각각은 ‘수많은 나라’ 이지 ‘한 나라’ 가 아니기 때문일세. 마치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말일세. 어떤 경우에나, 거기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나라, 즉 가난한 자들의 나라와 부자들의 나라가 있네. 한데, 이 각각 안에도 아주 많은 나라가 있어서, 만약에 자네가 이것들을 하나로 간주하고서 접근한다면, 자넨 완전히 실수를 하게 될 걸세. 그러나 여럿으로 보고서 접근하여, 한쪽의 재물과 세력 또는 인력 자체를 다른 쪽에 넘겨줄 것 같으면, 자넨 언제나 동맹군을 많이 갖되 적은 적게 가질 걸세. 그리고 자네의 나라가 방금 정돈된 대로 절제 있게 경영되는 한, 이 나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로 될 걸세. [...]”(423a)

2.1.4.1.1.4.1.1.2. 국가의 크기 제한

국가의 규모나 영토의 크기도 단일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서 보존해야 하며, 그보다 크거나 작게 해서는 안 된다.(423b ~ c)

“그렇다면 수호자들에게 또 하나의 지시 사항을, 즉 이 나라가 작게 되는 일도 또는 크다고 여겨지는 일도 없이, 충분하고 하나인 것이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수호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시하게 되는 걸 세”(423c) “[…] 혼인의 수는 통치자들의 재량에 우리가 일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전쟁과 질병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남자들의 수를 최대한 같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는, 가능한 한,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을 걸세.”(460a)

2.1.4.1.1.4.1.1.3. 1인 1업의 원칙 고수

시민들이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가지 일(ergon)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나라의 구성원들 각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이 아닌 한 사람이 될 때, 나라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수호자들의 자손들 가운데 열등한 자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로 보내고, 다른 집단의 자손들 가운데 우수한 자들은 수호자를 부류로 보내야 한다는 규칙도 이 원리에 따른 것이다.(423d)

“[…] 수호자들에게서 한 번변찮은 자손이 생길 경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로 보내져야만 하고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우수한 자손이 생길 경우에는, 수호자들 사이로 보내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언급했던 것일세. 그러나 이것으로 의도한 바는 다른 시민들도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이 한 가지 일(ergon)에 개개인이 배치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각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 아닌 한 사람으로 되도록 하고, 또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였네.”(423d)

2.1.4.1.1.4.1.2. 교육의 지도 감독

교육(paideia)과 양육(trophē)을 잘 해서 절도 있는 수호자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은 수호자들이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잘 지켜지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이행될 수 있다. 양육과 교육이 잘 되면 좋은 자질들(physis)이 생기게 되고, 다시 이 좋은 자질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좋은 정치 체제(politeia)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423e ~ 424a)[='3. 교육' 참조]

“여보게나 아테이만토스! 우리가 이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이 지시 사항들은,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듯, 많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미한 것일세. 만약에 이들이, 속담에 있듯, 큰 것 하나를, 아니 큰 것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것 하나를 지킨다면 말일세. [...] 교육과 양육일세. 이들이 훌륭하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절도 있는 사람들로 될 것 같으면,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쉽게 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제쳐 두고 있는 많은 다른 것까지도, 이를테면 아내들의 소유나 혼인 또는 출산 등, 이 모든 걸, 속담에 따라, 최대한으로 ‘친구들의 것들은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까지도 쉽게 간파할 것이기 때문일세.”(423e ~ 424a)

2.1.4.1.1.4.1.2.1. 체육과 시가에 대한 감독

체육과 시가에서 질서에 어긋나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시가 양식의 변화는 국법(politikoi nomoi)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나라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가는 놀이로 여겨져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게 변화하더라도 무해하다고 생각되기에 은연중에 성격과 관행(epitēu-mata)에 스며든다. 그래서 사람들 상호간의 계약들에로 들어가고 마침내는 법과 정치체제로까지 옮겨가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424b ~ e) [=‘3.2.1.1. 품성교육’ 참조]

“새로운 형식의 시가(詩歌)로 바꾸는 것을 나라 전반에 걸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여기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일세. 다몬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믿듯, 국법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바뀌는 일이 없이 시가의 양식들만 바뀌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네. [...] 그리고 보니, 수호자들로서는 여기 어딘가에, 즉 시가에다 위병소를 지어야만 할 것 같으이.”(424c)

2.1.4.1.1.4.1.3. 국토 방위

=‘2.1.4.1.1.3.2. 전쟁의 공동 수행’ 참조

2.1.4.1.1.5. 수호자의 삶은 행복한가?

수호자들이 소유 재산도 가족도 없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용병처럼 과수꾼 노릇만 한다면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아테이만토스의 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대답이다.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적합한 일이 다르듯이 수호자들이 얻는 행복도 보통 사람들이 얻는 행복과 같지 않다. 농부는 농부에게 맞는 생활을, 도공은 도공에게 맞는 생활을 해야한다. 예복에 디 금장식을 걸치고 땅을 가는 농부는 농부답지 않을 것이고, 침상에 누워서 성찬을 들면서 녹로를 돌리는 도공은 도공답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호자들에게 큰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호위호식하는 데서 얻는 행복을 허락하는 것은 수호자를 수호자답게 해 주는 일이 아니다.(419a ~ 421c)

국가 내의 주요 분쟁들은 자기 것을 쟁기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분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수호자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겪어야 하는 온

갖 어려움과 고통 같은 자질구레한 나쁜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며,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들보다도 더 축복받는 삶을 산다. 자신들과 자식들까지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고, 살아서는 삶을 받고 죽어서는 명예에 걸맞는 무덤을 배분받는다.(464b~465d)

“[...] 우리가 눈을 아름답게 채색해야만 된다고 해서 눈이 눈 같아 보이지도 않게끔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마십시오.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각각의 부분에 알맞은 색을 칠함에 있어서 전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더구나 이런 터에 수호자들을 수호자와는 전혀딴판으로 만들고 말 그러한 행복을 우리더러 수호자들에게 주도록 강요하시는 마십시오.[...]"(420d)

2.1.4.1.2. 통치자 부류

2.1.4.1.2.1. 통치자의 자격

수호자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연장자여야 하고(50세 이상)[='통치자를 위한 교육' 참조], 가장 훌륭한 자로서 슬기롭고 유능해야 하며, 나라에 마음을 쓰는 자여야 한다.(412c)

2.1.4.1.2.1.1. 철학적 자질

‘철인 통치자의 자격’ 참조

2.1.4.1.2.1.2. 굳은 애국심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을 쓰는 동기는 그것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이다. 나라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요 나라의 손해가 곧 나의 손해라는 신념을 전 연령 단계에

걸쳐서 고수하는 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고 믿는 것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장 잘 수호하는 자를 가려야 한다. 좋은 것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듯이, 이 신념이 참일진대 그것을 지닌 자는 자발적으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은 논변에 의한 설득, 시간에 의한 망각, 고통과 슬픔에 의한 강제, 쾌락에 의한 유혹 등에 영향을 받음으로써이다. 따라서 황금을 불 속에 넣고 시험하듯이 이런 상황들을 직면케 하는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야 한다. 수호자들 가운데 이 신념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할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수호자들’(alēthinoi phylakes)이요 ‘완벽한 수호자들’(phylakes panteleis)로서 통치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통치자를 돋는 보조자들(epikouroi) 및 협력자들(boēthoi)이 된다.(412c ~ 414b) 보조자들은 개들이 목자에게 하듯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한다. 통치자 부류는 다른 전문가 집단들에 비해 최소 규모이다.(428e)

“그러면 수호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해 내야만 할 것이니, 이들은 관찰하고 있는 우리 눈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나라에 유익한 것이면 온 열의를 다해서 하려 들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어떻게도 하려 들지 않을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온 사랑을 통해 그렇게 하려 들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일세.”(412e)

2.1.4.1.2.2. 통치자의 임무

수호자의 임무(=‘수호자의 임무’)가 곧 통치자의 임무이다. 통치자는 수호자들의 총 지휘관이며, 여타의 수호자들은 통치자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보조자들’이다. 통치자의 이런 임무 수행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량에 맡겨진 것들은 기존의 법을 본받아서 지시한다.(458c) 기존의 법과 관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통치자의 소임에 속한다.(484d)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진정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로 되려면,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되려면, 한 쪽은 지시받은 것들을 이행하고자 하고, 다른 한 쪽은 지시를 하고자 할 것이나, 이들도 어떤 것들은 법률에 따라서 지시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재량에 맡기게 되는 모든 것은 법률을 본받아 지시할 걸로 나는 생각하네”(458c)

2.1.4.2. 이상 국가의 주요 덕목

이상 국가는 ‘완벽하게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kallipois) (527c)다. 이 나라는 지혜, 용기, 절제 등 모든 덕목들을 갖춘 정의로운 나라다.(427e)

2.1.4.2.1. 지혜(sophia)

이상 국가가 지혜롭고 분별 있는 나라로 불리는 것은 바로 통치자 집단이 가진 지식 때문이다. 그것은 나라 전체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지식, 말하자면 수호술(phylakikē)로서 이 지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지혜(sophia)로 불리어 마땅한 그런 것이다.(428b ~ d)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kataphysin oikistheisapolis)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최소 집단(ethnos)과 부류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 지도자와 통치자 집단의 지식에 의해서 일세.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여겨지다시피, 그 성질상 최소 부류(genos)가 되는데, 모든 지식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혜(Sophia)라 불리어 마땅한 그런 지식에 관여하는 게 어울리는 것은 이 부류에 있어서 일세.”(428e)

2.1.4.2.2. 용기(*andreia*)

용기는 수호자 집단 내의 군인들이 갖추는 덕목으로서 두려워 할 것들에 대한 소신(doxa)을 언제나 보전케 해 주는 능력이다. 시가와 체육 교육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즉 아이들로 하여금 마치 물감을 받아들이듯이 법률을 잘 받아들 이도록 교육해야 하는 데, 그것은 두려워할 것들이나 여타의 것 들에 대한 소신이 질게 물들여져서 쾌락이나 고통, 공포 등 어떤 강력한 세제에 의해서도 탈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이 수호자의 노릇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국가 전체가 용기의 덕목을 갖추게 된다.(429b ~ 430b)

“[...] 이는, 이들이 적성을 갖추고 적절한 양육을 받은 덕분에, 두 려워할 것들이나 또는 다른 것들에 관한 이들의 소신(판단)이 질게 물 들여져서는, 세척에 있어서 강력한 이런 세제들도, 즉 이런 세척 작용 에 있어서는 그 어떤 소다나 갯물보다 더 강력한 쾌락도 그리고 또 그 어떤 세제보다 강력한 고통과 공포 및 욕망도 이들의 염색을 탈색시키 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일세.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판단)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 런 능력을 나로서는 용기라 부르며 또한 그렇게 간주하네. [...]”

2.1.4.2.3. 절제(*sōphrosynē*)

절제는 일종의 질서(*kosmos*)로서 쾌락과 욕망의 억제하는 힘 이다. 절제를 나타낼 때 “자기 자신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데, 이것은 사람 안에는 보다 뛰어난 혼의 부분과 보다 열등한 부 分이 있어서 본성상 보다 뛰어난 부분이 보다 열등한 부분을 제 압할 경우를 가리킨다. 반대로 무절제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진” 자이다. 이런 이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최선의 국가가 절제 의 덕을 가졌다다는 것은 다수의 미천한 사람들의 욕구가 소수의

한결 더 공정한 사람들의 욕구와 슬기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다스림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생각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즉 절제 있는 국가는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 받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homonoia) 나라이다. 절제(sōphronein)는 다른 덕들과는 달리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 받는 자들 양쪽에 다 있다. 그래서 절제(sōphrosynē)는 다른 덕들보다 협화음(symphōnia)과 화성(harmonia)에 더 가깝다.(430e ~ 432a)

“그렇다면 절제란 일종의 화성(和聲)을 닮았다고 좀전에 우리가 예언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는 걸 자네는 알겠는가? [...] 그건 용기나 지혜는 그 각각이 그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뒤엣것은 그 나라를 곧 지혜로운 나라로, 반면에 앞엣것은 그걸 용기 있는 나라로 되게 하지만, 절제는 그러질 못하기 때문일세. 절제는 정말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협화음처럼,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전(全)음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일세. 이는, 자네가 원한다면, 슬기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 자네가 원한다면, 체력에 있어서일 수도 다시 자네가 원한다면, 사람의 수나 재물에 있어서일 수도, 또는 이런 유의 것들 중의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일 수도 있네. 그래서 이 ‘한마음 한뜻’(한마음, homonoia)이, 즉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걸세.”(432a)

2.1.4.2.4. 정의(dikaiosynē)

=‘국가의 정의’ 참조

2.1.4.3. 이상국 가의 실현 가능성

소크라테스는 이상국가의 실현 가능성 문제를 세 번째 파도에 비유하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주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이상 국가를 수립할 때의 목적은 그런 국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서 정의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들을 가장 닮은 사람이 행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합의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본을 그린 화가는 그런 인물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덜 훌륭한 화가인 것은 아니다. 훌륭한 나라(*agathē polis*)의 본을 논의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천(*praxis*)은 말보다 언제나 진실에 덜 미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한 나라가 앞에서 수립한 국가에 가장 가깝게 다스려질 것인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상 국가의 실현 가능성은 확인 한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비난받는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최소한의 변혁을 통해서 이상적 정치 체제로 옮겨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한다.(472a ~ 473b)

“그러니까 그건 본(*paradeigma*)을 위해서였네. 우리가 올바름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완벽하게 올바른 사람이 생길 수 있을지 또한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가 어떤 사람일지를, 그리고 다시, 올바르지 못함과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 탐구했던 것은 말일세. 이는 이들이 행복 및 그 반대의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로 보이는지, 이들을 보고서, 우리 자신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가운데서 이들을 가장 닮은 사람이 그 행·불행에 가장 닮은 ‘운명의 뜻’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그것들을 생길 수 있는 것들로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네.”(472c ~ d)

2.1.4.3.1. 철학과 정치 권력의 통합

이상국가 실현의 한 가지 가능성은 철학자들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군왕 내지는 최고 권력자로 불리는 자들이 철학자로 되는 것. 즉 정치권력(dynamis politikē)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나쁜 일들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이상국가 역시 가능한 한도까지 성장해서 햇빛을 보게 되지 못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어서 말하기를 망설였다고 고백한다.(473d ~ e) 그는 먼저 긴 논의를 통해서(474c ~ 480a)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를 규정해 보인다. 그런 다음 철학적 자질이 통치자의 자격 조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철학자가 나라의 관리자가 되거나 통치자 자신 혹은 그의 자손이 철학자가 되는 일이 실현되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499a, 501c) 나아가 철인 통치자를 길러내는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함으로써 이상 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 누군가가 이런 반론을, 즉 군왕들이나 최고 권력자들의 자손들이 성향에 있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철학자들)로 태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게 될까? [...]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더라도 타락하게 될 게 다분히 필연적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들이 구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도 인정하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결코 구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생겨나서, 그를 따르는 나라를 갖는다면, 그는 오늘날 믿기지 않는 모든 일을 능히 이를 걸세.”(502a ~ b)

2.1.4.3.1.1. 철인 통치자의 자격

2.1.4.3.1.1.1. 지혜와 경험의 겸비

통치자가 될 수호자는 각각의 실재(to on), 즉 이데아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혼속에 뚜렷한 본(paradeigma)을 지녀야 한다. 경험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어떤 부분의 훌륭함(arētē)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지혜와 경험, 두 가지를 어떻게 겸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한 사람이 철학자이면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향(자질)을 알아야 한다.(484c ~ 485a)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자질을 가진 사람은 모든 덕(arete)들을 갖춘 자임을 보여준다.

“각각의 실제(hekaston to on)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경험에 있어서도 조금도 그들에 못지 않으며 또한 다른 어떤 부문의 훌륭함(arētē)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수호자들로 우리가 임명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정녕 다른 점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면야, 다른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바로 이 가장 중대한 것에 있어서 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484d)

2.1.4.3.1.1.1.1. 철학적 자질(=통치자의 자질)

철학적 자질을 가진 사람은 a. 진리 전체를 사랑하며 거짓을 미워한다. 따라서 그는 지혜를 포함해서 진리와 가까운 것들 모두를 사랑한다. b. 절제가 있어서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욕구가 학문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욕구는 혼 자체의 즐거움과 관련된 것이 되고, 육체의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c.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호방함(megaloprepeia)을

지닌다. 전체 시간과 전체 존재(ousia)를 관조하는 마음의 소유자는 인간적인 삶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d. 정의롭다. e. 쉽게 배우고 기억력이 좋다. f. 절도(emmetron)와 품위가 있다 (eucharis). (485b ~ 487a) 이런 여러 조건들을 두루 갖춘 성향은 사람들 사이에 드물고 소수만 타고 난다. 한 사람 속에서 a. ~ f.의 상반된 성향들이 함께 자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503b)

“그러니까 그들을 아마도 소수로 가질 것이라는 걸 유의하게나. 왜냐하면 그들에게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 성향(자질)으로서 우리가 언급했던 면면들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천성으로 함께 결합된 상태로 자라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일세 [...] 쉬 배우며 기억력이 좋고 재치 있으며 민첩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수반되는 그 밖의 다른 성향들이, 또한 활기차고 생각에 있어서 당당한 성향들이 자네도 알다시피, 조용함과 안정됨을 유지하며 절도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과는 좀처럼 함께 자라지 못한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네. 오히려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민첩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처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따라서 일체의 안정됨은 이들에게서 사라져 버리네.” (503b ~ c)

2.1.4.3.1.2. 철학자가 통치해야하는 이유

법을 수호하고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것은 통치자의 임무다. [‘통치자의 임무’ 참조] 법을 수호하고 제정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전체의 최대선을 실현하는 데 있다. 통치자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론적 근거 그리고 지향해야 할 본보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동굴의 비유’, ‘선분의 비유’ 참조]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어 이데아를 보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철학자는 이데아를 보고 관상하며 그것과 함께 지내기(homilōn) 때문에 그 스스로 최대한 절도 있고 신파도 같은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시민들의 성격을

단련시켜 절제와 정의 등 일체의 시민적 덕을 갖게 해 준다.”(500d) 즉 통치자 스스로 모범적인 교육자가 되어 시민들이 법을 내면화시켜 따르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철학자가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춘 자라는 것. 이런 철학자로서의 통치자가 신적인 본(paradeigma)을 이용하는 화가가 되어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나라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500e)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다.

“그러면 눈먼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가? 즉 각각의 실재(to on)에 대한 인식(앎)을 정말로 갖지 못하여, 그 혼 속에 아무런 뚜렷한 본(pradeigma)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 따라서, 마치 화가의 그림 모델처럼, 가장 진실된 것을 주목하면서 언제나 거기에 연관 지으며 또한 되도록이면 가장 정확하게 관찰함으로써,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과 관련되는 이 세상의 관습(관행: ta nomima)을 정해야만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물론 이를 그런 식으로 정하되, 이미 제정된 것들은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할 수없는 사람들이 말일세”(484c) “나라에는 법을 제정할 때, 정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과 똑 같은 이론적 근거(logos)를 갖는 무엇인가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497d)

2.1.4.3.1.3. 철인 통치자의 삶

“[…] ‘좋음(善) 자체’를 일단 보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서, 저마다 여생 동안 번갈아 가면서 나라와 개개인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하네. 이들은 여생의 대부분을 철학으로 소일하지만 차례가 오면 나라일로 수고를 하며, 저마다 나라를 위해 통치자로도 되는데,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어서 일세.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자기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는 나라의 수호자들로서 자기들 대신에 남긴 다음,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로 떠나가서 살게 되도록 해야만 할 결세. [...]”(540b)

2.1.4.3.2. 철학이 비난받는 현실

온갖 덕을 갖춘 유능하고 뛰어난 자만이 철학을 할 수 있다는 테 수긍은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철학을 하면 오히려 열등해지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아데이만토스의 주장)(487b ~ d) 그러나 그것은 철학을 하는 사람 탓이 아니다. 오늘날 철학이 비난 받는 이유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앎을 갖지 못한 대중의 막강한 영향력과, 그런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데만 급급한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로 인해 철학자들이 쓸모없는 자로 배척당할 뿐 아니라, 철학적 자질을 가진 자가 변질되어 철학에 종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격 미玷인 자들이 고상한 장식거리로 철학에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489b ~ d)

“[...]또한 더 나아가 철학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들도 다중한테는 쓸모없다고 한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 주게나. 그렇지만 그들의 쓸모없음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탓하지는 말라고 하게나. 키잡이가 선원들한테 자기의 지휘를 받도록 청한다는 것도, 또한 협자(賢者)들이 부자들의 문전으로 찾아간다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일세.[...]"(489b)

2.1.4.3.2.1. 철학이 쓸모없게 되는 이유

철학자의 쓸모없음의 탓은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이 무용지물로 취급받는 현실 상황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 여기서 배는 나라(polis)를, 선주는 민주 정체의 주인인 민중(dēmos)을, 그리고 선원들은 민중 선동가들(dēmagōgoi)인 현실의 정치가들을 가리킨다.(488a ~ 489b)

2.1.4.3.2.1.1. 대중에 영합하는 선동 정치

선원들은 키 잡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마다 자기가 키를 잡아야 한다고 선주(船主)에게 요구하고 온갖 횡포를 부려 급기야는 귀 먹고 눈 어두운 선주를 홀려서 꼼짝 못하게 해 놓고 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렇듯 선주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배의 지휘권을 얻어내는 자를 조타술에 능한 자로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쓸모없다고 비난한다. 참된 키잡이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정작 조타술에 능한 자는 쓸모없는 자 취급을 당하게 된다.

“[...] 선주(船主)가 뎅치나 힘에 있어서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지만, 약간 귀가 멀고 눈도 마찬가지로 근시인데다 항해와 관련된 다른 것들에 대해 아는 것도 그만하이. 한데, 선원들은 키의 조종과 관련해서 서로 다투고 있네. 저마다 자기가 키를 조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지. [...] 이들은 언제나 선주를 에워싸서는 자신들에게 키를 맡겨 주도록 요구하며 온갖 짓을 다 하네. 그리고 때로 자신들은 설득에 실패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설득에 성공하게라도 되면, 그들을 죽여 버리거나 배 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하네. 그리고선 점잖은 선주를 죄면제나 술 취함 또는 그 밖의 다른 것으로써 옴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배를 지휘하네. 또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면서, 으레 그런 사람들이 할 법한 식으로 항해를 하네. [...]”(488b ~ c)

2.1.4.3.2.1.2. 참된 정치술의 부재

“[...] 아무도 일찍이 그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자신의 선생을 내 세우지도 못하며, 자신이 그걸 습득한 시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일세. 게다가 이들은 그 기술이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라도 하면, 그를 박살낼 태세가 되어 있다네. [...] 이들은 자신들이 선주를 설득해서든 강제해서든 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능란한 사람을 항해술에 능하며 조타술에 능한 사람 그리고 배와 관련된 것들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며 칭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난하네. 이들은 [...] 참으로 배를 지휘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되려면, 한 해(年)와 계절들, 하늘과 별들, 바람들, 그리고 그 기술에 합당한 온갖 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게 그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걸 말일세. 그래서, 남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키를 어떻게 조종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거나 수업을 받음과 함께 조타술을 습득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들은 하지 못하네. 이런 일들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정작 조타술에 능한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는 배를 탄 선원들한테서 영락없는 천체 관측자나 수다꾼으로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 자네는 생각지 않는가?”(488b ~ e)

2.1.4.3.2.2. 철학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훌륭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철학의 탓이 아니다. 나쁜 것들이 진리를 결코 뒤따를 수 없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교제하는 사람은 훌륭한 성격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철학에 종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철학적 성향이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철학적 성향을 흉내 내어 자신들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철학 활동을 해서 철학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자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488e ~ d)

“그러면 이 성향의 전락(轉落)을 살펴보아야겠네.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전락되어 가는지, 그리고 반면에 사람들이 비록 나쁘다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쓸모없다고 하는 그런 소수가 어떻게 이를 벗어나게 되는지를 말일세. 그리고선 다음 차례로, 철학적 성향을 흉내내며 이 성향이 종사할 일(활동)을 하게 되는 혼들의 성향들이 어떤 것들이기에, 자신들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넘치는 일(활동)에 임하게 되며, 여러 가지로 엉뚱한 짓을 하여, 자네가 말하는 그런 평판을 도처의 오만 사람 사이에서 철학에 대해 붙여주게 되는지도 말일세”(490e ~ 491a)

2.1.4.3.2.2.1. 대중의 영향력

대중들은 소피스트들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이야 말로 막강한 소피스트들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하고 만들어 낸다. 젊은이들은 대중들의 칭찬과 비난에 휩쓸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대중들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말로 설득하지 못 할 때는 시민권 박탈, 벌금, 사형 등의 강제 수단을 사용한다. 어떤 개인도 여기에 사적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다.(492a ~ d)

“그런데 우리가 규정한 철학자의 성향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경우에, 그것은 제대로 자라서 온갖 ‘훌륭함’(훌륭한 상태, 덕, arete)에 이를 것이 필연적 이지만,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토양)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 양육될 경우에는, 어떤 신이 그걸 구원해 주게 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앞서와는 정반대의 상태에 이를 걸세. 혹시 자네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듯, 소피스테스들에 의해 타락하게 된 젊은 이들이 있다고 믿으며,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을 만큼 타락시킨 ‘개인적인 소피스테스들’이 있다고 믿는지? 그렇지만 정작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야말로 ‘막강한 소피스테스들’이어서, 젊은이들이든 나아 많은 사람들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들이 바라는 사람들로 가장 완벽하게 교육하고 만들어 내지 않겠는가?”(492a ~ b)

2.1.4.3.2.2. 대중에 영합하는 소피스테스들

소피스트들은 대중의 막강한 영향력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대중들에 영합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들은 크고 힘센 짐승과도 같은 대중들의 기분과 욕망을 파악하고 다루는 법을 숙지하여 그것을 지혜라 부른다. 대중들의 신념들과 욕망들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대중을 불가피한 정도 이상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경우 대중들이 칭찬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참된 지식에 접하고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중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492e ~ 494a)

“이들(대중)이 소피스테스들로 부르고 기술상의 경쟁자들로 여기는 저 보수 받는 개인[교사]들 가운데 누구도, 대중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이 대중의 신념들(dogmata)과 다른 걸 가르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모두가 지혜(Sophia)라 일컫는다는 데 대해서 말일세. 그건 마치 누군가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크고 힘센 짐승의 기분과 욕망을 숙지하게 되었을 경우와도 같다네. 이 짐승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어

떻게 그걸 붙잡아야 하는지, 어떤 때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장 다른 기 힘들어지거나 온순해지는지, 소리는 어떤 조건에서 그때마다 내는지, 그리고 다른 것이 무슨 소리를 낼 때, 그게 온순해지기도 하며 사나워지기도 하는지, 이 모든 걸 그것과 함께 지내며 오랜 세월을 보냄으로써 숙지하게 된 다음에는, 이를 지혜라 일컬으며, 이를 ‘전문적 지식’(기술, techne)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치려 드네. [...]”(493a~b)

2.1.4.3.2.2.3. 우수한 자질의 타락

철학적 성향을 타고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친척들과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에 끌어들이고 싶어 부탁을 하고 칭송하며 아첨을 한다. 그가 부유하고 명문 태생인데다가 잘 생기고 신체적 조건도 준수하다면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여 으스대며 공허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지성을 갖추라고 충고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철학적 성향이 나쁜 양육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 활동에서 이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494b~495b)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의 씨나 새싹이 적합한 영양이나 계절 또는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기운찬 것일수록 그만큼 더 적정한 것들의 결핍이 심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렇듯 이 철학적 성향을 지닌 혼도 적절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특히 더 잘못되는 것이다.(491e) 철학적 성향은 다른 어떤 성향보다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것인 만큼 그것이 타락하면 나라와 개인들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게 된다.

“여보개나, 최선의 활동과 관련된 가장 좋은 성향(자질)의 이 파멸과 몰락은 이렇게 크며 이와 같은 것이라네. 이 성향은, 우리가 말하듯,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나 나타나지만 말일세.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나라들과 개인들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생기며,

또한 가장 큰 좋은 일들을 해 주는 사람들도 생기네. 이런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될 경우에는 말일세. 반면에 하찮은 성향은 개인에 대해서건 나라에 대해서건 아무런 큰 일도 못 하네.”(495b)

2.1.4.3.3. 철학이 당하는 수치

철학적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써 철학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철학에서 이탈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철학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철학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한결 고상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철학에 뛰어들어 행세를 한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갖게 되는 생각과 의견들은 궤변들(sophismata)로서 순수하지 못하며 참된 지혜와는 관계없다.

“[…] 다른 조무래기 인간들이 이곳(철학 분야)이 아름다운 이름들과 장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서는,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여 신전으로 도망한 자들처럼, 이들 또한 반가워서 자신들의 전문 기술들에서 벗어나 철학으로 경충 뛰어 들어 가기 때문이네. 자신들의 자질구레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능란한 사람들이 말일세. 물론, 비록 철학이 이런 꼴로 지낼지라도 적어도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결 더 고상한 지위가 그것에 남아 있기 때문이네. 그 성향에 있어서 완벽하지도 못한 많은 이가 그걸 노려서일세.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일로 인해서 몸이 병신으로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마음도 수공(手工: *baIlausia*)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지. 이는 필연적이지 않은가?”(495d)

2.1.4.3.4. 철학자의 현실 도피

고귀하고 훌륭하게 양육된 성격을 가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망명을 해서 철학을 제대로 하게 되거나, 위대한 혼을 지닌 자가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국사를 경시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테

아게스처럼 신병 때문에 정치로 나가지 못하고 철학으로 주저앉게 되거나, 아주 특별하게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영적인 알림”(to daimonion sēmeion)이 철학으로 이끌어 가거나 해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철학을 맛보고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축복받은 소유물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대중의 광기(mania)를 목격하고 정의로운 일을 함께 도모할 만한 동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쓸모없는 자가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현실 도피적 삶을 산다.(496b ~ e)

“[...] 바로 이들 소수자의 일원으로 되어, 철학이 얼마나 즐겁고 축복받은 소유물인지를 맛보게 되는 한편으로, 다중의 광기(mania)마저 충분히 목격하게 되어서는, 국사(國事)와 관련해서, 요컨대, 그 누구도 아무런 건전한 것도 행할 수 없으며, 더불어 올바른 것을 돋고서 무사 할 수 있도록 할 만한 동지도 없고, 오히려 마치 짐승들 속에 떨어진 사람의 경우처럼, 그는 올바르지 못한 짓에 가담하려고도 않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사나운 모두를 상대로 능히 저항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도, 그래서 미쳐 나라나 친구들을 이롭도록 해 주기도 전에 먼저 폐멸 하여 벼름으로써 자신한테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걸세. 그는 이 모두를 헤아려 본 다음에, 조용히 지내면서 자신의 일을 할 걸세. 그는 이를테면 폭풍우 속에서 바람에 몰려오는 먼지와 비를 피해 벽 아래에 대피한 꿀벌세. 그는 다른 사람들 [의 마음]이 무법(anomia)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올바르지 못함과 신성하지 못한 짓들에서 벗어나 깨끗한 상태로 이승의 삶을 살게 된다면 만족할 것이며, 또한 이승의 삶에서 해방됨도, 밝은 희망과 함께, 심기가 좋은 상태로 그리고 상냥한 마음 상태로 맞게 될 걸세.”(496c ~ e)

3. 교육(paideia)

플라톤이 『국가』에서 설파하는 교육은 나라의 법과 관습을 유지 보존하는 수호자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법질서가 내면화되고 품성으로 배양된다. 좋은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은 품성을 지닌 수호자들이 양육될 것이므로 자리양보, 부모봉양, 등 몸가짐에 관한 법들이나, 시장 상거래의 세칙과 같은 것들을 일일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교육이 잘 못되어 나쁜 품성이 자리 잡게 되면 고치기가 힘들며,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의 잘못들을 바로잡으려고 조례나 법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끊임없이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마치 히드라의 머리를 베는 것과도 같이 소용없는 일이다.(425a ~ 427a).

“여보게 아테이만토스!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가에 따라 이런 것들과 이에 준하는 것들이 결정될 것 같으이. 언제나 닮은 것이 닮은 것을 불러들이지 않는가?”(425c)

3.1. 교육 과정

3.1.1. 청소년기 교육

시가 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20세 이전까지의 교육. 출생에서 정규 교육을 받기 전까지의 시기, 즉 유년기 교육에 대해서는, 이 시기의 어린이들의 양육이 가장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450c),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청소년기의 교육은 크게 품성 교육(시가, 체육)과 지식 교육(수학, 기하학, 천문학, 선법연구), 전쟁 참관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품성 교육은 좋은 습관을, 지식 교육은 지적인 능력의 개발을, 전쟁 참관은 수호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익히기 위한 것이다.

3.1.1.1. 품성 교육

품성 교육은 시가 교육과 체육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체육보다 시가 교육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377a) 언제

몇 살 때부터 해야 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법률』에서는 (794c) 6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언급이 있다.) 청소년 시기는 가장 유연성이 커서 새겨주고자 하는 인상이 가장 잘 받아들여진다.(377b) 어린이는 숨은 뜻을 분별해 낼 수가 없는데다가 그런 나이에 갖게 되는 생각들은 좀처럼 씻어 내거나 바꾸기 어렵다.(378e)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선별해서 교육해야 한다. 시가는 습관(ethos)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선법은 조화로움을 갖게 하고, 리듬은 단정함을 갖게 한다. 그리고 다른 습관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갖게 한다.(522a) 체육 교육 역시 전사로서의 성품을 다지는 데 있다. 전사의 덕인 용기는 건강한 신체와 결정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것인데, 신체의 건강은 체력 단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식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습관의 형성이 요체라 할 것이다.

“자네는 모든 일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이건 어리고 연약한 것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건 그때에 제일 유연성이 있고, 또한 누군가가 각자에게 새기어 주고 싶은 인상이 제일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일세.”(377b)

“[...]어린 사람은 뛰어 숨은 뜻이고 뛰어 아님지를 판별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런 나이일 적에 갖게 되는 생각들은 좀처럼 씻어내거나 바구기가 어렵기 때문일세. 바로 이런 까닭으로 이들이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훌륭함(arete)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하게 지은 것들을 듣도록 하는 것을 어쩌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할 걸세.”(378e)

3.1.1.1. 시가(mousikē) 교육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받는 정규 교육은 시가 교육이다.(377a)

시가 교육은 혼을 위한 교육으로서(377c) 지혜를 사랑하는(philo-sophon) 성향을 일깨우는 교육이다. 혼 안에 배움을 사랑하는 면이 있다 해도 시가 교육을 통해서 이 방면의 감각들이 일깨워지고 순화되지 않으면 허약해지고 무디어져서 눈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논의를 싫어하고, 말로 설득을 하려 들기 보다는 짐승처럼 폭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할 것이다.(411d~e) 시가, 특히 리듬과 선법은 혼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젖어들며, 혼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다. 시가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보고, 추한 것들은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반겨서 혼 속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 근거를 알기 전에 추한 것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다가 그 근거를 접하게 되면 근친성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 반기게 된다.(401d~402a) 그렇기 때문에 훌륭함(arete)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잘 지은 것들을 아이들이 듣게 해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해야 한다. 시인들을 비롯한 모든 장인들은 좋은 성품의 상(eikōn)을 작품 속에 새겨 놓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작품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작품들을 대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닮도록 해야 한다.(401b~d)

“한데, 만약에 그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사 여신(Mousa)과도 전혀 사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령 그의 혼 안에 배움을 사랑하는 면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탐구도 맛본 일이 없기 때문에, 또한 어떤 논의나 그 어떤 형태의 시가에도 간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허약하게 되고 무디어지며 눈멀어지지 않겠는가? 그야 그런 면이 일깨워지지도 키워지지도 않았거니와, 그의 그 방면의 감각들이 철저하게 순화(純化)되지도 않았기 때문일 테고. [...] 이런 사람은 물론 논의를 싫어하고, 시가(詩歌)를 모르는 사람으로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또한 그는 이후로 말

을 통한 설득은 전혀 이용하지를 않고 마치 짐승처럼, 모든 것과 관련해서 폭력과 난폭에 의해 이루려 할 것이며, 무지와 졸렬함 속에서 상스럽고 무례하게 살아갈 결세.”

“젊은이들이 시가에 밝은 자들이 되어 절제(sophrosynē), 용기(andreia), 자유로움(eleutheriōtēs), 고매함(megaloprepeia), 등의 덕목들이 어디에 들어 있든 그것을 구별해 볼 줄 알고, 그것들을 지닌 것은 작든 작은 무시하지 않게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402c)

3.1.1.1.1. 시가 교육의 교과

시가에는 이야기(logos)가 포함되고, 이야기는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교육해야 하는데, 허구적인 것, 즉 설화를 먼저 교육해야 한다.(377b) 그리고 이야기(가사)에 선법과 리듬을 갖춘 노래(ōdē)도 시가에 포함된다.

3.1.1.1.1.1. 설화(mythos)

설화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대체로 허구적이지만 사실적인 것도 다소 포함하고 있다.(377a) 규모가 큰 설화들로서 호메로스의 두 작품(『일리아스』와 『오딧세이』)과 헤시오도스의 작품(『신통기』)이 있고, 그 외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야기 내용과 이야기 방식(lexis)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을 선별해서 교육해야 한다.

“우리로선 무엇보다도 먼저 설화 작가들을 감독해야만 하겠거니와, 그들이 짓는 것이 훌륭한 것이면 받아들이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거절해야만 될 것 같으이.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들을 보모들과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그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가꾸어 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설화로써 아이들의 마음(혼)을 형성해 주도록 설득할 결세. 그렇지만 오늘날 그들이 이야-

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은 버려야만 하네.”(377c)

3.1.1.1.1.1.1. 이야기 내용

신들과 영웅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내용들, 즉 신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싸움질 하는 것으로 묘사해 놓은 것들에 집중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도록 시인들을 감독해야 한다.(377e ~ 378d)

“우선 가장 큰 거짓말을, 그것도 가장 중대한 것들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좋지 못한 거짓말을 했다네. 말하자면 우라노스가 저지른 것으로 헤시오도스가 말하는 것들을 우라노스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를 이야기한 거짓말 말일세. 반면에 크로노스의 행적과 그 아들한테서 당한 수난 이야기는, 설령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철없고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그처럼 경솔하게 들려 줄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혹시 이야기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되도록 극소수의 사람만이 비밀리에 듣도록 하되, 이나마도 새끼 꽈지가 아닌 크고 얻기 힘든 제물을 바치고서야 듣게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소수만이 듣도록 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하네.”(378a)

3.1.1.1.1.1.1.1. 신

장차 신들을 숭배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며 서로간의 우정을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어릴 적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한 원칙을 시인들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theologia)를 지을 때 신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3.1.1.1.1.1.1.1.1. 신의 선함(훌륭함)

신을 신답게 묘사해야 된다. 신은 참으로 선한(agathon) 존재로

서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좋은 것들의 원인(aitia)으로 묘사해야 하며, 나쁜 것들의 원인을 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379a ~ 380c)

“[...] 누구든 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을 경우에는, 그가 서사시(epē)로 짓든 서정시(melē) 또는 비극시(tragōdia)로 짓든 간에, 언제나 신을 신인 그대로 묘사해야만 된다는 것일 것 같으이.”(379a)

“따라서 신은 선하기에(훌륭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모든 것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있어서 소수의 것들에 대해서 원인일 뿐, 많은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닐세. 그리고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아니 되지만, 나쁜 것들의 원인들은 신 아닌 다른 것들에서 찾아야만 하네.”(379c)

3.1.1.1.1.1.1.2. 신의 단순함

신은 단순하며 자신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a. 자연적인 것이든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움직여질 수 없다. b. 신과 신에 속하는 것들은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다. c. 따라서 신은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가장 적다. d. 따라서 신이 변화를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킨다. e. 신은 아름다움과 훌륭함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신이 만약 자신을 바꾼다면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쁘고 못한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f. 누구든 자발적으로 자신을 더 나쁘게 바꾸지는 않는다. g. 따라서 신은 자신을 바꾸려 들지 않으며, 언제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380d ~ 381e)

“[...] 자넨 신이 마법사여서, 기만적으로 그때마다 다른 모습(idea)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즉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eidos)을 바꾸

어 여러 형상(形狀: morphē)으로 탈바꿈을 하게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 눈을 속여서 자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신은 단순하며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모습(idea)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자넨 생각하는가?”(380d)

“그러므로 신이 자신을 바꾸려 듣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세. 오히려 각각의 신은 저마다 가능한 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아름다우며 훌륭하여서, 언제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으이.”(382b)

3.1.1.1.1.1.1.3. 신의 진실함

신들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a. 누구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혼이 속임을 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b. 진짜 거짓(pseudos)은 속임을 당한 자의 혼에 있는 무지(agnoia)이다. c. 말에 의한 거짓은 그런 무지의 모방물(mimema)이다. d. 말을 통한 거짓이 때에 따라서는 유익한 것일 수 있지만 신은 거짓을 말하여 유익을 도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 e. 따라서 신 성한 것(to daimonion)과 거룩한 것(to theion)은 모든 면에서 거짓됨이 없다. 따라서 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단순하고 진실하며 자신을 바꾸지도 남들을 속이지도 않는다.(382a ~ e)

“그러므로 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단순하며 진실하거나와, 자신을 바꾸지도 남들을 속이지도 아니 하네. 환상으로도 말로도, 또는 꿈에서든 생시에서든 간에 징조를 보냄으로써도 말 일세”(383a)

3.1.1.1.1.1.1.2. 영웅과 저승

a. 아이들이 용감해 지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저승(하데스)을 무조건 혐오스럽고 두려운 곳으로 묘사한 설화들은

배제해야 한다.(386a ~ 387c) 이름난 인물들의 통곡이나 비탄을 담은 이야기도 배제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장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자식이나 형제, 재화 같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덜 슬퍼하고 잘 견딘다. (387d ~ 388d)
 b. 웃음을 지나치게 좋아해서도 안 된다. 심한 웃음은 심리적인 변화를 크게 유발시키기 때문이다.(388e ~ 389a) c. 정직해야 한다. 신들에게는 거짓이 무용하고, 인간들에게는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나라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자들에게만 허용해야 한다.(389b ~ d) d. 절제(sophrosynē)가 필요하다. 대중들에게 요구되는 절제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주색이나 먹는 것, 재물 등의 쾌락들에 대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배제해야 한다.(389e ~ 392a)

3.1.1.1.1.1.3. 인간

시인들이나 산문 작가들이 인간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못 말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행복한 반면에 정의로운 이들은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득이 되나,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되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것. 이런 말을 거부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을 노래하고 설화로 이야기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392b ~ c)

“그러니까 그건 시인들도 산문 작가들도 인간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것들을 잘못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세. 즉 부정의한 자들은 다수가 행복한 반면에, 정의로운 이들은 다수가 비참하고, 또한 부정의 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들키지 만 않는다면 이득이 되나,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되 자신에게는 손

해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으로, 이와는 반대되는 것들을 노래하고 설화로서 이야기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혹시 자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392b)

3.1.1.1.1.1.2. 이야기 방식(lexis)

3.1.1.1.1.1.2.1. 모방에 의한 묘사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① 단순 진행 방식. ② 모방(mimēsis)에 의한 진행 방식. 작가가 개입하여 제 삼자의 입장에서 기술하지 않고 등장 인물들의 직접적인 대화들만 남겨 놓는 방식으로 비극이나 희극에서 볼 수 있다. 작가가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이 되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작가가 자신이 등장 인물들 각각을 흉내 내어(모방해서) 이야기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③ 서사시의 경우처럼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392c ~ 394c)

“[...] 이야기 진행은 그때그때의 발언을 이야기 할 때에도, 그리고 발언들 사이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있는 게 아니겠나? [...] 그가 마치 다른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발언을 이야기 할 때, 그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 투에 있어서 그가 발언자로 밝힌 각각의 인물을 자신이 최대한으로 닮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겠지? [...] 그런데 목소리나 몸짓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닮게 한다는 것은, 그가 닮으려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시인이나 또는 다른 시인들도 모방을 통해서 이야기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 그러나 만일에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고 결코 숨기지 않았다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시(poïēsis)와 이야기 진행은 모방 없이 이루어져 있을 걸세. [...]”(393d)

3.1.1.1.1.1.2.2. 모방의 제한적 사용

1인 1업의 원리에 따르자면[2.1.1.2. ‘1인 1업의 원리’ 참조] 수호자가 될 사람들은 수호자의 임무 외에 다른 일 즉, 모방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모방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것들을 모방해야지 비굴하고 창피스러운 짓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모방이 어떤 시절부터 오래도록 계속되면 몸가짐이나 목소리에서 또는 사고(dianoia)에서 마침내는 습관으로 그리고 성향으로 굳어져버리기 때문이다.(395b ~ 396b) 훌륭한 사람은 두 가지 어법, 즉 모방의 방식과 단순 진행 방식을 모두 사용하되, 모방은 적게 하고 변화가 적은 어법(lexis)을 사용하는 반면에 비천한 사람은 변화가 다양한 어법을 사용한다.(395c ~ 397c)

“[...] 이들이 모방을 할 경우에도, 이들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즉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바로 어릴 때부터 모방해야만 하네. 이들은 비굴한 짓을, 또한 그 밖에 그 어떤 창피스런 짓도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걸 모방하는 데 있어서 능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아니 되네. 이는 모방으로 해서 이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세. 혹시 자넨, 모방이 짧은 시절부터 오래도록 계속되면, 몸가짐이나 목소리에 있어서 또는 사고(dianoia)에 있어서 마침내는 습관으로 그리고 성향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는가?”(395c ~ d)

3.1.1.1.1.2. 노래(ōdē)

서정 시가(抒情詩歌)(melē)는 노래말(logos), 선법(harmonia), 리듬(rhythmos)이 갖추어진 노래이다. 노래말(가사)에 관해서는 ‘설화’에서 말한 지침을 따르면 된다. 선법과 리듬이 가사를 따라야 하며 가사가 선법과 리듬을 따라서는 안 된다.(398d)

3.1.1.1.1.2.1. 선법(harmonia)

3.1.1.1.1.2.1.1. 벼려야할 선법

비탄조의 선법들(혼성 리디아 선법, 고음 리디아 선법 등)은 배제해야 한다. 술취함, 유약함, 게으름에 관계있는 선법들(이오니아 선법, 리디아 선법 중 몇 가지 느슨한 것들로 불리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자신을 음악(시가)에 내맡기고서 아울로스를 연주케 하여, 앞서 우려가 언급했던 그런 달콤하고 부드럽고 비탄조인 선법들로 이루어진 선율을, 마치 깔때기를 통해서처럼, 그의 귀를 통해 혼에 쏟아 넣게 할 경우, 그래서 전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노래에 흠뻑 매료된 상태로 보낼 경우,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 결정적인 점을 지니고 있다면, 처음에는, 마치 쇠를 불리듯, 이를 부드럽게 하여, 쓸모없고 단단한 상태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될 걸세. 하지만, 그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그것에 훌린 상태에 있게 할 경우에는, 나중엔 어느새 자신의 기개(격정: thymos)를 녹여서 흐물흐물 해지게 만들어서는, 마침내는 이를 야원 상태로 만들어, 마치 힘줄을 잘라내듯, 혼에서 도려내어 나약한 창병[格兵]로 만들어 버릴 걸세.”(411a~b)

3.1.1.1.1.2.1.2. 취해야할 선법

- a. 전투나 강제적인 일에 임하는 용감한 사람들, 불운을 꿋꿋하게 참을성 있게 막아내는 사람들의 어조와 억양을 모방하는 선법
- b. 평화적이며 자발적인 행위에서 거만하지 않고 절도 있는 사람들의 어조와 억양을 모방하는 선법이다.(399a~c) 그리고 이런 선법들을 연주하는데 적합한 악기들(리라, 기타라)을 받아들이고, 여러 현과 여러 선법을 이용하는 악기들(트리고논, 팩티스, 아우로스)은 배제해야 한다.

“나는 선법들을 모르네. 하지만 이런 선법은 남겨 놓게나. 즉 전투 행위나 모든 강제적인 업무에 있어서 용감한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그리고 또 좌절하더라도, 말하자면 부상이나 죽음에 당면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불행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모든 사태에서도 자신의 불운을 꿋꿋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막아내는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적절하게 모방하게 될 선법을 말일세. 그리고 또한 다른 선법으로서 이런 것도 남겨 놓게나. 즉 평화적이며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득하며 요구를 할 때에는, 신께는 기도로써 하되 사람한테는 가르침과 충고로써 하고 반대로 남이 자신에게 요구를 해오며 가르쳐 주거나 변화하도록 설득을 해오면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며, 거만하게 굴지 않고, 이 모든 경우에 절제 있고 절도 있게 행동하며 결과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적절하게 모방하게 될 선법 말일세. 이들 두 선법, 즉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으로서, 불운한 사람들과 운 좋은 사람들, 절제 있는 사람들과 용감한 사람들, 이들의 어조를 가장 훌륭하게 모방하게 될 그런 선법들을 남겨 놓게나.”(399a ~ c)

3.1.1.1.1.2.2. 리듬(rhythmos)

시각(pous)과 선율(melos)이 노래말을 따르도록 해야지, 말이 시각과 선율을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400a) 회화를 비롯한 모든 기예(demiourgia), 직조나 건축 등의 모든 제작업, 그리고 동·식물의 몸체들은 우아함(euschēmosynē)과 꼬사나움(aschēmosynē)으로 가득 차 있다. 우아함은 좋은 리듬을 따르고 꼬사나움은 나쁜 리듬을 따른다. 좋은 리듬은 아름다운 이야기 방식(lexis)을 닮고, 나쁜 리듬은 추한 이야기 방식을 닮는다.(401a) 그리고 이야기 방식의 성격은 혼(psychē)의 성품(éthos)을 따른다. 따라서 어떤 리듬이 어떤 삶을 모방하는지를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배제해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3.1.1.1.2. 체육(gymnastikē) 교육

체육 교육은 시가 교육 다음에 받는 교육으로서(403c) 전사로서의 훈련에 중점을 둔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력 단련 뿐 아니라 섭생을 포함한 전체 생활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전사들에게는 복잡한 요리나 양념을 많이 한 진미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요리한 음식이 적합하다. 식사와 일상 생활 전반에서 이러한 단순함의 요구는 시가에서 요구되는 단순함에 비유할 수 있다. 시가에서의 다양성은 무절제를 낳고, 체육의 경우에는 질병을 낳는다. 반면에 단순성(haplotēs)은 시가의 경우는 혼에 절제를 낳고 체육의 경우는 몸에 건강을 낳는다.(404a ~ e) 체육이 섭생과 신체 단련을 통해서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면(thymoeides)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체육 교육과 시가 교육은 모두 혼을 위한 교육이다.(410c)

“이와 같은 식사와 일상 생활(diaita) 전반을 온갖 선별과 온갖 리듬으로 만들어진 노래와 그 작곡에다 비유한다면, 우리가 옳게 비유하게 되는 걸로 나는 생각하네. [...] 그렇다면 다양성이 앞의 경우에는 무 절제를 낳았지만, 이 경우에는 질병을 낳는데 비해 단순성(haplotēs)은 시가와 관련해서는 혼에 절제를 낳고, 체육과 관련해서는 몸에 건강을 낳겠군?”(404e)

“더욱이 그는 이 체조와 운동도, 다른 운동 선수들이 힘을 위해서 먹을것과 운동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 도 제 천성의 ‘결정(기개, tmymos)적인 면’(to thymeides)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일깨우느라, 힘들여서 할 걸세”(410b)

3.1.1.1.2.1. 시가와 체육의 병행

청소년기의 교육은 크게 체육 교육과 시가 교육으로 나누어진

다. 이 두 교과는 모두 혼을 위한 교육이며 함께 병행해서 행해져야 한다. 시가 교육은 이성적 성향을 자극하고 일깨우는데 기여를 하고, 체육 교육은 결정적인 성향을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체육교육만 받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사나워지고, 시가 교육만 받게 되면 정도 이상으로 온순해진다. 사나운 성격은 결정적인 성향에서 나오는데, 이 결정적인 성향이 잘 양육되면 용감해지지만 필요이상으로 조장되면 거칠어진다.(410d) 온순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이 지니고 있는데, 너무 느슨해지면 필요 이상으로 부드러워지지만, 잘 양육되면 온순하고 단정하게(kosmios) 된다. 이렇듯 체육과 시가 교육의 병행은 양면이 적절한 정도로 조장되고 이완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12a)

“시가와 체육의 혼화(krasis)는 이 둘을 조화롭게 만든다. 훌륭한 말과 학문으로 헤아리는 부분을 조장하고 키워주고, 결정적인 부분은 달래는 말로 이완시키며, 화성과 리듬으로 순화시킨다.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양육되어 제 할 일들을 배우고 교육받게 되면, 욕구적인 부분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441e ~ 442a)

3.1.1.2. 지식 교육

지식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일깨워서 혼으로 하여금 이데아의 세계를 보도록 이끌어 가는데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통치자 부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의 자질을 가진 자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3.1.1.2.1. 지식 교육의 의의

3.1.1.2.1.1. 혼의 전환(*periagōgē*)

지식 교육에 의해서 혼의 이성적 부분을 일깨운다는 것은 혼을 형상들의 세계로 향하도록 돌려놓는 것, 즉 ‘혼의 전환’ 내지는 이데아 세계로 ‘혼의 등정’(epanodos)을 유도하는 것이 의미하며, 그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음의 이데아를 보도록 하는 데 있다.(512c, 521c) 혼의 전환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혼에다가 보는 능력을 생기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어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518d) 혼의 다른 덕들(areté)은 신체적인 덕들처럼 습관(ethos)과 훈련(askēsis)에 의해서 나중에 습득되는 것이지만, 지적인 덕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게 될 수도 있고 해롭게 될 수도 있다.(519b)

“[...] 교육이란 혼 안에 지식(epistêmê)이 있지 않을 때, 마치 보지 못하는 눈에 시각을 넣어주듯,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다. 눈을 몸 전체와 함께 밝은 곳으로 돌리듯이, 혼 안에 있는 배움의 능력(dynamis)과 기관(organon)을 생성 소멸의 세계(가시적 영역)에서 존재의 세계(가지적 영역)으로 혼 전체와 함께 돌려놓는 것이다. [...]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논의는 각자의 혼 안에 있는 이 ‘힘’(dynamis)과 각자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관(器官, 수단, organon)을, 이를테면 눈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향하는 것은 몸 전체와 함께 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듯, 마찬가지로 혼 전체와 함께 생성계에서 전환해야만 된다는 걸 시사하고 있네. 또한 이는 실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것을 관상하면서도 견디어 낼 수 있게 될 때까지 해야만 된다는 걸 말일세. 한데, 이것을 우리가 ‘좋음’(善)이라 말하겠지?”(518c ~ d)

3.1.1.2.1.1.1. 동굴의 비유

교육(paideia)에 의한 혼의 지적인 상승 과정을 비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1.1.2.1.1.1.1. 동굴 속 세계

교육을 받지 않은(apaideusia) 혼의 지적인 상태는 지하 동굴 속의 죄수들의 그것과 흡사하다. 죄수들은 동굴의 안 쪽 벽만을 보도록 묶여 있고 벽에는 인물상 동물상 등 온갖 인공물들의 그림자가 비추어지고 있다. 이 인공물들은 죄수들의 등 뒤에서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며 조종되고 있고, 위쪽 멀리서 타오르는 불빛을 받아 죄수들이 보고 있는 벽면에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비춘다. 죄수들은 처음부터 벽면의 그림자만 봐 왔고, 그림자들의 실물인 인공물들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를 진짜 실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어떤 이유로 누군가가 결박에서 풀려나 불빛 쪽으로 몸을 돌려 인공물들을 보게 되면, 불빛에 눈이 부셔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공물들이 더 진실된 것이라 믿게 될 것이다.(514a ~ d)

“그러면 생각해 보게. 만약에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사태가 자연스레 진행된다면, 이들이 결박에서 풀려나고 어리석음에서 치유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지 말일세. 가령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풀려나서는, 갑자기 일어서서 목을 돌리고 걸어가 그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 강요당할 경우에, 그는 이 모든 걸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또한 전에는 그 그림자들만 보았을 뿐인 실물들을 눈부심 때문에 볼 수도 없을 걸세.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전에는 그가 엉터리를 보았지만 이제는 진짜(실재: to on)에 좀은 더 가까이 와 있고 또한 한 걸 더한 실상을 향하여 있어서, 더욱 옳게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지나가는 것들 각각을 그에게 가리켜 보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서는 대답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그는 당혹해 하며, 앞서 보게 된 것들을 방금 지적받은 것들 보다도 더 진실된 것들로 믿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515c ~ d)

3.1.1.2.1.1.1.2. 동굴 밖의 세계

더 나아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동굴 밖 햇빛 속으로 끌려 나오게 되면, 한층 더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자들을 제일 쉽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비친 사물들의 상(eidolon)들 보고, 그런 다음에 실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해 자체를 보고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가시적 영역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동굴 속에 보았던 모든 것들의 원인(aitios)임을 깨닫게 된 후에는, 동굴 속에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 그가 높은 곳의 것들을 보게 되려면, 익숙해짐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네. 처음에는 그림자들을 제일 쉽게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물 속에 비친 사람이나 또는 다른 것들의 상(eidolon)들을 보게 될 것이며, 실물들은 그런 뒤에야 보게 될 걸세. 또한 이것들에서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자체를 밤에 별빛과 달빛을 봄으로써 더 쉽게 관찰하게 될 걸세. 낮에 해와 햇빛을 봄으로써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보다도 말일세. [...] 마지막으로는 그가 해를, 물 속이나 다른 자리에 있는 해의 투영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해를 그 자체로서 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515e ~ 516b)

3.1.1.2.1.1.1.3. 동굴 속으로의 귀환

만약 그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동굴 속 환경에 서투를 것이므로 그곳 죄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514a ~ 517a) 동굴로의 귀환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 수호자들이 될 사람들이 변증술을 익힌 다음에 나라의 관직을 맡아 경험을 쌓는 과정에 해당된다.[‘실무교육’ 참조]

“[...]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이전의 같은 자리에 앉는다면, 그가 갑작스레 햇빛에서 벗어나왔으므로, 그의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게 되지 않겠는가? [...]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출곧 그곳에서 죄수 상태로 있던 그들과 그 그림자들을 다시 판별해 봄에 있어서 경합을 벌이도록 요구받는다면, 그것도 눈이 제 기능을 회복도 하기 전의 시력이 약한 때에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어둠에 익숙해지는 이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는 비웃음을 자초하지 않겠는가? 또한 그에 대해서, 그가 위로 올라가더니 눈을 벼려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올라가려고 애쓸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들을 풀어 주고서는 위로 인도해 가려고 꾀하는 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든 붙잡아서 죽일 수만 있다면, 그를 죽여 버리려 하지 않겠는가?”(516e ~ 517a)

3.1.1.2.1.1.4. 선분의 비유, 해의 비유에 적용

소크라테스는 이 동굴의 비유를 해의 비유[‘선분의 비유’ 참조]와 선분의 비유[‘해의 비유’ 참조]에 적용시킨다. ①동굴 속의 거처=가시적인 영역, ②동굴 속의 불빛=해의 힘, ③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가지적 영역으로 혼의 등정, ④동굴 밖에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해=좋음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정의롭고 아름다운(훌륭한) 것의 원인이고, 가지적 영역에서는 빛과 해를 낳고, 가지적 영역에서는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주인이다. 그래서 슬기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자는 좋음의 이데아를 보아야 한다.(517b ~ c)

“그러면, 여보게나 글봐콘! 이 전체 비유를 앞서 언급된 것들에다 적용시켜야만 하네. 시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을 감옥의 거처에다 비유하는 한편으로, 감옥 속의 불빛을 태양의 힘에다 비유함으로써 말일세. 그리고 위로 ‘오름’(anabasis)과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의 구경(thea)을 자네가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향한 혼

의 등정(登程: anodos)으로 간주한다면, 자네는 내 기대에 적중한 셈이 될 걸세. 자네는 이걸 듣고 싶어하니 말일세. 그렇지만 그게 진실인지 어떤지는 아마도 신이나 알 걸세. [...]”(517b ~ c)

3.1.1.2.1.1.2. 손가락의 비유

흔을 가시계로부터 가지계(이데아의 세계)로 전환하도록 일깨워주는 학과들과 그렇지 않은 학과들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두 가지 종류의 학문이 있다. 지성의 사용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전자는 감각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감각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동시에 상반된 판단을 내놓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감각에 의해서 손가락이라고 파악된 것은 그것의 위치, 색깔, 굵기 등에 상관없이 그렇게 여겨지며 동시에 손가락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각에 의해서 크다(무겁다, 단단하다, 굵다 등)고 파악되기도 한다.[약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비해서는 크지만 가운데 손가락 보다는 크다.] 따라서 흔은 지성에 의지해서 ‘크다’ 혹은 ‘작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내도록 강요받게 된다. 왜냐하면 감각은 같은 것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큼’ 혹은 ‘작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혼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감각은 서로 대립되는 것들(큼과 작음, 무거움과 가벼움, 등)을 각각 구별된 하나로서 보지 않고 섞여 있는 것(syngkechymena)으로 보지만, 지성은 그것들을 각각 구별된 하나로 보고 고찰한다. 전자의 것을 가시적인 것(horaton)이라 부르고 후자의 것을 가지적인 것(noēton)이라 부른다.(523b ~ 524d)

“지성에 의한 이해(앎)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들이란 대립되는 지각(aisthēsis)으로 동시에 넘어가지 않는 모든 것이네. 반면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나는 그걸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간주하네. 대상이 감각에 멀리서 접해오건 또는 가까이서 접해 오건 간에, 이것인지 아니면 이와 ‘반대되는 것’(to enantion)인지를 감각이 조금도 더 확인해 밝히지 않는 때에는 말일세.”(523c)

3.1.1.2.2. 예비 학과들

흔을 생성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전환 내지는 등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학과들로서 최상의 학과인 변증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먼저 익혀야할 예비 교육(propaideia)의 학과들이다. 이 학과들은, 동굴의 비유로 말하자면, 죄수의 결박에서 풀려남, 그림자들로부터 상(eidolon)들로의 방향전환, 동굴로부터 바깥 광명 세계로의 오름, 바깥 세계의 태양을 직접 보게 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요컨대 이 학과들은 혼의 최선의 부분(지성적 부분)이 실재들로 향하게 하고 그 가운데 최선의 것(to ariston)인 좋음의 이데아를 보도록 이끌어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532c) 아울러 통치자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전쟁의 투사들이어야만 하므로 이 학과들은 전사에게도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521c ~ d) 이 학과들의 교육은 청소년시기(시가와 체육 교육의 시기)에 받게 해야 하며, 강제로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인 노고는 강제에 의한 것일지라도 신체를 나쁘게 만들지 않지만, 강제적인 어떤 배움도 혼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또 놀이 삼아서 하도록 해야 적합한 성향을 타고 났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536d ~ 537a)

“[...] 혼이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보아야만 하는 것으로서, 혼으로 하여금 실재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것이 있는 저 영역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것은 이에 기여한다고 우리는 말하네”(526e)

“즉 이 교과들을 통해서 각자의 혼의 어떤 기관(organon)이 순수화 되어(ekkathairtai), [그동안의] 다른 활동들로 인해서 소실되고 눈멀 어 버린 이 기관이, 눈 만 개보다도 더 보전될 가치가 있는 이 기관이 다시 점화(點火)된다는 것을 말일세. 이것에 의해서만 진리가 보이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네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이를 전혀 깨닫지 못 한 사람들은 자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으이. 이들은 이 교과들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다른 어떤 이득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일세. [...]”(527e)

3.1.1.2.2.1. 수학

예비 학과들 중에서 맨 먼저 배워야 할 학과는 수(arithmos)와 계산(logismos)이다. 모든 기술(technē)과 지식(epistêmē)은 이 학과를 공통으로 사용한다.(522c) 동일한 것이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여럿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수(arithmos)와 하나(to hen)는 지성을 불러들여서 존재, 즉 가지적인 것을 고찰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의 것이다. 계산술(logistikē)과 수론(arithmētikē)도 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것들 역시 지성을 불러들이는 종류의 학과에 속한다.(524d ~ 525b) 또한 이 학과는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체들을 갖는 수들이 아니라 수들 자체, 즉 사고할(dianoêthēnai) 수 있을 뿐 달리는 어떻게도 다를 수 없는 그런 수들에 관하여 토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예비 학과로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다. 나아가서 산술에 밝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학과들의 이해도 빠르며, 이 학과를 훈련하게 되면 이해력을 향상 시킨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학과의 학습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더 큰 노고를 요구한다는 점도 이 학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524d ~ 526b)

“그러면 클라우콘, 이 교과를 법으로 정해서, 장차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들에 관여하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산술을 익히게 하되, 이를 이수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자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성에 의한 이해(앎)만으로 수들의 본성(성질: physis)에 대한 고찰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적절할 걸세. 말하자면, 무역상이나 소매상들처럼 사고파는 걸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생성’에서 진리와 존재(본질)로 혼 자체를 향하게 함에 있어서 그 ‘방향 전환’(metastrophē)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일세?”(525c)

3.1.1.2.2. 기하학(geōmetria)

이 학과는 군대의 야영, 지역의 점령, 군대의 집결과 분산, 전투와 진군 시의 여러 대형 편성 등에 관여하며 그래서 기하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단 유효하다.(526d)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학과가 좋은 이데아를 보도록 이끌어 가는데 기여하는가 하는 점인데, 이 학과의 보다 고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하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정방형을 만들’, ‘작도함’, ‘합함’) 기하학이 실용적인 일을 위한 것, 즉 생성 소멸하는 것에 대한 앎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과의 전체적인 성격은 영원한 실재(to aei on)에 대한 앎을 추구하는 것이다.(527a)

“[…] 정작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하학의 많은 부분이 그리고 그 고급 단계가 ‘좋음(善)의 이데아를 더 쉽게 보도록’(katidein) 만드는 데 어떤 점에서 기여하는 면이 있는가 하는 것일세. [...]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본질: ousia)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적합하겠으나, 만약에 생성(gensis)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않으니 [...] 기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학문이 이를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학문의 용어들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와 논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네 [...] 그들은 분명히 몹시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들을 쓰네. 그들은, 마치 실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실제 행동을 위해 모든 용어를 쓰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말하는데, ‘정방형을 만듦’, ‘작도(作圖)함’, ‘합함’(더함) 등, 모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전체 교과는 암(gnōsis)을 위해서 추구되는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네. [...]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것’(영원한 실제, to aei on)에 대한 앎을 위한 것이지, 어느 땐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앎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세. [...] 그러니까, 여보게나! 그것은 혼을 진리로 이끄는 것일 것이며, 지금 우리가 옳지 않게 아래로 향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위쪽으로 향하여 갖도록 만드는 것일 걸세”(526e ~ 527b)

3.1.1.2.2.3. 입체 기하학

입체 기하학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나라도 이 교과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탐구자들에게는 감독자(epistatēs)가 필요한데, 감독자가 생기기 힘들고, 생기더라도 현재 사정이 탐구자들이 감독자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학문의 매력 때문에 성장해 가고 있다. 온 나라가 함께 감독하며 이 교과를 존중하는데 앞장선다면 확립될 것이다.(528b ~ d)

“그렇게 된 데는 두 가지 탓이 있네. [첫째는] 어떤 나라도 이 교과 [의 문제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이 빈약하게 탐구되고 있어서네. [둘째로는] 탐구자들에게 감독자가 필요하며, 감독자 없이는 그 확립(해결)을 보지 못할 걸세. 우선, 이 감독자는 생기기가 힘들고, 다음으로는 그가 생기더라도 오늘날 실제 사정이 그렇듯, 이 교과의 탐구자들이 건방져서 그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온 나라가 함께 감독을 하며 이 문제들을 존중하는 데 앞장을 선다면, 이들도 따를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이것들이 탐구되면, 이 교과가 어떤 것인지가 명백해질 걸세. 지금도 이 문제들은 다중한태서 멸시를 받으며 차단당하고 있고, 그 탐구자들은 어떤 점에서

그것들이 유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닐 결세.”(528b ~ d)

3.1.1.2.2.4. 천문학(astronomia)

천문학은 입체의 운동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순서상 입체 기하학 다음이다. 천문학이 예비학과로서의 유용성을 가지려면 세간에서 행해지는 통속적인 천문학이 아닌 참된 천문학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것들이지만 참된 천체들에는 많이 못 미친다. 통속적인 천문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행성들의 운동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성의 궤도들과 수들, 그리고 형태들은 ‘가시적인 영역’에 속하는 말하자면 ‘생성계’의 그것들이다. 반면에 플라톤적 천문학은 추론적 사고(dianoia)의 눈으로 수학적인 별들의 운동에 주목한다. 이 수학적인 별들은 정확한 수학적인 수에 따라, 그리고 수학적인 궤도들에 따라 운동한다. 수학적인 궤도는 가시적인 물질적 행성들의 궤도들에서는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통속적인 천문학에서 주목하는 낮에 대한 밤의 비율, 달에 대한 주·야의 비율, 해에 대한 달의 비율,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다른 별들의 비율과 별들 상호간의 비율 등은 눈에 보이는 물체들에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변하지 않는 정확한 수학적인 수나 비례 관계들을 찾을 수 없다.(528d ~ 530a)

“하늘에 있는 장식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한 것들이라 믿어지지만, 참된 것들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네. 즉 ‘실재하는 빼름’과 ‘실재하는 느낌’이 참된 수(數)와 온갖 참된 도형(圖形)에 있어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운동하며, 아울러 그 안에 실재하는 것들을 운동시

키는 그런 운동들에는 말일세. 이것들이야말로 이성(logos)과 추론적 사고(dianoia)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들이지, 시각에 의해서는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네. [...] 그렇다면 하늘의 장식은 그것들과 관련된 배움을 위한 본보기로 이용해야만 하네. 마치 어떤 사람이 다이달로스나 다른 어떤 장인 또는 화가에 의해 특별하게 그려졌거나 완성된 도식(圖式)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경우에 하겠듯이 말일세. 짐작컨대, 기하학에 익숙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그 작품 완성에 있어서는 훌륭하지만, 이것들에서 동일한 것들이나 두배의 것들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비율(symmetria)의 진리를 파악하게 될 것처럼 진지하게 고찰하는 건 우스꽝스럽게 여길 것 같으이.”(529c ~ e)

3.1.1.2.2.5. 선법 연구(harmonia)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통속적 천문학이 눈에 의한 천체들의 운동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통속적인 선법 연구는 귀를 사용하는 선율 운동(enarmonios phora)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문들은 서로 자매 관계에 있다. 통속적인 선법 연구는 지성(nous)을 사용하기 보다는 귀를 사용해서 악기가 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들을 서로 비교해서 음들을 측정하고, 귀로 듣는 협화음을 속에서 수들을 찾는데 그친다. 그러나 선율 연구가 변증술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중심의 탐구, 즉 어떤 수들이 협화음들이고 어떤 것들이 아닌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그러한지를 고찰하는 탐구가 되어야 한다.(530d ~ 531c)

“단연코 우스꽝스런 일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떤 것들을 ‘조밀 음정’(稠密音程: pyknōmata)으로 부르며, 마치 이웃의 소리를 엿들으려는 사람들처럼, 귀를 갖다 땡니다. 어떤 이들은 사이에 있는 음마저도 듣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장 좁은 ‘음정’(diastēma)이라 부르며 이것으로써 음들을 측정해야만 한다고 말하나, 다른 이들은 그걸 이미 내

어 본 소리와 같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들은 양쪽 모두 지성(nous) 보다도 귀를 앞세웁니다.”(531a)

3.1.1.3. 현장 교육

3.1.1.3.1. 전쟁 참관

필수적인 체육 교육에서 벗어날 시기부터 20세가 되기 전 2, 3년간의 기간에 실시하는 교육.[‘아이들의 전쟁 참관 교육’ 참조.]

“필수적인 체육에서 벗어날 때일세. 이 기간은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간에 다른 걸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일세. 피로와 잠이 공부에 대해서는 적이니까 말일세. 또한 체육을 통해서 각자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는 그 자체가 동시에 적잖은 시험일세.”(537b)

3.1.2. 성년기 교육

3.1.2.1. 변증술 수련을 위한 종합적 예비 교육

변증술 수련의 전 단계로서 스무 살이 된 자들 가운데 선발해서 10년간 시행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전까지 교육받은 학과들을 결집해서 이것들 간의 상호 친근성과 실재(to on)의 본성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synopsis)를 갖도록 훈련시킨다. 포괄적인 이해력은 변증술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며, 따라서 변증술적 자질을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급석이다.(537c ~ d)

“[…] 스무 살이 된 자들 중에서 남들에 앞서 선발된 자들이 남들보다도 더 큰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아이들이 순서 없이 교육받게 된 교과들을 결집해서, 이를 교과 상호간의 친근성 및 ‘실재’(to on)의 본성(physis)에 대한 ‘포괄적인 봄’(synopsis)을 갖도록 해야만 되네. [...] 또한 그것은 변증술적 자질(dialetikē physis)인지 아

닌지에 대한 최대의 시험이 되기도 한다네.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ho synoptikos)은 ‘변증술에 능한’(dialektikos) 자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이가 아니기 때문일세.”(537c)

3.1.2.2. 변증술 교육

30살이 넘어설 때, 종합적 예비 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해서 5년간 다른 것은 제쳐두고 변증술의 훈련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 훈련은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한다. 어릴 적부터 정의로운 것들과 훌륭한 것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에 복종하며 자란 청년들이 변증술에 접하게 되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답한 것이 논박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 신념(dogma)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바뀐다. 젊은이들이 변증술의 논증을 처음 맛보게 되면 놀이삼아 남을 반박하는데 즐겨 이용하는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도 논박을 당하게 되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537e ~ 539c)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논변을 맛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신중성이 아니겠는가? 나는 자네가 다음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로는 생각지 않네. 즉 청년들이 처음으로 논변의 맛을 보게 되면, 이를 언제나 반박(반론: antilogia)에 이용함으로써, 놀이처럼 남용하네. 이들은 자기들을 논박한 사람들을 흉내 내어, 스스로 남들을 논박하는데, 마치 강아지들이 그려듯, 언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논변으로써 끌어 당겨서는 찢어발기기를 즐기네. [...] 그러므로 스스로 많은 사람을 논박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한테 논박당해 보기도 했을 경우에,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태에 급격하게 빠져 버리네. 또한 그 결과로 이들 자신들도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일체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방의 대상들로 되네. [...] 그렇지만 나이가 더 든 사람은 이런 광기에 관여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놀이를 위해 놀이를 하며 반박을 하는 자보다는 변증술적 논변을 하며 진실된 것을 고찰하고자 하는 자를 흉내 내려고 할것이네. 또한 이 사람은

스스로 더욱 절도 있는 사람으로 될 것이며, 이 활동을 불명예스럽기는 커녕 한결 더 영예로운 것으로 만들 걸세.”(539b ~ c)

3.1.2.2.1. 변증술(dialektikē)

철학자가 배워야 하는 최종이자 최상의 학과이다. 수학, 기하학, 천문학, 선법 연구는 이것을 위한 서곡(pooimion)이며, 변증술이 야 말로 본곡(nomos)이다. 변증술은 마치 갓돌과도 같이 다른 교과들 위에 놓인다.(534e) 변증술은 일차적으로 로고스(설명, 논증)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 없이는 이데아들을 인식할 수 없다.(531e) 이것은 각각의 이데아를 체계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파악하는 탐구 방법으로서(532b), 감각(aistsis)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지성에만 의지해서 각각의 이데아들로 나아가며 좋음 자체를 파악하는데서 완료된다.(532b) 각 이데아의 본질(ousia)에 대해 논증(logos)을 해 낼 수 있어야 변증술의 전문가(dialektikos)가 된다.(534b) 그리고 논증(logos)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를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해서 규정할 수 있어야만 좋음의 이데아를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논박을 헤쳐 나가되 의견(doxa)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본질(ousia)에 입각해서 따져가며 논증에 실패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534c) 변증술은 가정들을 폐기하고 원리(archē) 자체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가정들(hypo -thesis)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설명(logon didonai)을 하지 못하는 예비 학과들과는 다르다.(533d)

“그러면 글라우콘, 이건 이미 변증술적 논변(dialegesthai)이 끝을 맺어 줄 바로 그 본 악곡이 아니겠는가? 이는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시각의 힘이 이를 흉내내고자 하네. 시각이 어느새

생물들을 그 자체로, 별들도 그 자체로, 그리고 마침내는 태양을 그 자체로 바라보려고 꾀하는 결로 우리가 말했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변증술적 논변에 의해서 일체의 감각(aisthēsis)은 쓰지 않고서 이성적 논의(logos)를 통해서 각각인(-ㄴ, x인) 것 자체(auto go estin hekaston)로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것 자체(auto go estin agathon)를 지성에 의한 이해 자체(autē noēsis)에 의해서 파악하게 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때, 그는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to noēton)의 바로 그 끝에 이르게 되네. 마치 동굴을 벗어난 죄수가 그때 가시적인 것(to hofaton)의 끝에 이르렀듯이 말일세. [...] 이여정을 자네는 변증술(dialektikē)이라 일컫지 않는가?”(532a ~ b)

3.1.2.3. 실무 교육

전쟁에 관련된 일들을 지휘하고 관직들을 맡아서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하며, 이런 실무 경험들을 통해서 그 역량과 성향을 시험한다. 기간은 35세부터 50세까지 15년간이다.(539e)

“[...] 그 다음에는 이들이 다시 저 동굴 속으로 내려가 있도록 되어야만 하며, 또한 이들은 전쟁에 관련된 일들을 지휘하며 또한 젊은 사람들에 맞는 관직들도 맡도록 강제당해야만 하는데, 이는 이들이 경험에 있어서도 남들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세.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들을 어느 쪽에서 끌어당겨도 이들이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는지 아니면 제자리를 높기는지 시험받아야 되네.”(539e)

3.1.2.4. 통치자를 위한 교육

순 살이 되었을 때, 실무에서나 학식에서나 모든 면에서 두루 가장 뛰어난 자들을 다시 선발해서 최종 목표인 좋음의 이데아를 보도록 이끌어 가야한다.(540a)

“[...] 이들이 순 살이 되었을 때, 이들 중에서도 [시험들을] 무사히

치렀으며 실무에 있어서나 학식에 있어서 두루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했던 자들을 이제 최종 목표로 인도해서,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젖히고서 혼의 눈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빛을 제공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만 하네.”(540a)

3.1.2.4.1. 최상의 배움(to megiston mathēma)

장차 통치자가 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목표는 좋음의 이데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좋음(to agathon)의 이데아를 보는 것이다.[‘4.2.3.1. 좋음의 이데아’ 참조] 이 이데아 덕분에 정의로운 것들과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이 된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505a)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ta dokounta)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것들(ta onta)을 추구한다. 이처럼 좋은 것은 모든 혼이 얻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들이 정의로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505d~e)

“[...] ‘좋음(善: to agathon)의 이데아’가 ‘가장 큰(중요한)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이데아 덕분에 정의로운 것들도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로 된다는 것을 자네는 여러 차례 들었을 테니까 말일세. 자네는 방금도 이걸 내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우리가 이 이데아를 충분히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이것을 제외한 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덕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네.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의 ‘좋음’을 빠뜨린 채 그걸 소유한들 아무 소용이 없듯

이 말일세. 혹시 자네는 소유가 정작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모두 이득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혹은 좋은 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정작 아름답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겠는가?”(505a ~ b)

4. 지식(epistēmē)

4.1. 능력(dynamis)으로서의 지식

능력(dynamis)들은 있는 것들(ta onta)의 한 부류이다. 우리는 시각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청각에 의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다. 이 시각과 청각은 능력의 일종이다. 이처럼 능력이란 어떤 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477c) 그런 의미에서 지식(epistēmē)은 일종의 능력(dynamis)이다.(477e)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 할(gignōskein) 수가 있다.

“우리는 ‘능력’ (힘: dynamis)들을 ‘있는 것들’(ta onta)의 어떤 부류 (gems)로 말하겠는데, 그것들로써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작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모든 것도 무엇이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걸세. 이를테면, 시각과 청각이 그런 능력들(힘들: dynameis)에 속한다고 하겠네.”(477c)

4.1.1. 지식과 의견(doxa)의 구별

능력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의견(doxa)도 일종의 능력이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의견을 갖기(doxazein) 때문이다.(477e) 그런데 능력 자체는 모양도 빛깔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들을 구별할 때 주목하는 빛깔이나 모양과 같은 것들에 의지해서는 능력들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고, 다만 능력이 관

계하는 대상과 그것이 해내는 일(효과)에 주목해서 구별을 할 수 있을 때이다. 따라서 관계하는 대상이 같고 해 내는 일이 같으면 같은 능력(힘)이라 부르고, 다르면 다른 능력이라 부른다.(477c ~ d) 능력이 해 내는 일(효과)에서 볼 때, 의견(doxa)은 잘못할 수 있지만, 지식은 잘못할 수 없는 것(to anamartēton)이라는 점에서(477e) 의견은 지식과 구별된다. 능력으로서의 지식과 의견이 다르다면 각각 이들 각각은 본성상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다른 대상에 관계하는 것이다.(477b) 지식은 있는 것(to on)에 관계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의견의 대상은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능력'(힘)의 경우에 아무런 빛깔도 모양도 볼 수가 없다네. 또는 그와 같은 것들 중의 어떤 것으로서, 이를테면, 다른 많은 사물의 경우에도 찾아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이들 몇 가지에 주목하여 사물들을 서로 다른 것들로서 내 스스로 구별해 보게도 되는 그런 것을 '능력'(힘)에서는 볼 수가 없다네. '능력'(힘)의 경우에 나는 다만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과 그것이 해내는 작용만을 주목할 뿐이며, 이에 의해서 나는 이들 각각을 '능력' (힘)이라 부르게 되었거니와, 동일한 대상에 관계하며 동일한 작용을 해내는 것은 동일한 '능력'(힘)으로 부르되, 다른 대상에 관계하여 다른 작용을 해내는 것은 다른 '능력'(힘)으로 부르네."(477c ~ d)

4.1.1.1. 의견(doxa)

지식의 대상이 있는 것(to on)이고, 무지(agnoia)의 대상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의견의 대상은 있는 것도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견은 무지도 지식도 아니다. 이것은 명확성(saphēneia)에 있어서 지식(gnōsis)을 능가하지도, 불분명함(asa -pheiā)에서는 무지를 능가하지도 못한다. 의견은 지식보다 더 어둡지만, 무지보다는 더 밝은 것이다. 의견은 지식과 무

지의 중간이다.(478b ~ d) 혼이 어둠과 섞인 것[완전한 어둠인 무(無)와 밝음인 존재의 중간]에, 즉 생성 소멸하는 것에 고착할 때는 ‘의견’(doxa)을 갖게 되고, 이 의견들을 이리저리 바꾸어 가짐으로써 혼이 침침한 상태에 있게 된다.(508d)

4.1.1.1.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상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나 빛깔, 모양과 같은 감각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들만을 반길 뿐, 사고에 의해 파악되는 아름다움 자체(auto to kalon)의 본성을 알 수도 없고 반길 수도 없다.(476b, 479e) 아름다운 사물들을 믿으면서도 아름다운 것 자체(이데아)는 믿지 않는 사람은 꿈꾸는 상태로 사는 것과 같다. 그는 닮은 것을 닮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실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아름다운 것 자체를 믿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들(아름다운 사물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깐 상태로 사는 사람이다. 지식(epistēmē)이 결여된 의견(doxa)은 창피스러운 것이다. 지성(nous)은 갖추지 못한 채 참된 것에 대한 의견을 갖는 사람은 눈은 멀었어도 길을 바로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506c)

“아름다운 사물들은 믿으면서도 아름다움(kallos) 자체는 믿지도 않고 누군가가 그것의 인식(gnōsis)에 이르도록 그를 인도할지라도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 자네에겐 꿈꾸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간에 어떤 것을 닮은 것을 ‘닮은 것’(to homoion)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닮아 보이는 바로 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말일세. [...]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이것에 ‘관여하고 있는 것들’(ta metechonta)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관여하고 있는 것들’을 ‘그것

자체' (auto)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 자체'를 '관여하고 있는 것들'로 생각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네에겐 '깬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 역시 '꿈을 꾸는 상태로' (onar)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그야 물론 깨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사고(思考)는 알고 있는 자의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인식(지식, gnōmē)이라 함이 옳겠으나, 앞엣 사람의 사고는 의견을 갖는 자의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의견(doxa)이라 함이 옳지 않겠는가?"(476c ~ d)

4.2 지식의 대상

『국가』에서 지식의 대상은 의견의 대상과 대비되어 몇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있는 것, 혹은 실재하는 것(to on), 이데아 (idea) 혹은 형상(eidos), 가지적인 것(to noēton) 등이 그것이다.[‘순수한 것’(to katharon)(520d)이라는 표현도 한번 나온다.] 이 용어들은 나름대로 각기 존재론적, 인식론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4.2.1. 있는 것(to on)

‘있는 것’ 혹은 ‘실재하는 것’(to on)(501d, 582c). ‘참으로 있는 것’(to on ontōs)(490a).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on mēdamēi)은 무슨 방법으로도 인식될 수 없는 것(pantēi agnōston), 즉 무지(agnoia)의 대상이고, 있으면서 있지 않은 것, 즉 순수하게 있는 것(to eilikrinōs on)과 전혀 있지 않은 것의 중간(to metaxy)이 의견(doxa)의 대상이라면, 지식의 대상은 완벽하게 있는 것(to pantelōs on)으로서 완벽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 (pantelōs gnōston)이다.(477a) 그런가 하면 의견의 대상은 ‘생성 소멸하는 것’, ‘잡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500c)인 반면(508d), 지

식의 대상은 ‘언제나 있는 것’(영원한 실재, *to aei on*)(527a), “언제나 있으며 생성(genesis)과 소멸(phthora)에 의해 해매게 되는 일이 없는 존재(ousia)”(485b)로도 표현된다.

“‘완벽하게 있는 것 (*to pantelōs on*)은 완벽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은 무슨 방법으로도 인식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말일세 [...] ‘있으면서’(존재하면서, *einai*) ‘있지(존재하지) 않기도’(*mē einai*) 하는 그런 상태의 것일 때, 그것은 ‘순수하게(절대적으로) 있는 것’(*to eilikdnōs on*)과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to mēdamē on*)과의 ‘중간에’(사이에, *metaxy*) 위치하지 않겠는가? [...] 그렇다면 ‘있는 것’(實在, *to on*)에는 인식(*gnōsis*)이, ‘있지 않은 것’(非實在, *to mē on*)에는 필연적으로 무지(*agnōsia*)가 상관할진대, 그것들 ‘사이의 것’ (*to metaxy*)에 상관하는 것으로는 무지(*agnoia*)와 인식 (*epistēmē*) ‘사이의 어떤 것’(*metaxy ti*)을 찾아야만 되지 않겠는가?[...]”(477a ~ b)

4.2.2. 이데아(idea)

플라톤의 전문 용어로서의 ‘형상’(*edos*)도 ‘이데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또 ‘각각의 것 자체’(*auto ti hekaston*)(493e), ‘각각 ~ 인 것 자체’(*auto ho estin hekaston*)(490b, 533b), ‘아름다운 것 자체’(*auto to kalon*)(493e), ‘좋은 것 자체’(*auto to agaton*)(507a)도 형상 내지는 이데아를 가리키는 용어법이다. 이데아는 지식(*episthēmē*)과 진리(*alētheia*)의 원인(*aitia*)이지만 인식되는 것이다. 인식과 진리는 훌륭한 것들이기는 하나, 이데아는 이것들보다 더 훌륭한 것이다.(508e)

4.2.2.1. 이데아의 성격

4.2.2.1.1. 단일성(*to hen*)

각각의 이데아는 하나이다. 즉 이데아로서의 아름다움 자체, 정의로움 자체, 좋음 자체는 각각 하나다.(479a) 이것은 사물들의 다수성과 대비된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것 자체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사물들은 여럿이다.(507a) 또 많은 침상들과 많은 식탁들에 대해서 침상 이데아와 식탁 이데아는 각각 하나이다. 요컨대 같은 이름을 갖는 여럿들(ta polla)의 집합 각각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데아는 하나다.(596a ~ b)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 자체, 좋은 것 자체를 가정하며, 그런 식으로 여러 사물들 모두에 대해서 x인 것들의 각 부류에 하나의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이데아에 따라서 각각을 ~ 인 것이라 일컫는다.”(507b)

“우리가 같은 이름을 적용하는 각각의 [부류의] ‘많은 것’(ta polla)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찌면 각각의 어떤 ‘한’(hen) ‘형상’(形相, eidos)을 가정해(tithesthai) 버릇한 터이니까 말일세. [...] 많은 침상(klina)과 식탁이 있겠네. [...] 이 가구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두 ‘이데아’(idea)가 있겠는데, 그 하나는 침상의 이데아이며, 다른 하나는 식탁의 이데아 일세.”(596a ~ b)

4.2.2.1.1. 제삼의 침상 논증

597c에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논증의 형식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a. 침상의 형상이 두 개(B1, B2)가 있다고 하자. b. 그런데 B1과 B2는 ‘침상’이라는 점에서 같아야 한다. c. 그렇다면 B1과 B2는 하나의 ‘침상인 것’(ho estin klinē)을 공유해야 한다. d. 그렇다면 그 하나의 ‘침상인 것’이 침상의 형상이어야 한다. e. 따라서 침상의 형상은 하나다.

"그런데 신은 자신이 원했던 또는 자신으로서도 본질적 침상을 하니 이상은 만들 수 없는 어떤 필연성 때문이었던 간에, 저 '침상인 것 자체'를 하나만 만들었다네. 신에 의해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런 것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또한 없을 것이네 [...] 설사 신이 침상을 두 개만 만들더라도 다시 하나가 나타나, 이것의 형상을 저들 둘이 다시금 가질 것이며, 또한 '침상인 것' (ho estin klin) [자체]는 그 하나이지, 이들 둘은 아닐 것이기 때문 일세"(597c)

4.2.2.1.1.2. 동일성

이데아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 (479a), “규칙적이고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있는 것들”(500c)이다. 이것은 사물들의 대립적 성격과 대비된다. 많은 아름다운 사물들은 추한 것으로, 정의로운 것들은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신성한 것들은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두 배인 것들은 절반으로도 보인다. 이처럼 큰 것들, 작은 것들, 가벼운 것들, 무거운 것들, 등등은 각각 그 반대의 것으로도 드러나며 그렇게 불린다.(479a~b) 요컨대 이데아는 언제나 ‘~인 것’인 반면에(그리스어 on과 einai는 우리말로 술어가 생략된 표현인 ‘~인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사물들은 ‘~이기도 하고 ~이지 않기도 한 것’, 즉 ~인 것과 ~이지 않은 것의 중간을 맴도는 것(479d)이다.

“‘아름다운 것(아름다움) 자체’라든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 같은 상태로 있는’ 미(美) 자체의 어떤 이데아도 전혀 믿지 않으면서 ‘많은 아름다운 것’(사물) (polla ta kala)은 믿는 고지식한 사람, 누군가가 ‘아름다움’은 ‘하나’ (hen)이며 ‘올바름’도 ‘하나’이고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하다 [...] 이 많은 아름다운 사물 가운데 추해 보이지 않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면에서는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추하게 보이는 게 필연적입니다.”(479a)

4.2.2.1.1.3. 가설적 성격

‘여러 ~인 것들’의 각 집합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이데아로서 ‘~인 것 자체’를 가정하는 것(tithesthai)은 탐구를 위한 방법(methodos)이다.(596a) 『국가』 476e에서는 철학자의 정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국가』 596a에서는 모방(memēsis)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데아를 가정한다. 그런가 하면 『파이돈』에서는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데아를 가정한다. 이처럼 가정으로 놓은 각각의 이데아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는 변증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변증술’ 참조]

4.2.2.2. 이데아와 사물들의 관계

이데아와 사물들의 관계는 보통 ‘참여함’(parousia), ‘들어가 있음’(eneinai), ‘공유함’(metechei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476a)에서는 이데아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보통 쓰이는 ‘결합’(koinōnia)이라는 용어가 이데아와 사물들 간의 관계에 함께 쓰이고 있다.) 즉 다수의 행위들이나 물체들이 ‘~인 것’(아름다운, 정의로운, 등등)으로 나타나 보이는(phainesthai) 것은 이데아인 ‘~인 것 자체’가 그것들 속에 ‘들어가 있음’ 내지는 ‘참여함’에 의해서이다.(476a) 거꾸로 다수의 사물을 쪽에서 보면 ‘여러 ~인 것들’이 ‘~인 것’은 하나의 이데아 ‘~인 것 자체’를 ‘공유함’에 의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여러 사물들은 아름다운 것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들’(ta metechonta)이다.(476d)

“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 ‘좋음’과 ‘나쁨’의 경우에도, 그리고 또 [그 밖의] 모든 형상(形相, eidos)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각각이 그 자체는 하나이지만, 여러 행위 및 물체와의 결합(교합, 관여, koinōnia)에 의해서 [...] 어디에나 나타남으로써, 그 각각이 여

렷으로 보이네.”(476a)

4.2.3. 가지적인 것(to noēton)

지식의 대상인 이데아들은 지성(nous)에 알려지기는 하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의견의 대상인 사물들은 눈에 ‘보이기’는(horasthai) 하되 ‘지성’(nous)에 알려지지는 않는다.(507c) 그래서 후자를 가시적인 것(horaton)이라 부르고, 전자를 가지적인 것(noēton)이라 부른다.(524c) 또 의견의 대상은 시각 청각 등 ‘감각에 의해 지각 될 수 있는 것들’(ta aisthēta)이라고 말하기도 하며(507c), ‘생성계’(518c), 혹은 ‘생성과 동류인 것들’(519b)이라고도 표현된다. 『국가』 524c에서 플라톤은 감각(aisthēsis)과 지성의 특징적인 한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의견의 대상은 ‘~이기도 하고 ~이지 않기도 한 것’, 즉 대립적인 성질(큼-작음, 선-악, 아름다움-추함 등)을 갖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각은 동일한 것이 상반된 성질을 갖는 것으로 혼에게 알려준다. 감각은 상반된 성질들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한데 섞여 있는 것(syngkechymena)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성(noēsis)은 상반된 성질들 각각을 구별된 것으로 본다.(524c) 이러한 지성은 이데아를 포착하기에 적합한 혼의 부분으로서(490b) 혼의 ‘최선의 부분’(532b)이며 ‘만개의 눈보다 더 보전할 가치가 있는 기관’(527e)이다.

4.2.3.1. 좋음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지식)의 대상들에게 진리(alētheia)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의 능력(dynamis)을 주는 것”이다.(508e) 그래서 좋음의 이데아는 ‘실재들 가운데 가장 복된

것'(526e), '가지적인 것의 끝'(telos)(532b), '실재들 가운데 최선의 것'(to ariston)(532c)으로 묘사된다. 철학자가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가장 큰 배움'이 바로 이 좋음의 이데아이며, 따라서 변증술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4.2.3.1.1. 해의 비유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고 소크라테스는 먼저 이데아론을 전제한 다음(507b), 좋음의 이데아를 해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a.빛은 시각에 필수적인 것이다. 빛이 없으면 시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빛은 해에서 나온다. b.해는 좋음의 자식(ekgonos)이자 좋음과 닮은 것(analogon)이기도 하다. 닮은 점이란 이런 것이다. 해가 가시적인 사물들을 비출 때 눈이 사물들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시각을 갖게 되듯이, 좋음의 이데아에 의해서 가지적인 것들에 진리(aletheia)가 비추어질 때 혼이 인식하게 되며 그래서 지성을 갖게 된다.[해는 빛을 비춤으로써 보이는 것들에게 보일 수 있는 힘을, 눈에는 시각을 부여한다. 좋음의 이데아는 진리를 비춤으로써 인식되는 것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힘을, 혼에는 지성을 부여한다] c.해는 가시적 사물들의 생성과 성장을 주관한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되는 것들(지식의 대상들)의 존재를 주관한다. d.해 자신은 가시적인 것이지만, 가시적인 사물들처럼 생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좋음의 이데아 자체도 인식 가능한 것이지만, 인식 가능한 다른 대상들의 존재를 넘어선다.(507d~509b)

“태양은 보이는 것들에 ‘보임’의 ‘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에 생성과 성장 그리고 영양을 제공해 준다고 자네가 말할 것으로

로 나는 생각하네. 그것 자체는 생성(생성되는 것, genesis)이 아니면서 말일세 [...] 그러므로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됨’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좋음’(善)으로 인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게’(einai) 되고 그 ‘본질’(ousia)을 갖게 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요 ‘좋음’은 [단순한] ‘존재’(ousia)가 아니라, 지위와 힘에 있어서 ‘존재’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나.”(509b)

4.2.3.1.2. 선분의 비유

소크라테스는 해의 비유가 좋음의 이데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토로한다. 글라우콘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와의 유사성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해의 비유에서 구분했던 가지적(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영역과 가시적인 영역을 선분으로喻겨 명확성(sapheneia)과 불명확성의 관점에서 두 영역을 설명한다.(509c ~ d)

4.2.3.1.2.1. 가시적 영역

가시적 영역과 가지적 영역을 하나의 선분(AB) 위에 같지 않은 두 부분(AC, CB)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가시적 영역을 영상(影像)(eikōn)들의 영역(AD)과 실물들의 영역(DC)으로 나눈다. 여기서 영상들이란 그림자들, 물에 비친 상(像)들, 매끄럽고 광택 나는 것들의 표면에 비친 상들을 말하며, 실물들이란 영상들의 실물로서 동·식물들 및 일체의 인공물들을 가리킨다. 영상들의 영역과 실물들의 영역 사이의 관계는 가시적 영역과 가지적 영역 사이의 관계와 같다.[AD : DC = AC : CB](509d ~ 510a)

“어쨌든 자넨 이들 두 종류를, 즉 가시적인 것과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을 확보했겠지? [...] 더 나아가 마치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하나의 선분을 취한 것처럼 하고서, 이 각각의 부분, 즉 [눈에]

‘보이는 부류’의 부분과 지성에 ‘알려지는 부류’의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게나. 그러면 그것들의 상대적인 명확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보이는 부류의 부분에서 또 하나의 부분으로 영상(eikōn)들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내가 말하는 영상(모상)들이란 먼저 그림자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물에 비친 상(像)들과 조밀하며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들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들, 그리고, 자네가 이해한다면, 그와 같은 모든 것일세. [...] 나아가 다른 한 부분은 이 영상들이 닮아 보이는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모든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부류로 간주하게. [...] 자네는 또한 이것이 진리와 진리 아님으로 인해서 나뉜다고 그래서 마치 ‘의견의 대상인 것’(to doxaston)이 ‘인식 가능한 것’(to gnōston)에 대해서 갖는 관계처럼, ‘닮은 것’은 그 닮음의 대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509d ~ 510a)

4.2.3.1.2.2. 가지적 영역

가지적 영역도 두 부분으로, 즉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CE)과 형상들의 영역(EB)으로 나눈다.

4.2.3.1.2.2.1.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은 DC 영역의 것들을 영상으로 사용하며, 가정(hypothesis)에서 원리(archē)로 나아가지 않고 결론(teleutē)로 나아가는 방식의 탐구를 하는 영역이다. 기하학이나 산술과 같은 학문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 짝수, 도형들, 세 종류의 각 등속의 것들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 가정들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 처음에 고찰을 시작하게 된 대상에 이르러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린다. 이때 눈에 보이는 도형(eidos)들을 추가로 이용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 대각선 자체이다. 이것들은 ‘추론적 사고’(dianoia)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혼은 이것들의 탐구를 위해서 가정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지적인 것(noēton)의 일종이기는 하나, 혼은 그것들에 대해서 지성(nous)을 갖지는 못한다. 추론적 사고는 의견(doxa)과 지성 사이에 놓인다.(510b ~ 511b)

“[...] 기하학이나 계산(산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들, 세 종류의 각(角), 그리고 각각의 탐구에 따른 이런 등속의 다른 것들,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서 가정한다는 걸, 또한 이것들을 가정들로 채택하고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명백한 것들로서, 자신들에게도 남들한테도 더 이상의 아무런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걸 말일세. 이 가정들에서 출발하여 곧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고찰을 시작하게 된 대상에 이르러 일관성 있게(모순되지 않게)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 그런데 이건 내가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noēton) 것이라고 말한 종류(eidos)이긴 하나, 이 종류의 탐구와 관련해서는 혼은 어쩔 수 없이 가정들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근원)로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혼이 가정들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네. 그 아랫 단계의 것들에 의해 닮음의 대상들로 된 바로 그것들이며, 그 아래

것들에 비해 명백한 것들로 판단되고 존중되는 것들이기도 한 그것들을 또한 혼은 상(모상)들로서 이용하네.”(510d ~ 511a)

4.2.3.1.2.2.2. 이데아들의 영역

형상들의 영역은 형상(eidos)들만을 사용하며, 로고스 자체가 문답할 수 있는 힘(tē tou dialegesthai dynamei), 즉 변증술의 능력에 의해 붙잡는 영역이다. 이성(logos)은 가정들을 원리로서 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정으로 취급하며 모든 것의 원리, 즉 무가 정적인 것에로 까지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한다. 이 형상들의 영역은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보다 더 명확하다. 수학적인 것의 영역과 형상들의 영역 사이의 관계 역시 가시적인 영역과 가지적인 영역 사이의 관계와 같다.[CE : EB = AC : CB]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종류’의 다른 한 부분으로 내가 뜻하는 것은 다음 것이라 이해하게나. 이는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dialektik)적 논변’(dialegesthai)의 힘에 의해서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들을 원리들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밀에(hypo) 놓은 것’(thesis)(基盤, hypothesis)들로서 대하네. 즉 ‘무가 정(無假定)의 것’(to anmootheton)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근원)’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들이나 출발점들처럼 말일세. 이성 자체가 이를 포착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결론(종결) 쪽으로 내려가되,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전혀 이용하지 않고 형상(eidos)들 자체만을 이용하여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형상들에서 또한 끝을 맷네.”(511b ~ c)

4.2.3.1.2.3. 영역 구별에 따른 암의 상태

이상의 네 영역들에 대해서 혼이 갖게 되는 암의 상태도 네 가지이다. 혼은 형상들의 영역에서는 지성에 의한 암(noēsis) 내지

는 지식(epistēmē)을, 수학적인 것들의 영역에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실물들의 영역에서는 믿음(pistis)을, 영상들의 영역에서는 상상(eikasia)을 갖게 된다. 이것들은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에 관여한다.(511d~e)

"[...] 이 네 부분들에 대응하여 이런 네 가지의 [지적인] 상태(pathema)들이 혼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게나. 맨 윗 것에 대해서는 ‘지성에 의한 얇(이해, 직관)’(思堆: 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믿음(확신, pistis)을, 그리고 마지막 것에 대해서는 상상(짐작, eikasia)을 배당하게나. 또한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씩 명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에 비례하여 배열하게나.”(511d~e)

참·고·문·현

| 연구 문헌 |

[원문 판본]

Platon, *Politeia in Platonis opera* Vol. 4 (ed. by) John Burnet,
Oxford Univ. Press, 1900(1st.)-1989

[영어 번역본]

Plato, *The Republic I, II* (the Loeb Classical Library),
translated by Paul Shorey, Harvard Univ. Press,
Vol. I(19371--1969) Vol. II(19351--1946)

[한글 번역본]

플라톤, 『(플라톤의)국가(政體)』, 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 참고 문헌 |

James Adam (ed.), *The Republic of Plato with critical notes, commentary and appendices ; with an introduction by D. A. Rees*, Cambridge Univ. Press, 19021--1979

- F. Schleiermacher und D. Kurz, *Der Staat*, Darmstadt, 1971
- L. Robin et M.J. Moreau, Platon: *Oeuvres Complètes* 1-2, *La République*, Gallimard, 1950
- A. Bloom, *The Republic of Plato*, Basic Books, 1968
- Nicholas P. White, *A compan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Univ. Press, 1979
- F.M. Cornford(translated), *The Republic of Plato* with Introduction and Notes, Oxford Univ. Press, 19411, 1967
- G. M. A. Grube (translated), *Plato's Republic*, Hackett Pub. Co., 1974.
- D. Lee, *Plato: The Republic*, Penguin, 1974
- R. Waterfield, *Plato: Republic*, Oxford Univ. Press, 1994
- 플라톤, 『플라톤 : 메논, 과이돈, 국가』, 朴琮玄 編著,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 미하엘 보르트, 『철학자 플라톤』, 한석환 옮김, 이학사, 2003

김 인 곤(金寅坤)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리스 고전철학을 공부하고 플라톤에 관한 연구로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서울산업대, 외국어대, 서울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정암학당의 연구책임자로서 그리스 고전철학 텍스트 강독과 번역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편에서 가설적 방법」,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 있다.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8호

발행일 2004년 6월 10일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878-2117



9 788991 280175



94 100

ISBN 89-91280-17-X